

7

주체103(2014)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7호

(루계 제801호)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도적,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
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جل출한
수령,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김 정 은

차 례

태양의 그 미소 영원하리

수령님과 이만위천(시)	홍 민 식(4)
1994년 7월 7일은(시)	김 영 일(5)
영원한 승리의 광장(시)	최 명 길(5)
7월 27일(시)	리 광 규(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수령님과 농집모(시)	전 승 일(7)
단편소설 불을 뿜는 땅	곽 성 호(8)
상촌에 꽃핀 천설(시)	김 정 삼(19)
주체문학의 대강	(19)
삼천리를 비치는 태양은 영원하다(평론)	리 성(20)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22)
수령님의 수첩	김 선 화(23)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가사)	윤 희(23)
백두산에 올랐다	김 성 조(24)
1211고지	김 정 곤(24)
강원은 그날을 믿는다	위 명 철(25)
조발 외 1편	김 용 엽(38)
선군시대에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노래하는 시가문학을 더 많이 창작하자(연단)	강 은 송(26)

《원썬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 정 은

단편소설	약 속	류 정 옥(28)
	생활의 수업	김 성 문(42)
	무지개	서 청 송(60)
〔수필〕	사랑과 보답에 대한 생각	조 인 영(36)
	길손을 부르는 소리	리 경 명(73)

◇ 평 론 ◇

토화속에서 태어난 노래는 더욱 아름답다(단평)	정 철 호(39)
시대정신을 옹기 구현하자	백 현 숙(76)

시	한 소녀는 오늘도 묻는다	김 철 혁(35)
	수리개	홍 성 두(41)
	탄부의 길	류 정 실(55)
	추억의 흰 시칠(시초)	리 명 근(56)
	김매기의 하루	김 경 석(59)
	무엇을 더 바라랴	최 정 용(71)
	여기서 노동자 내가 산다	리 정 녀(72)
	얼마나 좋아	우 광 복(74)
	《광릉》호는 바다로 간다 외 1편	주 경(75)
	로권의 월참에	리 영 일(71)
내 탁상등 끄지 않으리!	한 동 선(79)	
해괴한 《출산》소식(풍자시)	강 규 우(80)	

상 식	(37), (79)
-----------	------------

수령님과 이민위천

홍 민 식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세월이 두번이나 흘러갔어도
내 마음속엔
수령님 아니계신 세월은
하루 한순간도 흐르지 않았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어려울 땐 힘과 지혜를 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더 좋은 래일을 축복해주신 수령님

수령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민위천
이민위천을 생각하면 어려오는 수령님영상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오, 이민위천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지론이며 좌우명이었다!

하여 수령님 창건하시고 빛내이신
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
군대도 인민을 위한 조선인민군
나라도 인민대중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한걸음 걸으셔도 인민을 찾아
한가지 구상을 펼쳐도 인민을 위해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울리며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의 한평생!

늘 품고계시던 작은 수첩엔
평범한 농민의 콩재배경험이며
이름없는 마을의 인구통계
동해선철길의 차굴개수도 다 적혀있는
그것은 인민의 소원 인민의 지향이 담긴

우리 혁명의 실천강령!

인민들속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문학도 다 있다시며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로선을 구상하시고 정책을 세우신
인민대중은 수령님 품고계신 혁명의 대백과사전
이었다

눈물겨워라
공장과 농촌을 돌아보는것보다
더 좋은 휴식은 없다고
이민위천 사랑의 길 걷고걸으시며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조차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 그 모습

인민들속에 계시는것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순간은 없으신듯
수령님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었나니
인민은 수령님마음속에 받들린 하늘!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 빛나는 태양!

그 태양의 빛발아래
세상에 오직 하나
이 행성우에 우뚝 솟아 빛나는
인민이 주인된 인민의 세상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인민의 나라여

아, 이민위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내 조국은 다가올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희망넘치고
아버이수령님은 영원한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 빛나리라!



1994년 7월 7일은

김영일

벌써 날이 밝는가
위대한 수령님
밤새워 보시던 문전에서 눈길을 드신다
하루일과중의 휴식할수 있는 시간
아침산책할 시간이다

어제까지 런 이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여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밤늦도록 문건을 보신 수령님

이른새벽
또다시 문건을 보시는데
조용히 집무실에 들어선 부관이
아침산책할 시간이라고 말씀드린다

아침산책시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이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수령님께 정중히 제의하신 시간
수령님도 쾌히 응하신 시간

아침산책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였다
간밤의 피로도 풀고
새날의 회열도 안아보시는 시간

상쾌한 아침공기속에

아침해돋이도
남먼저 부감하시며
조국의 문을 제일먼저 여시였고
조국의 문을 제일 늦게 닫으시는것은
수령님의 변함없는 일과였다
수령님은 한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오늘은
조국통일의 문을 기어이 여시려고
하루일과중의 휴식할수 있는 시간
아침산책시간마저 미루시고
다시 문건을 보시는 수령님

핵전쟁의 불구름을 가시고
북과 남이 하나될 방도를 모색하신다
오늘의 세대를 넘어
후대들의 행복한 앞날까지 그려보시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문건에 밝히신다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일생의 큰 짐을 벗어놓게 되었다고
우리 수령님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마음을 합친 무계로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신다
《김일성 1994. 7. 7.》

영원한 승리의 광장

최명길

해빛 눈부신 7월의 하늘가에
전승축포의 불꽃인가
전승환회의 꽃보라인가
비둘기떼 유유히 날으는
김일성광장

하얀 대리석주석단을 바라보면
계시여라
우리의 영원한 수령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한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눈시울 뜨거이 우러르니
승리로 영광떨친 세월의 흐름소리인듯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
못 잊을 추억을 불러낸다

예순한해전 그날
번쩍이는 훈장의 물결우에
근위사단들의 붉은 군기의 파도우에
해빛같은 미소를 뿌리시며
전승광장주석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고지를 뒤흔들던 만세의 함성이
원썩들을 짓차며 남으로 내달리던
초연탄우 헤쳐온 군화소리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고이 간직한
김일성광장 주석단의 높은 처마여

영용한 인민군전사들
결전에 나가며 바위에 삼날을 갈면서도
습격전에 나서던 깊은 밤에도
수령님영상 그리며
언제나 서보던 승리의 광장이여

수령님 높이 모실

이 광장을 그리며 싸운 전사들
승리자되어 들어선 위훈의 광장
이 광장에 올린 맹세가
조선의 신념이 되어 승리만을 떨치고
이 광장에서 시작된 철의 흐름
무적필승의 조선의 모습으로
그 기상 만리창공에 닿았거니

내 조국의 천만군민이
대원수님들께 승리의 보고만을 드리는 광장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이 땅우에 꽃피워갈
리상의 꽃바다가 펼쳐지고
승리와 영광만이 펼쳐지는 광장

아, 우리의 영원한 수령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삼천리 내 조국 한끝까지 넓혀갈
영원한 승리의 광장 김일성광장이여!

7월 27일

리 광 규

이 땅에 해마다 찾아오는
전승기념일 7월 27일이여
이날은 무엇을 안고오기에
생각은 이리도 깊어지고
이날은 무엇을 엮고가기에
못 잊을 추억을 불러주는것인가

승리한 병사들 훈장을 번쩍이며
전승광장 주석단에 계시는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웨치던
못 잊을 영광의 그날이더냐

전승의 그날로부터 61년세월
그날의 전승광장을 지나던 병사들 머리에도
흰서리 내리고
그날의 격전의 전호가엔
나무숲이 무성하여 격전장의 흔적은 없어져도

어찌하여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들의 모습은
군상의 모습으로 더더욱 생생하고
전화에 불타던 바위에 이끼 덮이었어도

우리 가슴 더더욱 불태워주느냐

세상엔 나라도 많고 전쟁도 많았지만
승리의 추억 이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처럼 빛나는것 아니거니
전승의 그날로 오는 길도 중요하지만
전승을 빛내여가는 그 길도
또 얼마나 귀중한가를
력사가 지켜주고 빛내준 이 추억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기에
이 땅에 안아온 전승일 그날을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승리의 력사만을 새겨왔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여
영원히 빛날 전승만을 떨치려니

오, 조국에 승리와 영광만을 준
영원한 우리의 명절
승리의 기치로 물려주는
전승기념일 7월 27일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래여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 걸음을 떼어야 했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어언 팔손에 이르렀다.》

《일찌기 랑진을 여인 나는 어려서부터 동지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 한생을 보냈다. 나는 수천수만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혈로를 헤쳐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와 조직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득했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었다고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뿐이다.》

수령님과 농립모

전 승 일

해빛도 류달리 쏟아져내리고
들에도 그리움의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이 봄날
생각깊이 포전길 걷는 이 마음속엔
어쩌면 이리도
수령님의 농립모가 생각되는것인가

금풍이 살랑이던 그 가을날처럼
금시라도 이 들길에서 뵈울것만 같구나
물결치는 이랑속에 서시여
벗어드신 농립모로 무드워 부쳐가시던
아, 아버이의 그 모습이

농민의 머리우에 씌워지는것이
농립모라지만
조국의 천만운명 다 안고계신 우리 수령님
어찌하여 농민들보다 더 긴긴날
이 농립모를 벗지 못하시였던가

만민의 축원을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조차
농민이 되시여 포전에 계시었다
내리는 봄비에 농립모 벗어드시고
풍년비가 온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우리 수령님

풍작이룬 강냉이밭에 가시여선
팔뚝같은 이삭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여기서 하루밤 쉬고가고싶다시던 그 가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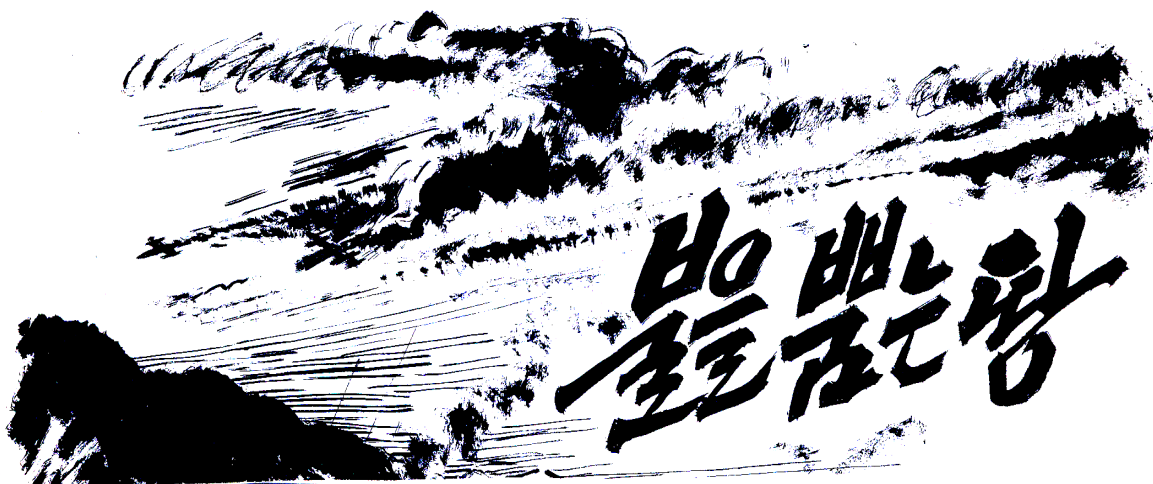
쏟아지는 불별을 가리워드리기엔
그이의 농립모가 너무도 작았구나

정녕 우리 다 알았던가
세세년년 만풍의 대강으로 펼쳐준
농촌테제의 금옥같은 구절구절도
서재의 종이우에 아니라
이 농립모 쓰시고 두렁길 포전길 걸으시며
드넓은 대지우에 한자한자 새겨가신줄

인민이 누려가는 기쁨이
그리도 간절한 념원이였기에
인민앞에 놓여있는 작은 밥상을
그리도 큰 국사로 소중히 안고계셨기에
비바람 찬바람 다 떠이시고
한평생 이 들길에서 농립모를 벗지 못하시였구나

아버이의 평생소원이 꿈같이 펼쳐지는 땅
황금가을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봄들판에서
금시라도 다시 뵈울것만 같은
수령님 아, 수령님을 목메여 부르나니

인민의 심장속엔 오늘도 서계시여라
푸르러가는 사회주의봄대지우에
천년만년 축복의 해살 뿌리고 뿌려주시며
오늘도 봄날의 이 들길우에 수령님은 서계시여라
아, 농립모 쓰신 영원한 아버이모습으로



곽 성 호

1

전쟁...

불타는 땅...

불별이 쏟아지는 여름...

나지막한 산기슭에 진을 친 박격포병들은 단가마 속처럼 찌물쿠는 무더위속에서 화력복무훈련을 하느라 땀투성이가 되어버렸다. 그때선지 얼음처럼 찜한 샘물이 도착했을 때는 저저마다 군용물통을 받아들며 떠들썩했다. 급한 축들은 어느새 마개를 따고 꿀꺽꿀꺽 더위 끄는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끄—옥.》하는 소리가 색다르게 울렸다.

《이 친구, 사례들렀나? 천천히 마실게지. ...》

량볼에까지 수염그루가 총총한 상등병아바이가 턱밑의 물기를 훔치며 옆의 키작은 전사에게 하는 말이였다. 콩 한바리쯤은 보리밥 한술 잣을새에 제껴내친다고 늘 도리깨질자랑을 하며 그 전사의 등집도 털어주곤 하던 구대원이였다. 허나 아니할 걱정이였다. 군복이 몸에 붙지 않아보이는 애어린 전사는 아직 물병마개를 열지도 않았던것이다. 대신 또 딸국질을 했다.

한달전에 입대한 박순돌이였다.

이럴 때면 의례히 아바이의 천연스런 엉너리가 시작되곤 했다.

《아빠, 이제야 꼬리를 드러내는가보군. 우리 마누라가 턱척소를 제때에 하라구 품에 넣어준 그 손저울을 자네가 슬쩍 해치웠지?》

깜짝 놀라거나 긴장해지면 딸국질이 멎는 경우도

없지 않기에 우정 엄포를 놓는 아바이였다.

《아바이, 딸국질두 이젠 그런 뻔드름한 짱포죤엔 꿈쩍 안해요.》

갑산내기전사가 던진 그 말을 증명하듯 재차 딸국질소리가 울렸다.

와하— 포병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모르는 소리, 내 오늘 아침 개울가에서 저 순돌동무가 남몰래 거울하구 깨꼬— 하는걸 봤는데 두?... 그렇지?》

빈말이 아닌듯 순돌의 얼굴은 삼시에 구운 게처럼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항공!》하는 날카로운 웨침이 대번에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딸국질소리가 난 때부터 손채앙을 한채 저견하늘가를 훑어보던 칼칼한 몸매의 소대장이 던진 구령이였다.

포병들은 일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뜻 갈마든 정숙을 깨뜨리며 다시 격렬한 딸국질소리가 울리는데 남쪽의 그리 높지 않은 산잔등너머에서 색색기 한대가 불쑥 나타났다.

《뿔들 하는가? 빨리 대피하라!》

소대장의 채찍같은 구령이 대기를 후려치자 포병들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돌은 아바이와 함께 포를 위장하고 포탄상자를 끌어들었다. 하지만 눈길만은 적기쪽에서 떼지 못한다.

《아바이, 저렇게 낮추 댔는데두 박격포루 썩떨 굴수 없다는거예요?》

《또 그 소리야? 날아가는 까마귀를 서너발도리

개로 잡아보겠다는 헛궁냥이지 뭐야. 어서 피하기나 하자구.》

마지못해 아바이를 뒤따르던 순들은 그만에야 돌부리에 걸쳐 허양 앞으로 나딩굴었다. 그 서슬에도 팔국질은 멋지 않는다.

순들은 화가 와짝 치밀어올랐다. 넘어진때문도, 팔국질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적기를 노려보았다.

뭐, 안된다구? 아무때나 도리깨질타령이야. 물론 박격포가 반항공무기는 아니다. 그러나 저렇게 낮게까지 내리꽂히는데 조준만 잘하고 올려쏜다면 왜 요정 못내겠는가? 산너머목표도 맞히는데 눈에 보이는 놈도 못 맞혀? 돌팔매질을 해도 맞히겠는데… 한발씩 올라가니 명중률은 적겠지만 대신 박격포란의 탄도곡선을 타산하여 앞지름점조절을 잘하면 될게 아닌가. 잘 내려앉지 않는다는 장마잠자리도 거미줄감은 후리채로 얼마든지 잡아낼수 있는데 올리쏘는 포탄으로 제까짓걸 못 맞혀?

어떻게든 적기를 잡아야겠기에 여가시간마다 날아가는 참새도 겨누어보며 제나름의 사격수정을 해보던 그였다.

하물며 그것보다 몇천배나 큰 비행기임에야. …

순들은 배심이 생겼다.

길고 짧은건 대박야 안다구 쏘아보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겠는가? 어디 맞서보자! 개놈의 새끼들!

적기만 보면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 그였다.

순들은 우지직 흠뻑을 짓씹었다. 적기를 겨냥한 치찌진 눈꼬리에서 불길의 황황 일었다.

순들은 전호에서 벌떡 일어나 포진지에로 달려갔다. 적기에게 발견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걸 바랐다. 누가 이기나 보자!

강심을 먹고 박격포신을 적기쪽으로 돌리는 사이에 기수를 숙인 적기가 병아리 덮치는 까마귀처럼 흥물스럽게 내리쏘이기 시작했다.

살같이 다가들며 질어지는 그림자, 공기를 찢는 아츠러운 소리, 질경질경 점을 찢는 야수의 상통마저 눈가에 비쳐든다. 그 순간 순들의 뇌리속에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

갈기를 흘날리며 달려드는 개승냥이의 살기찬 눈깔, 짹 벌린 아가리속에서 내풍기는 비릿한 피내, 등골을 오싹케 하는 으르릉소리…

한낮의 대기를 한껏 압축하며 덮쳐드는 적기가 그에게는 언젠가 깊은 산골에서 맞닥들렸던 사나운 맹수처럼 여겨졌다. 그와 함께 들리는 웨침!

《맹수에게 뒤쫓기다 죽을바엔 차라리 맞서싸우다 죽는게 더 남아다운 일이니라!—》

순들은 지금껏 런마한 동작으로 적기와 직선되게 포신각도를 맞추었다.

무작정 열어제긴 포탄상자, 박격포아구리를 향해 힘껏 밀어넣는 포탄, 움쉴 동체를 떠는 포…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려쏘는 적기를 맞받아 솟구치는 포탄, 이제 가증스러운 적기는 시뻘건 불덩어리로 될것이다.

희열에 넘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이게 웬일인가? 비행기는 그대로 육박해오고있었던것이다. 순들은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자기를 찾는 전우들도, 위험속으로 마구 뛰어드는 소대장도 그는 전혀 보지 못했다. …

2

여기저기 드러난 폭탄구멍이와 매연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길가의 나무잎새들마다에 지긋지긋게 서려들던 새벽어둠이 촛살같이 달리는 군용승용차동음에 놀라 급기야 달아빠는듯 한 이른아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군사위원 김일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잡은 전선사령부를 떠나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어느 한 박격포병중대를 찾아가시는 길이다.

그이께서는 깊은 상념에 잠기신채 밝아오는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이 땅에 매일과 같이 타래쳐오른 포연에 잔뜩 그슬린듯 한 불그죽죽한 구름장들이 서둘러 밀려온다. 그리고 가까이론 적기총탄에 중등이가 부러지고 폭격에 솟들결만 남아 아직도 실실 연기를 토하는 나무들이, 그뒤 저 멀리론 전쟁의 참화로 온통 불타버린 산등성이들이 언뜻언뜻 지나쳐버리곤 했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전란으로 사방 상처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조국산천이다. 평양을 떠나 밤길을 헤쳐오시면서 가슴아프게 새겨둔 살풍경들을 더듬어보시느라니 문득 몇시간전에 만났던 전선사령부 지휘성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평양에서 지휘하셔도 되겠는데 또다시 전선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얼굴빛이 꺼멓게 질리였던 전선사령관 김책이며 적기들이 때없이 기승을 부리는 로상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는가고 부관을 따로 불러 노기를 더치던 김일이며…

근 보름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그들이였다.

그런데 전선을 지휘하느라 어찌나 무리하였는지 얼굴들이 반쪽으로 되어버렸다. 그이께서는 형언할수 없는 런민의 정으로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으시였다. 생각같아선 다문 몇시간이라도 그들을 휴식시키고싶으시였다. 허나 급변하는 전선정황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천일대의 포위전투와 지금 한창 벌어지고있는 안동해방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작전토의로 그들과 함께 꼬바기 밤을 새우시였다. 제일 난문제로 된것은 안동을 견지하기 위한 적들의 무차별적인 공습타격이였다. 사실 안동은 적들의 군사요충

지인것만큼 그곳을 해방하면 아군연합부대들의 락 동강도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었다. 그래서 론의는 더 치렬했다.

김일은 어두운 낮빛으로 일어섰다.

《장군님, 최춘국동무도 그놈의 기총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지그시 마쳐오는 아픔을 느끼시였다. 치명상을 입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5분간만 연장시켜달라고 하면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하였다는 최춘국…

김일의 심정이 심분 리해되시였다. 항일의 혈전 만리도 함께 헤쳐왔고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견고 고락을 같이해온 막역한 전우이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으랴.

《산에서 10여년을 싸워오면서도 일없었는데… 미국놈의 비행기가… 미국놈의 비행기가…》

김일은 억이 막혀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전선형편이 좀 여유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어제 날 같이 싸우던 동지들과 함께 그를 찾아가 추모도 하고 마지막길이나마 여한없이 배려해주고싶으시였다.

《장군님, 그놈의 적기들 성화에 정말 속이 상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아니, 비행기까지는 힘들다 해도 대공화력무기만이라도 더…》

김일성동지께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는 그의 수척해진 얼굴에서 쉬이 눈길을 땔수 없으시였다. 오죽속이 타면 저러라싶으시였다.

물론 우리에게는 없는것이 너무도 많다. 대공화력무기도 비행기도… 지금 보충 같은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김일도 이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우리의 용감한 비행사들은 프로펠라식추격기로 적들이 《하늘의 요새》라고 큰소리치는 중폭격기 《B-29》와 분사식전투기들까지 썩떨구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우리의 영웅한 해병들은 불과 4척의 어뢰정으로 놈들이 소위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떠들어대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바다속에 처박고 경순양함까지 격상시킴으로써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위훈을 떨치였다.

하지만… 가슴아픈 희생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이께서는 지금도 적기들의 맹폭격속에서 한치 한치 남진의 길을 열어나가는 전선용사들의 불굴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오시였다.

적들의 《공중우세를론》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 그럼 현실적인 방도는?… 이 문제는 결코 어제오늘 그이의 뇌리에 집착된것이 아니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이 《공중우세》에 제일 큰 기대를 걸

고있다. 전쟁 초기에 벌써 미제는 590여대의 비행기를 극동공군기지에 갖추어놓고 이것만 동원하면 전쟁을 《72시간만에 결속》할수 있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그 어리석은 망상이 여지없이 깨어져버린 지금에 와서도 적들은 여전히 제공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최근 수집된 정찰자료를 분석해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적들은 7월 한달어간에만도 비행기대수를 무려 890대로 늘였다. 하여 이 땅 어딜 가나 적기들의 폭격에 재더미로 변하고있는것이다.

언뜻 서울로 나오시던 길에 부닥치셨던 피난민들의 행렬이 떠올랐다.

폭격에 쓰러진 한 로인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놓아울던 애어린 소년, 기총탄에 숨진 갓난아기를 꼭 부둥켜안고 몸부림치던 이름모를 녀인, 한낱한시에 집과 마을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헤매이던 남 녀로소들…

그들의 눈가에 비긴 사무친 원한과 두볼을 적시던 슬픔의 눈물은 우리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부라하고있지 않았던가?

전쟁이 지속될수록 적비행기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출격회수도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렇다면… 방도는 무엇인가? 김일은 우리의 비행기나 대공화력무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것을 두고 안타까와하고있다. 어깨에 걸머진 전선의 무거운 짐을 미처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얼굴에 그늘이 짙게 서려있다.

문득 백두산에서 싸울 때 박영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시였다.

언제인가 유격구병기창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연길폭탄을 받아본 김일은 파묵한 성미의 그 답지 않게 박영순을 허궁 들어 뒹고패 돌리다 땅에 쿵 내려놓으며 이렇게 격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영순동무, 이게 정말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 사람들이 자체로 만든 작탄이란 말이요?! 이젠 됐소. 이걸루 왜놈들을 팡팡 족칠수 있게 됐단 말이요!》…

그의 얼굴에 어렸던 그 환희를 이제 또다시 안겨줄수 없을가? 만약 김일의 저 근심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드는 미제와의 현대전에서 어쩔수없이 피동에 빠져있어야 한다는건데 절대로 그럴수는 없다.

오늘의 이 전쟁에서도 우리는 남의 원조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힘으로 미제의 제공권을 산산이 짓뭇개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이미전부터 생각해보시던 문제가 다시금 그이의 뇌리에 떠오르시였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 보병총으로 적기를 쫓아갔던 일이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상공을 가로짓는 날카로운 비행기동음과 함께 승용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그이께서는 사색에서 깨어나시었다. 차창너머 길옆의 그리 높지 않은 제방이 불쑥 비껴들었다. 적기를 피하여 무작정 차머리를 들이댄 모양이다.

어느새 김일이 앞차에서부터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서있다.

《장군님, 아무래도 적들이 무슨 김새를 챌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질기게 따라올리야 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목표를 놓쳐버린 적기가 앞쪽의 도로바닥에 한바탕 총탄을 퍼붓고 나서 싱겁게 사라지는 모양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어깨와 팔뚝에 팽팽히 켜진 긴장감을 여전히 풀지 못하며 김일이 재삼 말씀올렸다.

《장군님... 이제라도 돌아서주십시오. 박격포병 중대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예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서겠소? 내 걱정은 마오. 헌데 이렇게 만나서도 서로 탄 차를 타고갈 멋이야 있소? 어서 여기 올라타오.》

김일의 철색얼굴에는 바라마지않는 내심의 충동이 얼핏 스쳐지나갔다.

《장군님, 하지만 저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찢어질듯 하셨다. 그의 진정이 뜨겁게 느껴질수록 새벽녘에 목격한 일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작전모임을 끝마치신 후 그이께서는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아뢰이는 부관의 청을 마다하시고 김일의 방을 찾으시였었다. 사방 걸려오는 전화에 어지간히 지쳐버린듯 한 김일의 모습과 펄 갈려든 목소리가 그이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뭐, 비행기? 문화부련대장! 우는소리 작작하구 군인들에게 사실대로 다 말해주란 말이요. 제힘으로 고지를 탈환해야 하오. 뭐, 희생? 그럼 적들이 순순히 물러설줄 아는가?》

그새 끊기지 않고 자지럽게 따르릉거리는 다른 송수화기를 쳐든 그의 얼굴에 어이없는 표정이 실렸다.

《뭐, 박격포로 적비행기를?... 도대체 그제 제정신을 가지고 한 일이요? 제 정신들이 있는가 말이요. 이젠 정말...》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은 방에서도 삼거우처럼 뒤엉킨 전선의 화약내를 다 호흡하시는듯 한 심정이시였다.

한참만에야 전화를 마치고 그 자리에 노그라지듯 주저앉았던 김일은 그 무슨 예감을 받았는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제서야 문가에 서계

시는 김일성동지를 뵈고 벌떡 일어섰다. 《아니, 장군님께서...》

황황히 옷매무시를 바로잡는 그의 군복목짓아래에서 금시 떨어질듯 데롱거리는 구리단추... 아직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빈 단추구멍만 거듭 매만지는 김일의 모습이 또다시 그이의 가슴에 아프게 새겨지시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전쟁마당을 불안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하는 그의 마음이 저 단추에도 력력히 어려있는것이다.

이 순간 그이께서는 저 단추를 바로달아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지시었다.

김일은 피로에 짓눌려 충혈진 두눈을 습벅이며 죄송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제 일을 쓰게 못하여...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

김일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방금 전화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말씀드렸다. 그의 보고에서 무심히 스칠수 없는것은 박격포병중대의 한 전사가 저지른 사건이였다. 며칠전에 그 전사가 적기를 향해 박격포탄을 쏘았다고 한다.

그통에 진지가 로출되어 박격포가 파손된것은 물론이고 위험속에서 전사를 몸으로 덮었던 소대장은 치명상을 당한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고 전사는 보병중대로 조동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입대한지 얼마 안되고 또 의용군출신이라는것을 충분히 참작한 판대한 조치였다.

그이께서는 천근만근의 피로와 막중한 사업부담이 실려있는 김일의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시였다.

《여기 장기판이 없소?》

《예?!...》 김일은 잘못 듣지 않았는가 의심하듯 이렇게 반문하며 꺼슬꺼슬한 입술을 다물뎌 못했다.

《왜 그렇게 놀라오? 머리심을 하느넌 장기이상 없지. 시간이 좀 있는데... 한판 겨루어보지요.》

김일은 그제서야 허겁지겁 어느 구석에선가 장기판을 찾아냈다. 먼지가 뿌옇하게 올라있는 장기판이였다. 그것을 황황히 닦아내는 김일에게 그이께서는 험험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새 정말 바쁘긴 바빠던 모양이구만.》

김일은 순진한 소년마냥 얼굴을 붉히며 어줍게 미소를 지었다.

첫판은 빈번히 헛수를 쓰는 김일이때문에 몇수 써보이지 못한채 끝나버리고말았다.

《무슨 일이든 직심스레 달라붙어야 성수가 나는 법이지. 오락두 마찬가지요. 그래야 심신이 거뜬해질수 있거던. 헌데 김일동무, 이 장길 그저 오락이라고만 생각지 마오. 동무가 주물러놓아야 할 전장

이라고 가상해보란 말이요. 그럼 망탕 장기쪽을 놀리게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말쑥처럼 하시었으나 김일은 신중한 기색으로 받아들이며 장기판에 바짝 나앉았다.…」

날은 인차 밝았다. 더 지체하실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떠나신 절음이다.…」

잠시후 승용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김일이와 뭔가 긴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시였다. 하지만 예리하게 하늘을 감시하는 그의 얼굴에서 조바심과 불안, 자책과 후회의 착잡한 감정이 엇갈려 떠도는것을 보시고 나직이 숨을 내그으시였다.

전선이 가까와올수록 쿵— 쿵— 하는 포소리가 간단없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

3

박격포병중대는 사계가 탁 트인 그리 깊지 않은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가 화력진지가까이에 도착할무렵 군용밥통들을 한아름 안은채 포병들의 훈련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던 후령한 군복차림새의 한 군인이 차경적소리에 와들 놀라 저편 내물가의 음침한 곳으로 황황히 사라졌다.

포신처럼 쭉 빠진 체격에 화악내 폭 배인 중대장이 달려오다가 우뚝 멈춰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겨우 자세를 수습하며 규정대로 보고하는 중대장의 손을 마주 잡아주고나서 화력진지를 돌아보기 시작하시였다.

포병들은 전선에서 그이를 만나뵈는 놀라움과 급작스레 찾아온 기쁨으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이께서는 병사들의 건강상태며 생활조건, 애로되는 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나서 바투 다가선 갑산내기포병의 짝 버그러진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뚝살이 배졌구만. 노상 저 무거운 박격포를 메고다니느라 힘이 들겠소.》

《장군님, 그쯤한건 일없는데 성 쌓다 남은 돌처럼 1제대에서 밀려난게 더 분합니다.》

그의 말에 실농군의 푸수함이 력연히 배인 상등병이 덩달아 의견을 보태었다.

《장군님, 사실 우린 적진을 선참 도리깨질하여 보병들에게 키질감을 듬뿍 안겨주는 탓에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한데 지금은 모든게 거꾸로 된 판이니 정말 머리를 쳐들구다닐 체면이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다 알아차리시였다. 아닌게아니라 지금 포병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는 편향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었다.

《그래, 포병이라면 응당 포병구실을 해야지.

이제 자개바람 일도록 도리깨질할 때가 꼭 올거요!》

포병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 중대에 박격포로 적비행기를 쏘아잡을번 한 전사가 있다면서?…》

예상밖이였는지 갑자기 주위엔 정적이 찾아들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두들 좀자르는 태도였다.

《그가 어떤 동무요?》

그제서야 포병들은 저마끔 입을 열었다.

이름은 박순돌, 나이는 18살, 어느 비행장습격시 주변마을에서 탄원, 평상시엔 이름처럼 순후하고 말이 없는데다 혼자 있기 좋아하는 우울한 성격이지만 일단 싸움판에 들어서면 맹수마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질에 적기만 보면 무분별해지는 병사… 그들의 이야기속에서 피뜩피뜩 떠오르는 전사의 인상특징들이였다.

상등병의 이야기가 더욱 구체적이였다.

《장군님, 순돌동무에겐 때없이 딸국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때주자구 침두 놓아줘보구 또 감쪽키 우린 물이 좋다길래 그걸 얻어 먹여두 봤지만… 그때뿐이였습니다. 그러던걸 야전병원으로 실려가던 소대장동지가 귀뜸해줘서야 대수 영문을 알아차렸는데 신통히두 적기가 나타날 때마다 순돌동무의 딸국질이 시작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전사의 신상에 더욱 관심이 깊어지시였다. 더구나 전사에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저어하는 손거울이 있다는 상등병의 수수께끼같은 이야기나 한주일전엔가 한고향에서 입대하였다는 보병친구를 만난 때로부터 더욱 말수더구가 적어졌다는 갑산내기전사의 이야기는 매우 심상치 않게 여겨지였다.

《순돌전사가 어디 있소?》

포병들은 약속이나 한듯 그이께서 이미 지나오신 쪽을 바라보았다.

《아까 저기서 보았는데…》 갑산내기가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각해진 김일과 중대장을 돌아보며 재차 물으시였다.

《전사가 어떻게 이 중대에 오게 되었소?》

중대장은 지나간 일을 더듬어보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병구분대와 의 협동하에 이른새벽 불이 번쩍 나게 비행장을 불의기습하여 적기들을 일시에 하늘로 날려보낸 중대가 아침식사준비를 서두르고있던 때였다. 중대장앞에 맨 등거리만을 걸친 더벅머리 총각이 한 다리가 없는 웬 로인을 업고 나타났다. 청년의 등에서 미끄러져내린 로인은 성한 다리의

무릎을 풀썩 꺾고앉아 다짜고짜 절부터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무작정 자기 아들을 꼭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난처한 일은 로인의 진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것이였다. 청년의 애돼보이는 나이도 나이거니와 목대가 가늘고 어깨가 좁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박격포를 다루어내기 힘들것 같아서였다. 역대우같은 젊은이들도 박격포를 메고다니자면 땀동이를 뿜어야 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중대장은 비근한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땀을 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로인은 제 아들이 막심 부름군을 해도 일없으니 제발 포격을 떠나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가문의 피맺힌 한을 풀수 있다고 절절히 말했다.

청년은 병어리마냥 말 한마디 없었다. 다만 가느스름한 눈귀와 알팍한 입술에까지 처량한 울음이 배인 강렬한 하소가 그의 말없는 부락을 뿌리칠 수 없게 하였다. 어쩔수없이 중대장은 해당한 절차를 밟아 박순들을 정식 중대성원으로 받아들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길다란 풀대를 무심결에 뽑아 들고 토막토막 손톱여물썬는 김일의 군손질에 주의가 미치시였다. 김일도 우발적인 사건과 더불어 청년의 인생갈피에 그 어떤 우여곡절이 얹혀있음을 직감한 모양이였다. 사실 그때 김일은 지금껏 박순들의 문제를 등한히 여겨온 자신의 행동을 두고 못 견디게 후회하고있었다. 문득 장기를 두시면서 졸쪽을 마구 써버리는 자기에게 조용히 이르시던 그이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왔다.

《졸을 너무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칠수 있소. 때론 그 졸들이 궁성을 제압하고 폭장 만들수 있단 말이요.》

그처럼 바쁜 정황속에서도 우정 장기판에 불러주시던 그이의 사려깊은 인정이 새로운 의미로 새겨질수록 김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그 전사를 만나봅시다.》

그이의 말씀에 김일은 편득 정신을 차렸다.

4

박순들은 허둥지둥 달렸다. 밥짓던 내물가에 쭈그리고앉아 하염없이 들여다보던 거울을 미쳐 주머니속에 넣지 못했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승용차를 띄어본 그 순간부터 눈앞에 현실적으로 박두한 자기의 불운을 두고 아득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 정작 그이앞에 다달으자 《장군님!》 하고는 입술만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절부절하는 전사가 아까 승용차를 피해 무작정 달아빠던 군인임을 이내 알아보시였다.

전사는 고개를 푹 꺾고 주눅이 들어 서있었다.

《박격포로 적기를 맞받아쏘던 동무가 왜 이렇게 풀이 죽었소? 잘못은 범할수도 있는거요. 대담하게 고치면 되는거지.》

슬며시 머리를 쳐드는 전사의 눈망울에 초불이 확 타올랐다.

다정한 눈매로 박순들을 굽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전사의 손가락짚새에서 한순간 번쩍하는 반사광을 보시였다. 좁전에 아바이병사가 말하던 그 손거울이 틀림없었다. 어름어름 군복우즈머니에 찢려넣는 거울뒤면에서 사진같은것이 피땀 눈에 띄시였다.

《어디 한번 보자구.》

김일성동지께서는 쭈뼛거리는 전사에게서 거울을 받아드시였다.

해발쭉거리는 오동통한 발가숭이사내애의 사진이였다. 칼칼한 눈꼬리며 알팍한 입술이 신통히도 전사의 모습이였다.

《아들의 사진이구만.》

전사는 흠칫 몸을 떨었다. 중대장도 눈이 덩들해졌다.

《아버지를 꼭 빼물었구만. 애어머니가 기뻐했겠소. 우리 녀성들은 자식이 자기보다 아버지를 닮았을 때 더 기뻐하거던.》

박순들의 눈가에 형언키 어려운, 슬픔에 짓눌린 음영이 슬핏 비껴들었다. 손톱눈이 박힐 정도로 으스스하게 틀어쥐는 주먹과 함께 온몸에서 모진 아픔이 전율하고있음을 그이께서는 헤아려보시였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었다. 왜 그것을 터놓기 저어하는질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순돌동문 이번에 받은 책벌을 삭이기 힘들어한단지?》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어떻게 감히... 전... 전 죽을 죄를 지은 놈입니다. 전... 사실...》

《중대를 떠날수 없다고 했었던데 그건 무엇때문이요?》

《그건... 그건...》

순돌은 머뭇거리다가 결심한듯 머리를 쳐들었다.

《장군님! 사실 전 중대에 와서야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았습니다. 중대동지들은 모두 한집안식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전 그에 보답은 못

할망정... 소대장동지가 저때문에... 저때문에... 흐
흑...》

전사는 끝내 오열을 참아내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순돌의 잔등을 다독이시며 그
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중대장
으로부터 소대장의 부상 정도와 치료정형을 알아보
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나서야 말머리를 돌리시
였다.

《헌데 순돌동문 어떻게 박격포로 적기를 쏘 생
각을 다 했소? 박격포의 사명과 제원에 대해서 모
르진 않았을텐데...》

병사는 입술을 감쳐물며 동의를 바라듯 중대장을
열쫓 건너다보았다.

《재지 말고 어서 말하오.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장군님...》

순돌은 갑자기 주먹을 틀어쥐며 한발 나섰다.

《그놈들이 우릴 쏴보고 막 갇잡니다. 전 참을수
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추 날아드는데 사격
각도랑 잘 타산하면 박격포로도 얼마든지 적기를
잡을것만 같아서...》

중대장의 낯빛이 하얘지자 순돌의 말꼬리는 잦
아들고말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전사의 말속에서 해소 못한
아쉬움과 분노를 충분히 느끼시었다.

《참을수가 없었다?... 웬소, 우릴 갇보는데 가
만있으면 안되지. 이제 보니 이 동무는 체소하지
만 대답하고 용감한데가 있소. 군사위원동무, 우리
가 산에서 싸울 때 일본놈비행기를 보총으로 쏘아
잡은적도 있었지?》

《예, 그러나 그땐 분사식비행기가 아니어서 좀
잡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당시 보총으로 적비행기를 쏘떨굴수 있
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소. 오직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각오가 그런 기적을 낳게 했지.》

그이께서는 다시금 화제를 돌리시었다.

《순돌동무가 여기 박격포병중대로 오게 되는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가본데 그걸 좀 들려줄수 있
을가?》

《장군님!...》

순돌은 뜨거움에 휩싸여 목멘 소리를 냈다.

그이께서는 순돌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시며 파아
란 잔디밭위에 전사와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김일은 웅어리진 속을 터놓기 시작하는 박순돌의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마음의 창가에 두텁게 얼어붙었던 슬픔의 성에
장, 그래서 여적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아
픔의 성에장이 지금 따뜻한 인정의 봄별에 서서히
녹아내리고있는것이다....

예로부터 팔자도망은 못한다더니 해방이 되었지
만 땅을 두지는 소작농의 신세인 박순돌의 가정에
드리운 비운의 그림자는 여전히 가시여질줄 몰랐
다. 오히려 더해졌다고 해야 할것이다. 고향의 기
름진 전야가 그대로 미국놈들의 군용비행장터로 되
여버렸던것이다. 하루아침에 땅을 떼우고 집마저
잃은 마을주민들은 강제철거당한채 비행장건설에
까지 동원되었다.

사람들은 불비한 작업조건과 밤낮으로 몰리우는
고된 노동속에 무리로 쓰러졌다. 순돌의 아버지도
강도공사를 하다가 불구로 되었다. 앞뒤집에서 오
랍누이로 정을 두러이하면서 자란 한 처녀의 홀아
버지마저 그 공사장에서 락석에 깔려 목숨을 잃었
다. 랑집 부모들사이의 두터운 의리, 자식들이 태
여나자부터 약조된 혼인, 더구나 의지가치할데 없
는 가공한 처녀의 처지 등은 두 청춘의 연분을 때
이르게 맺어주었다.

소박한 성례를 치른 그 이듬해 이들의 가정에
차돌같은 아들이 태어났다. 가난과 슬픔의 거
미줄이 칭칭 서린 오막살이집에서는 간간이 캐득
거리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곤 했다. 가정은
화목했다. 허나 재난은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법
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두달전, 그날은 순돌의 생일이
였다. 안해는 이른아침 이웃집처녀와 함께 산에 올
라 순돌이 좋아하는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그런
데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제공중비행기들이 이들
을 발견하고 사정없이 기총탄을 퍼부었다. 땀을 들
이던차에 손거울을 꺼내들고 머리를 비다듬어넘기
다가 흉탄에 맞은듯 그것을 피젖은 손에 꼭 움켜쥔
채 쓰러진 안해, 사무친 원한을 안고 미쳐 눈을 감
지 못한 그의 시신앞에서 순돌은 얼흔이 빠져 비칠
거리였다. 어질고 랑순하기만 한 안해에게 무슨 죄
가 있다고 못집승처럼 쏘아죽인단 말인가.

그는 안해의 유물인 손거울을 멍하니 들여다보
았다. 앞에선 원썩을 갇아달라고 피타게 절규하는
듯 한 사랑하는 안해, 뒤에선 할머니의 젖품을 쥐
여뜯으며 피울음을 터치는 아들에, 별안간 그 울음
소리마저 집어삼키며 요란한 폭음과 함께 지나가
는 적비행기들...

순돌은 하늘을 란도질하는 가증스런 적기의 동체
가 그대로 거울에 비껴든듯 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나의 아버지를 불구로 만들고 내 안해의 목숨마저
앗아간 악착한 양키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산산이
깃뭇개버린 식인종무리들!

정녕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국놈들을 복수
할 힘이 내겐 없단 말인가.

손가락뼈들이 으드득소리가 나도록 손거울을 파
악 틀어쥐는 그 순간 순돌은 갑자기 역장이 쏟아

지는듯 한 심한 구토감을 느끼며 허리를 꼬부린채 다급히 숨을 몰아쉬었다. 팔국질은 이때부터 시작 된 것이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산에서 내려온 그는 집에 들어 서기 바쁘게 식칼을 솥돌에 갈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르륵... 칼가는 소리가 그에게는 복수를 부르는 안해의 부르짖음처럼 들려왔다.

복수하리라! 기어이... 기어이...

그는 식칼을 품에 넣고다니며 기회만을 노렸다.

그러던 어느날 환절기때마다 더해지는 아버지의 병치료에 쓰일 약초를 뜯으러 인가에서 수십리 떨어진 심산오지를 찾아갔던 박순돌은 소문으로만 들어온 포악한 개승냥이와 급작스레 맞닥뜨리게 되었다. 길길이 날뛰는 맹수의 기상은 대번에 그의 사지를 가드라뜨렸다. 순돌은 냇을 잃고 달아빠기 시작했다. 허나 바람처럼 치닫는 승냥이앞에서는 토끼뎨를 면할수가 없었다. 당장에 날카로운 송곳이가 먹을 물어뜯으려는 위기일탈의 순간 《땅!》하는 야무진 총소리가 귀청에 들이박혔다. 동시에 순돌은 송아지만 한 맹수에 깔린채 의식을 잃고말았다...

한참만에야 그는 자기를 구원한 낯선 사람을 가려보았다. 심산산골에서 맹수잡이를 업으로 살아간다는 몸집이 단단한 외팔이사냥군이였다. 그런 불편한 몸으로 자기를 구원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순돌의 피춤에서 뿜히워져 나뉘는 식칼을 찾아 넘겨주며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이런게 있었으면 피값을 할 생각이라두 했어야지. 내 사냥군생활 수십년에 깨달은게 있다면 그건 맹수에게 뒤쫓겨 살아난 사람 얼마 없고 맞서싸우다 죽은 사람 별반 없다는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 두 정신만 똑바로 차리랬다는 말두 있지 않느냐? 맹수에게 뒤쫓겨 죽을바엔 차라리 맞서싸우다 죽는게 더 낫아다운 일이느니라!...》

짧지 않은 인생의 교훈이 함축되어있는 사냥군의 말이 그의 심장에 준 여운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장군님, 전 아직 안해의 원썬두 갚지 못한 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고향친구로부터 저의 온 가족이... 미국놈비행기폭격에...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전...》

치솟는 격분으로 후들후들 떠는 그의 온몸이 채 맺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을 압박하는듯 한 빠근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그를 위로해줄 말조차 고르기 힘드시여 추운한 눈길로 전사를 바라보시였다.

허나 그의 눈가엔 눈물이 없었다. 슬픔의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모든것이 석연해지시였다.

압제의 사슬에 칭칭 묶이워 인간다운 모든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허나 그도 자주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서리서리 영킨 피맺힌 원한을 끝까지 결산 하려는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는것이 다. 이것이 바로 팔라에 팔려온 미제고용병들과 질적으로 다른 우리 인민의 정신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적을 타승하자면 적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한다.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며 허장성세하는 미제, 제공권을 운운하며 오만무례하게 낮추 드는 여기에 적들의 약점이 있지 않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껏 무르익혀오시던 사색이 마침내 하나의 종결점으로 명쾌하게 매듭지어짐을 느끼시였다.

원썬 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분노, 적기들의 무분별한 만행에 치를 떨며 결사전에 떨쳐나선 군인들의 증오... 이제 이 정신이 더 높이 발양되도록 옹게 이끌어준다면 그 힘은 백배로 강해질것이다.

이러한 정신력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어디선가 짙은 짙레꽃향기가 풍겨온다. 내물가 저편의 어우러진 덩굴우에 연분홍색의 고운 꽃들이 무덕무덕 피여있다. 아무리 전쟁이 참혹하다 할지라도 자연의 역센 저 활기와 아름다움까지는 불태워버릴수 없는것이다.

취할듯 한 향기를 폐장깊이 들이키시며 심신을 가다듬으시던 그이께서는 무엇때문인지 몹시 바재이는 중대장의 속을 넘겨짚으시였다.

《무슨 할 말이 있소?》

《장군님, 제가 순돌동무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두 책벌은 제가 받구... 대신 그를 중대에 그냥 있게 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을 돌아보시였다.

《동무 생각엔 어떻소?》

《장군님, 모든게 다 제 불찰입니다...》

그이께서는 심각한 모태김으로 타끓는 김일의 눈빛에서 모든것을 읽으시였다.

가까이에서 도란도란 물소리가 들려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어서시여 내물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김일동무,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지. 그 무엇에도 짓밟히지 않고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그 속성, 그제 없으면 짐승과 다를바가 뭇겠소. 하지만 그 자존심도 제힘을 믿을 때 더 커지는거요.》

그이께서는 저 멀리로 뚼뚼히 뻗어나간 산발들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어쩐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연길폭탄을 만

들던 일이 생각나누만. 그때 우리에겐 작탄을 만들어본 경험도, 그걸 만드는데 쓰일 공구나 재료도 없었지. 믿을건 오직 자기 손밖에 없었거던. 그래서 우린 자기 힘을 믿고 풀무질을 하고 외양간바닥을 파내고 무쇠가마를 깨서 끝내 연길폭탄을 만들어냈소.»

그이의 눈앞에는 연길폭탄이 선히 어려왔다.

보기에는 너무도 수수하기 그지없는 작탄이었지만 거기에는 조선혁명을 끝까지 제힘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가 재워져있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부닥친 난관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나가려는 백철불굴의 정신이 다져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과 함께 내물가에 이르시었다. 물바래 텅기는 개울의 억센 흐름이 과거의 추억을 날라왔다.

김일은 그이의 말씀에서 어제날의 자기를 찾아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젊고 열정과 기백, 자신심으로 충만되어있던 모습, 지금과 대조되는 생신하고 활력에 넘친 모습이였다.

찰나 전신을 휩쓰는 아픔이 등골을 찌릿 스쳐지났다.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이른것인가?

김일은 전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의 자기 사업을 랑정히 돌이켜보았다.

비행기, 탱크, 대포... 언제부터 내 머리속에 현대적인 무기가 없이는 싸움하기 힘들다는 패배주의 사상이 깃들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되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처하던 이 김일이 전쟁의 승패를 무장장비가 많고 적은가 하는 산수적인 계산으로 대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니 나의 눈에는 순돌전사와 같이 미제와 피의 결산을 하려는 그런 병사들이 무심히 보일수밖에...

김일은 잠시나마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해야 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채 어쩔수없이 군사실무에 빠져버린 자신의 무능이 혐오스러웠다.

《난 오늘 순돌전사를 보면서 자기자신을 의식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걸 다시한번 절감하였소. 이 힘을 옹게 조직동원한다면 그까짓 적들의 〈항공우세〉가 뭐겠소? 이제 우리 병사들은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기적을 꼭 창조해내고야말거요. 참, 김일동문 반항공무기이야기를 했었지?》

《예...》 김일은 열결에 대답올렸다.

《보내줍시다. 그것도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김일은 신심과 락관에 넘친 그이의 말씀이 너무도 확정적이어서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그럼 최고사령부부수중에 그런 예비가 있다는걸가?

《각 부대들에 우선 적비행기를 저격무기로 쏘떨구어볼데 대한 지시를 하달해야겠소.》

김일은 선뜻 대답을 못 드렸다. 무엇인가 깨도되는 순간 시야가 확 트이는듯 한 감정이 그들먹이차올라 흥벽을 두드렸다.

의아해하시는 그이의 시선을 받고서야 김일은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알았습니다!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다가 박순돌에게 눈길을 보내시였다.

《저 동무를 데리고 떠납시다. 식사라도 한끼 같이 해야 아픈 상처가 풀리고 내 마음도 좀 편해질것 같소.》

김일은 후더운것을 삼키며 두눈을 습벅거렸다.

5

밤새도록 과당거리는 포소리, 언덕너머 문경고개 쪽에서 우릉우릉 땅을 물고뜯는 무한케도소리 등은 이따금씩 인적드문 숲과 전락도로상공에서 공기를 헤가르며 날치는 적기편대의 폭음과 뒤섞여 전선이 눈앞에 있음을 시시각각으로 깨닫게 하여주고있었다. 매캐한 화약냄새가 안개마냥 골짜기들을 누벼지나 최전방 수안보의 상공에도 떠돌았다.

밤사이 서울로부터 이곳으로 이동전개된 전선사령부의 크지 않은 작전실에서는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일군 및 전선연합부대 지휘관, 문화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금방 화선에서 싸움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이 꺼명게 탄 얼굴과 땀에 절고 파편에 찢어진 군복에서 초연내를 물씬 풍기며 회의장에 들어와서인지 분위기를 더 엄숙하게 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부대들이 최고사령부의 계획대로 공격속도를 보장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현대전의 요구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교범과 전투경험에 매달리는 문제 등 반공격으로 넘어간 지난 1개월간 전쟁행정에서 나타난 편향들이 심각하게 분석비판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잘못된 견해는 바로잡아주기도 하시고 모자라는 지혜는 계발시켜주기도 하시면서 회의의 흐름이 줄기차게 제궤으로 흐르도록 하시였다.

그런 과정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전법들을 널리 활용하여 도처에서 적들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투방안들이 나오게 되였다.

그러나 포병을 옹게 리용할데 대해서나 적의 《공중우세》에 대처할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박격포병중대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는 위력한 타격수단으로서 포병을 잘 리용하여야 적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고 보병의 공격속도를 높일수 있으며 당면하게는 락동강도대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룰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포병리용에서 범하고있는 결함과 그 극복방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실 때마다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점차 화색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적들의 〈공중우세〉를 어떻게 타파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장내는 삼시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술한 지휘관들속에서도 류달리 팔채를 뿜는 시선을 느끼시였다. 김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부관을 찾으시였다. 그가 나가자 인차 군복을 풀어 가뜩하게 차려입은,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툭툭치 않은 강단이 내뿜기는 한 전사가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전사를 자신의 결으로 부르시였다.

《동무들도 이미 들어 알고있겠지만 이 전사가 며칠전 화력진지로 날아든 적비행기와 박격포로 맞섰던 박순돌동무입니다.》

아연해진 눈길들이 그에게로 쏠려졌다.

《그럼 순돌동무!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문 적기를 쏠 때 무슨 생각을 했소?》

순돌은 고개를 들었다. 이런 자리에 처음 나서보는지라 몸자세는 유연치 못했으나 용케도 기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씌어말했다.

《전 사실 그때... 몽둥이든 돌맹이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으로든지 적기를 막 파리잡듯 하고싶었습니다.》

《당장 머리로 적기가 내려쨌는데도 무섭지 않았소?》

《맞아죽기보다는 피값이라도 해보자구... 그러니 조금두 무섭지 않았습시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드시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순돌의 손을 잡아 높이 흔들어보이시였다.

《보시오, 이게 우리 병사들의 배심이란 말이요!》

그이께서는 지금 전선에서 발휘되고있는 군인들의 무비의 용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곤나서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왜 그렇게 싸워야 하는가는 여기 있는 박순돌 전사의 경우를 놓고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박순돌의 가정이 당한 가슴 찢기는 참사에 대한 그이의 말씀은 지휘관들모두의 심장속에 증오와 분노의 피를 설설 끓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모두가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수난이기도

했던것이다.

《더위먹은 소 달만 보아도 혈떡인다는 속담이 있소. 적들의 〈공중우세〉에 잔뜩 위축되어 남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김일은 흠칫하였다. 바로 자기가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동무를 보시오! 비록 박격포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기와 싸워보겠는가를 제나름대로 연구했던 말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그의 이런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일은 모닥불을 들썩듯 뒤덜미가 후끈해왔다. 전사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자체력이 부족한 그의 즉흥적인 행동을 무모한 객기로 보았던 자기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그 돌발적인 행동에서 소중한 짝을 가려내시며 내세워주시는것이다.

나는 과연 언제가야 그이의 전사로서 제구실을 할것인가! 빨찌산시절 조선혁명을 제힘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뼈에 절도록 새긴 내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으니 장군님께서 이 멀고먼 최전연에까지 나오시지 않았는가? 그리고도 뭐 장군님의 안녕을 바란다고? 위험한 전선길에 더는 나오지 마시라고? 제 말은 일도 푹푹히 못하면서 이런 말이나 앞세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김일은 신념의 대가 굳세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머리속에 잡균이 침습하게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선뜻 일어나 자기의 잘못을 송두리채 더놓고싶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기의 부족점을 찾고 고치도록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어버이풍모에 가슴이 달아올라 눈곱이 찌릿해왔다.

김일은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는 일부 지휘관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저들이 저렇게 된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나는 전권대표이다. 여기 전선의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지도통제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는 전선군사위원이다. 내 머리속의 패배주의사상이 그대로 저들의 마음을 쪼물게 하지 않았다고 어이 말할수 있으랴!

김일은 끝없는 회오속에 그이를 우러르며 귀를 기울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제힘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고계시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노예로 살수 없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사람들이요. 우리 인민은 누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하

고있소. 이제 적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이 그 어떤 신식무기가 아니라 단결된 인민의 힘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먹을 들어 힘있게 흔드셨다.

《나는 바로 그러한 정신력을 총대마다에 재우고 적기와 싸우자는거요. 적기와 판가리싸움에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보총을 비롯한 각종 저격무기들까지 다 동원시키잔 말이요.

온 나라에 조밀한 화력망을 펼쳐놓고 적비행기가 내리쬐질 때에도 쏘고 올라갈 때에도 쏘며 개별적으로도 쏘고 집단적으로도 쏘며 전선에서도 쏘고 후방에서도 쏘면 우리 조국강토가 통채로 불을 뿜는 땅이 될거란 말이요. 그러면 제놈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날뛸수 있겠소? 대신 우리는 앞은자리에서 무제한한 대공화력무기를 공짜로 얻는거나 간단 말이요!》

박수가 터졌다. 모두가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힘껏 쳤다.

김일은 심장이 터져나갈듯 한 희열과 격동으로 숨이 껍 막혀왔다. 바로 이것이다! 적들의 《항공우세》를 짓부셔버릴 우리 식의 주체전법이 바로 이것이다!

김일은 끝없는 경모와 매혹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고 또 우러렸다.

《동무들! 이제 반항공투쟁은 료원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일어번질거요. 벌써 문경고개에서 한병사가 보총으로 적기를 쏘떨구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소. 이젠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옳다는걸 더욱 뚜렷이 증명해주고있소.

순돌전사가 이자 자기 체험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사나운 개승냥이일지라도 총탄 한발이면 알아보기마련이요. 우리가 맞다든 원쑤는 사실 승냥이보다 더 악착한 놈들이요. 이런 포악한 놈들이 비행기까지 가졌다고 오만스레 날치고있소. 그러니 적비행기를 모조리 사냥해치웁시다. 자기가 메고있는 총을 가지고 너도나도 맹수사냥꾼이 되잔 말이요!》

사나이들의 호걸웃음이 통쾌하게 터져올랐다.

적비행기를 사냥하다니?...

김일은 난생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전혀 귀설지도 않았고 가슴은 마냥 시원스럽기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었다.

《먼저 전선사령부에서 시범적으로 몇개조를 조직해서 적기와 싸워보게 한 다음 인차 전군에 일반화하도록 합시다. 어땡소? 동무들!》

《좋습니다!》

일시에 터진 화답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또다시

회의장을 들었다놓았다.

김일은 저도 모르게 솟구친 눈물이 두볼을 적시고있는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장군님, 저를 꼭... 저를 꼭 비행기와 싸우는 그 조에 보내주십시오.》

두번다시 없을 기회를 놓칠가보아선지 순돌이 헤덤비며 터치는 간절한 청원의 목소리였다.

《그래, 동무는 능히 잘 싸울수 있소. 이제 전선사령부에서 조직하는 그 첫조에 망라되어 소원을 한껏 풀어보오. 아마 적기를 서너대쯤 쏘떨구면 그 딸국질증세도 푹 떨어질거요!》

오란한 폭소가 일시에 터져올랐다.

부지불식간에 김일은 떠들썩한 회의장분위기속에서도 창가로 새어드는 예리하면서도 청청한 매미의 울음소리를 가려들었다. 포성을 짓누르며 더욱 구성지게 울려퍼지는 매미소리!

이전에는 전혀 느껴볼새도 없었던것이였다.

김일은 저도 모르게 군복목깃쪽의 구리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이 닿아있는 단추였다. 문득 귀전에 들려오는 여느때없이 힘차게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영원히 탈선을 모를 혁명가의 고귀한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후에 이 전법을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이라고 이름지으셨었다.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전쟁종합전과자료속에는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있다.

《...전쟁기간 격상, 격추, 로획된 비행기대수 1만 2천 224대

그중 비행기사냥군조원들이 쏘떨군 비행기대수

1951년 1 754대

1952년 1 219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합 3 673대...》

결국 격추된 비행기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수천대의 적비행기들은 순전히 저격무기로 쏘떨군것이거나,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의 나날속에 공화국영웅으로 성장한 박순돌은 위대한 수령의 평도를 받는 인민이 있어 이 땅은 침략자들에게 언제나 정의의 불을 뿜는 땅으로 남아있을것이라는 진리를 후대들에게 넘으로 깊이 새겨준 수많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중의 평범한 한사람이였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는것은 형상수단과 수법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것과도 관련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인간생활을 작가나 제3의 인물의 시점에서 그리기도 하고 수령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리기도 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일수록 수령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묘사가 더욱 자유분방하게 펼쳐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어야 한다.》

산촌에 꽃핀 권설

김 정 삼

산촌의 저물녘

단풍이 물드는 언덕길에서 우리 수령님
학교에서 돌아오던 산골마을아이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었네

바람결도 흐름을 멈추었는가
지저귀던 새들도 귀기울이는듯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석양은 불타는데
헤여지기 아쉬워 옷자락을 꼭 잡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는 수령님
—해가 지기 전에 이 애들과 사진을 찍읍시다

너무 좋아 손벽치며 기뻐하는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풀밭에 앉으신 수령님
자신곁에 오르고 싱깁이하는 아이들을
손잡아 앉혀주시고 또 세워도 주시는데

사진기 들고 초점을 맞추던
일군의 얼굴에 어리는 난처한 기색
서른넘는 아이들 모두 담자니
우리 수령님을 사진의 중심에 모실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헤아려주신 수령님
웃으시며 가르쳐주셨네
—초점을 내가 아니라
가운데줄에 선 저 학생에게 맞추시오
나라의 왕들인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도록 찍어야 하오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어쩔줄 몰라하는 일군에게
어서 찍으라고
거듭거듭 이르는 자애넘친 음성이어!

찰칵!
아, 날저무는 두메산촌에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리는가
태양의 품에 안긴 산촌소년들
온 세상 부러웁게 꽃웃음 날리는
행복의 화폭 눈물겨이 새겨졌네

사진의 한가운데 아이들을 세우시고
더없는 기쁨에 환한 미소 지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
인민의 심장속 한복판에
영원히 영원히 새겨졌네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는 그 사랑
오늘도 파사로운 해빛으로
이 나라 명당자리마다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 학교마다 넘치고
특별비행기와 특별렬차에 앉아
평양으로 달려오며 원수님노래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에 밝게 어려 빛나거니

은혜로운 세월에 실리어
대를 이어 안겨지는 그 은정에 받들려
산촌에 꽃핀 그날의 전설은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 되어
사회주의 이 강산에 끝없이 펼쳐지네

삼천리를 비치는 태양은 영원하다

리 성

지난해 《조선문학》 제11, 12호에 실린 단편소설 《해빛삼천리》(허문길 작)는 매혹적인 수령형상창조로 수많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높은 사상예술적감화력으로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작품은 위대한 생애의 1990년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 해외동포를 대해갈은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감명깊은 력사적화폭을 담고있다.

한편의 단편소설이 창작되자마자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위인상의 창조

《해빛삼천리》!

볼러볼수록 많은 의미를 새겨보게 하는 말이다.

작품은 첫시작부터 제목을 통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사로잡으며 매혹적인 형상을 펼쳐고있다.

독자들은 처음 제목에 접하면서 그 무엇인가 거창하고 바다와 같은 심원한 진리와 고결한 뜻이 예상되면서도 딱히 그것을 명료하게 그려내기 어려워 작품의 세계에 저도 모르게 끌려들게 된다.

소설의 제목이 안고있는 사상예술적감화력은 한마디로 작품의 주제사상이 뚜렷이 함축되어있는것이다.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자고 하는 주제사상은 한마디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도량과 민족애이다. 다시말하여 아버지수령님은 온 겨레와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이다.

이렇듯 거대한 사상이 《해빛삼천리》라는 다섯글자에 함축되어있다.

은혜로운 해빛이 따스히 비치는 삼천리조국강산은 그대로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며 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 사상이 제목에 상징적으로 함축되어있다.

소설에서는 다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새로운 위인상을 숭고한 세계에서 펼쳐보이고있다.

새로운 성격의 발견은 소설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수령의 위인상에 대한 새로운 파악이 더없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자고 하는 새로운 위인상은 한마디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도량과 거대한 포용력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지만 단편소설 《해빛삼천리》에서는 보다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하고있다.

인생말년에야 조국에 찾아온 해외동포인 최금호가 수령님을 뵈옵고 《지난 50년간 돈난가리를 쌓아놓고는 제가 태를 묻고 제 혈분들이 눈이 시퍼래 사는 고향땅에는 한품 전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는 큰 기업을 꾸려놓은것》을 속죄하면서 《…남쪽의 통치자들은 서방사람들과 짝자공이를 하면서 공화국〈제재〉에 앞장서서 날뛰니다. 민족의 얼을 팔아먹는 그 험오스러운 놈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징벌의 철추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이 큰 죄는 반드시 씻어야 하겠다는 결심입니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는 그에게 《최금호선생, 난 방금 최선생이 내놓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지할수 없습니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형상은 최금호뿐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커다란 의혹을 가져다준다. 하다면 수령님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작품의 절정에서 형상된 수령님의 말씀에서 찾을수 있다.

《…선생이 세운 기업이 남조선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절대로 죄로 타매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선생의 덕을 남조선사람들이 보고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따라서 그걸 죄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벌써 민족적인 립장, 조국애라는 우리가 의거해야 할 근본정신에서 뒤걸음치는것입니다.》

《남녘도 내 땅, 내 나라, 한조상의 땅입니다. 남녘의 동포들도 나의 혈육, 나의 겨레입니다. 우

리는 백두산시절부터 절대로 나라의 반쪽을 위하여 풍찬로숙하며 혈투를 벌려온게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난 더구나 그 땅에 물이 나도, 가물이 들어도 쉬이 잠들수 없지요. 일부 못난 사람들이 행실어지러운짓을 해도 분노에 앞서 가슴이 아프군 합니다. 최선생, 우리 속을 크게 가집시다. 겨레와 조국을 통채로 안고살아갑시다!...》

겨레와 조국을 통채로!

바깥도적놈과 한짝이 되어 제 식솔의 가마까지 뺏아내자고 덤비는 어지러운짓을 해도 분노에 앞서 가슴아파하시고 그로 인하여 불행해질 남녘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도량과 거대한 포용력의 형상, 바로 이것이 지난 작품들과 다른 이 작품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공이며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다.

소설은 다음으로 수령형상소설의 고유한 생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작품은 우선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작가는 작품의 기본주제에 초점을 두면서도 한 해외동포와의 사업뿐만아니라 조국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선을 잘 보여줄수 있도록 생활을 펼쳐고있다. 작품의 첫시작에 시험포전에서 콩농사를 지으시며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장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는 내용, 부판이 알려드리는 오전일정(9시부터 10시까지 인민무력부장 접견,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정무원총리,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소년궁전 어린이들의 서예작품지도) 등의 세부들은 다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책임지신 어버이수령님의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생애의 한초한초는 곧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한초한초인것이다.

최금호와의 관계문제만 보더라도 한 평범한 해외동포와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정신과 관련되는 전민족적인 문제로 심화발전시키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격이 높은 인물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대인물인 최금호는 민족분렬의 수난의 산아로서 본의아니게 조국과 민족을 등지였지만 끝내는 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기교야마는 인물들의 대표자이다.

고령임에도 쇠로 부어낸듯 다부지고 단단한 몸매, 석고를 깎아만든듯싶은 턱, 그런가 하면 고집스럽게 솟아오른 코마루, 옳다고 인정된다면, 정의라고 믿는다면 머리가 스무쪼각 나도 망설임이

없이 결연히 자리를 차고 돌진하는 억셈이 퍼덕거린다.

이런 그였기에 주재국을 떠나는 마지막순간까지 길을 막아나서는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향집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만 있겠는가, 네놈들 조선사람 숯보지 말아, 이 최금호 간다면 가는 사람이다, 김장군 뵈오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키라고 추상같이 선언할수 있었다.

이처럼 격이 높은 최금호도 미처 깨달을수도 도달할수도 없는 민족사랑의 경지에 서게시며 곡절많은 운명을 품에 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대성인, 북남민족이 길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의 어버이이신것이다.

해외교포들과의 사업을 말아보는 정용진부장 역시 박식하고 언변이 좋고 필력도 뛰어나며 외교에도 다재다능한 일군으로 형상되어있다.

정용진의 형상을 통하여 화전을 뚜지며 살아온 두메산골내기를 품들여 키우시어 이렇듯 훌륭하게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오고 이런 그도 미처 깨닫지 못한 최금호의 마음속 진정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게 되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상대인물의 격을 높이 형상하는것이 가지는 사상에술적효과는 참으로 크다.

매혹적인 구성조직

단편소설 《해빛삼천리》는 구성조직의 측면에서도 매혹적인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합리적인 구성조직을 떠난 작품의 성공이란 있을수 없다.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인물관계를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철저히 립각하여 명백하게 조직하고있다.

작품에는 불필요한 인물이 한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우선 정용진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전 소련에 나가있던 전재교아로 설정함으로써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최금호의 감정의 변화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홍근풍과 최금호의 손자애들의 설정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과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도록 설정된 인물이다.

그와 동시에 어버이수령님의 민족에 대한 위대한 도량과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의 기본주제해명에서 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몫을 맡고있다. 최금호가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민족성원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에 기초하고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가의 신념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백전백승한다는 확신과 수령을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고결한 충정에 기초할 때만이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혁명의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 수령을 끝까지 믿고 따

를수 있으며 수령을 옹호하기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혁명의 수령을 끝까지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수령을 끝까지 따른다는것은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굽히지 않는 참대처럼 평온한 나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언제나 자기 수령만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간다는것을 말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을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행복한 래일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보여주기 위하여 설정된것과 같은 리치이다.

작품에서는 다음으로 독자들과 등장인물들의 예상을 끊임없이 뒤집는 줄거리조직, 감정조직으로 사상에술적품격을 높이고있다.

형상전반에서 연속적인 뒤집기수법을 활용하여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우선 첫번째 뒤집기는 온 세상을 들었다놓으며 조국에 돌아온 최금호가 갑자기 체류기일을 앞당겨 수령님도 뵈옵지 않고 황급히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부닥치면서 정용진 당사자는 말할것도 없고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의혹에 잠기게 되시며 그 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기대속에 독자들은 작품의 다음호를 성급히 펼치게 된다.

두번째 뒤집기는 남조선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겠다는 최금호의 결심을 부정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이다.

최금호의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한순간에 부정하시는 근엄하신 수령님의 형상을 뵈옵는 순간 최금호와 독자들은 커다란 흥분을 안고 작품의 절정으로 향하게 된다.

독자들과 관중들의 예상을 순간에 뒤집는 작가의 구성조직의 묘미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작품에서는 다음으로 다양한 세부형상으로 짜인

립체적구성을 조직하고있다.

소설에는 세부 역시 단 하나도 불필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레컨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콩밭세부도 수령형상생리구현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작품마감에 최금호의 시점에 굴절되어 보다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어 작품의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수령님과 최금호의 나이를 동갑이로 설정한것 역시 따뜻한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스스로없이 부르시는 《동갑이》라는 부름속에서 독자들은 그이의 한없이 겸허하신 풍모를 엿보게 되고 《이제야 겨우 수령님의 품에 안긴 한살잡이》와의 강한 대조를 이루며 최금호의 인생전환의 격조높은 노래를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소설은 이밖에도 심오한 조국애, 민족애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세계, 미의 세계를 개척하여 작품의 지성도를 잘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단편소설 《해빛삼천리》는 새롭고 무게있는 형상과제와 그에 대한 훌륭한 예술적해명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수령님의 수첩

김 선 화

떠날수 없어라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열정에 넘쳐
한손에 자그마한 수첩을 드시고
황철의 로동계급과 담화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앞에서

어려있으리 저 수첩의 갈피갈피에
우리 식 용해법의 새 역사를 펼치시며
손수 계산해보시고 무르익혀오신
키낮은 용광로 기초설계수자들이
이른새벽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며
명철하게 찾아내여 깨우쳐주신
강철생산정상화의 묘책과 방도들이

어려있으리
황철은 우리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그 생명선을 지켜선 용해공 한사람한사람은
더없이 귀중한 보배라고 하시며
자상히 따져보시고 거듭거듭 당부하시던
쇠물보다 뜨거운 친아버이의 음성이

어려있으리
자그마한 수첩의 폐지와 폐지에
살림집 옷목 아래목 골고루 짚어보시며
늘어나는 인민의 살림살이
알뜰히 꽃피는 생활이 자신의 기쁨의 전부이신듯
만면에 환히 지으시던 해빛같은 미소가
로동자합숙의 이불이며 베개까지에도
따스한 은정을 부어주시던 그 미소가

또박또박 적혀있으리
용해공 압연공 소성공 가열공...
—불을 다루는 로동자들의 생활비는 더 많이!...
—간장 된장 닭알값은 더 낮게!...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세우실수 있는
이민위천의 계산원칙!
그 원칙에 따라 일일이 계산종합된
천값 옷값 신발값
황철로동자 매 가정의 생활비며 부식물소비정형
어찌 철의 도시 내 고향뿐이라

금빛호화장정수첩은 아니어도
소박하고 친근하고 눈에 익은 저 수첩엔
바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자자구구 새겨져있
거늘
어찌 무심히 발걸음 옮길수 있으랴
7월 8일 이날이 오면 더더욱
그 사랑 가슴에 마쳐와 정녕 떠날수 없어
삼가 뜨겁게 가슴에 안아보는 아, 수령님수첩

인민들과 언제나 무릎을 마주하시고
인민들의 평범한 말도 스스럼없이 들어주시며
인민들의 마음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면서
한자한자 적어넣으시고 밀줄도 그으시고
한장한장 번지시며 접어도 놓으시며
한평생 보풀이 일도록 가지고다니신

아,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크나큰
인민사랑 인민중심 인민복무의 대백과전서
우리 수령님의 수첩이어

가 사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윤 희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희한하게 솟은
로동자들의 궁전이 우리 공장 합숙입니다
처녀들 나이들면 시집을 간다지만
한생을 여기서 살고싶은 사랑의 요람입니다
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어주신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공원같은 공장구내에 황홀하게 솟은
로동자들의 호텔이 우리 공장 합숙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너무도 부러워

딸자식들 방직공으로 키우고싶답니다
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어주신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창가마다 노래소리 그칠줄 모르고
꿈속에서도 인민의 옷감 짜고짜는 집
이 사랑 이 은혜 천필에 새겨가며
한생을 방직공의 영에 빛내가렵니다
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어주신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백두산에 올랐다

김 성 조

력사의 갈피에 남아
후세에 전해만지는
그런 사진이 아니구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답사행군대원들과 함께 찍으신
한상의 사진

경건한 마음 진정할길 없어
내 다시 송엄히 우러르니
눈보라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쳐가던
빨찌산대오가 삼지연기슭에 잠시 멈추어선듯
항일의 령장 김대장을 다시 뵈옵는듯

빨찌산세월은 저 멀리 흘러갔어도
백두의 행군길
진달래 웃는 삼지연의 그 물결이
이리도 뜨겁게 가슴에 흘러들어
내 온넛은 세차게 불불나니

위대하시여라

조선혁명의 대오는
다른 길을 갈수 없음을
조선혁명의 심장은
혁명의 성산에서 높뛰고있음을
한상의 사진으로 선언하신
새 세기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아, 천만이 그 사진문헌을 안았다
눈보라 칼바람소리와 함께
천고밀림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천만군민의 심장이
백두의 숨결로 고동친다

아,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진두에서 이끄시는
혁명의 행군길에
온 나라가 들어섰다
불패의 일심대오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1211고지

김 정 곤

말 못할 위엄이
네 마루에 깃들어있다
세일수 없는 위훈이
네 언덕에 쌓여있다
1211고지

네 산정에 뜬
한송이 흰구름도
네 기슭에 자라난
한그루 나무에도
그 무슨 깊은 사연 수놓아있는듯

여기서는
최고사령부가
곧추
마주서있고

포연서린 최전선
야전지휘소로 오르시던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욱소리
지금도 전호벽을 따라
뜨거웁게 울려온다!

여기서 먹는 콩나물국 한사발은
한흙의 미시가루에 담긴 그 사랑으로 무거웁고
옷깃을 스치는 한줄기 바람결도
수호자들의 불같은 숨결이 스며 피를 끓인다

한줌의 흙
한치의 땅에 목숨을 걸고
침략자의 마수를 휘잡아 꺾은 그날의 병사들
불사신인듯 산자락에 얼룡인다

아,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덮은
애끓은 전사의 길지 않은 삶이
여기서 영생의 삶으로 이어졌고
점점시간에 대답 못한 그 이름들은
세월을 넘어 후손들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진다

여기 전호가에 무릎을 꿇고
몽당연필로 쓴 짧은 맹세문도
생활의 교과서로 오늘에 펼쳐지고
로병들 가슴에 크지 않은 군공메달도
만사람의 눈길을 끌며 빛을 뿜는다

포화에 고지는 낮아졌어도
대사하언덕의 그 불굴의 녀이
천만심장에 고동치며
한치한치 키를 자래워
수령결사옹위의 거봉으로
더 높이 솟아오른 영웅의 고지여

1211고지
너는 기발이 되어

불길이 되어
그 어디나 나뭇기며 타고른다

폭우 쏟아지는 발전소건설장에
눈보라 몰아치는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
최첨단돌파로 내닫는 과학자들 사색속에
열정과 신심을 더해주며
너는 군기처럼 날린다

그날에 떨친 멸적의 용맹으로
그날에 올린 전승의 함성으로
온 땅을 흔들며 부르며
너는 오늘도
반제전선의 제1선에서
싸우는 고지로 솟아있다

강선은 그날을 믿는다

위 명 철

꿈속에서도 끓이던 쇠물
가슴에 안고 출근길에 나서니
아직도 단내 풍기는 강재를 가득 싣고
기적소리높이 구내를 나서는
화물수송렬차의 목직한 차관의 행렬

강선의 용해공 우리들에게 보내는
교마음의 인사런듯
기적소리 정다운 렬차를 바라보며
바쁜 출근길 걸음 멈추고
손을 흔들어 바래워주는 강선의 용해공들

그럴 때면 그들의 출근길 구내에 이어저도
저 강재와 함께 마음 닿은 곳은
나라의 만아들들이 사는 용해공거리를 지나
나라의 귀중한 보배 과학자들이 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아직도 열기뿜는 강재들을 보며
생각도 마음도 뜨거운 용해공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전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수령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 조선의 하늘가에

전설의 천리마를 날려주신 땅
천리마의 고향 강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위해선 아까울것이 없다고
그들에게 새집과 휴양소도 지어주자고
거리의 이름도 명명해주시고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조국수호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두고 우리 세상에 웨치고싶구나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여 너는 사랑과 믿음의 기념비!

어제날 천리마의 기상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웠고
오늘은 위성제작국 발사국으로
선군조선의 위용 만천하에 떨치며
강성국가의 래일을 앞당겨가리니

이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하늘가에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는 위성의 은하가 비끼리
그 은하를 바라보며 우리는 추억하리
우리의 후대들 천만년을 노래하리
오, 강선은 강선은 그날을 믿는다!

선군시대에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노래하는 시가문학을 더 많이 창작하자

강 은 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승리에 대한 경축은 그 자체에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다.

승리에 대한 경축은 그 승리의 요인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게 하며 승리의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후대들에게 긍지를 주고 신념과 의지를 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시가문학창작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감동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인민들을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으로 무장시키고 이 땅에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우리 인민과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힘겨운 전쟁이었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첫날부터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로 불려 일으키시였으며 탁월한 군사사상과 명활한 전략전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의 승리,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승리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명활한 군사전법은 그 어느것이나 전설적이며 그 력사적사실은 그대로 노래가 되고 시가 될수 있는 소재로 된다.

우리 시가문학은 바로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시화하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크나큰 정서적감화력으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창작된 서사시 《우리는 영원히 승리를 선언한다》(백의선)를 비롯하여 시 《그날의 전승광장에서》(정렬, 1998), 《전승의 날에》(한창우, 1999), 《강사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려도》(리명수, 2006), 《옛 최고사령부 프락에서》(리범수, 2008), 담시 《수령님의 부채바람》(문동식, 2011), 시 《영광을 받으시라》(한원희, 2013) 등의 많은 시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세세년년 노래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의 하나로 되며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 땅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영원토록 흐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설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가문학창작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는 바뀌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 받게 된다.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전세대가 이룩한 승리가 대를 이어 빛나기도 하고 빛을

없을수도 있다.

새 세대들을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승절을 의의있게 경축하고 뜻깊게 노래하는것은 새 세대들이 전세대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 그들처럼 살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하였던 사상정신세계를 시화하여 새 세대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 그 정서적감화력은 보다 큰것으로 되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시가문학창작은 백전백승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자기의 발전면모를 더욱 새로이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전승을 경축하는데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하도록 절음절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작품들이 창작되었을 때에는 작품들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창작가들에게는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속에서 창작된 가요 **《7.27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이 천만군민의 가슴에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며 울려 퍼지였다.

시가문학은 다른 문학형태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호소성과 전투성이 높은 문학형태이다.

전승을 노래한 시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한 승리자들의 환희에 넘친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며 승리의 전통을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시가문학창작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선군시대의 시대적요구이기도 하다.

선군시대는 력사에 류례없이 가렬한 반미대결전의 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군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력사의 갈림길에서 총대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보루로 서있는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버리고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원썬들의 악랄한 책동앞에 우리 공화국은 해마다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경축하는것으로써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는것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대답하였다.

해마다 뜻깊게 기념된 전승절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장검을 내들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의 신념과 배짱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전승을 노래한 시가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높이 울리였다.

전승절을 기념하여 수많은 창작된 시가작품들은 미제와 판가리총결사전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상태의 집중적인 반영이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충실한 시인들의 불타는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 시인들은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반영한 시가문학,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에 거세찬 불을 다는 전승주제 시가문학창작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류 정 옥

두툼한 가족사진첩을 펼치는 서예의 눈빛은 류달리 반짝인다.

맨 첫장에는 서예의 할머니 리옥희의 옛 병사시절사진이 한복판에 붙어있다. 가장자리가 불길에 그슬리고 오각별테두리가 파편조각에 찢기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어느 고지에서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아마도 가렬한 전투승리를 축하한 중군촬영가의 특혜인듯싶다.

전우들 한복판에 앉은 리옥희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찰랑이는 웅달샘처럼 반짝이었을 오목눈, 상큼한 코날, 군모밑에서 활기롭게 날리는 단발, 활짝 웃고있는 얼굴은 리지와 열정이 넘치는 활달한 모습이였다.

서예는 무한한 존경과 경의에 찬 눈길로 할머니의 모습을 이윽도록 여겨보다가 오늘 새 군복을 타입고 찍은 자기의 독사진을 할머니의 사진결에 견주어보았다.

래일이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되는 그였다.

서예는 사진에서 눈길을 떼며 할머니를 돌아다보았다.

할머니는 무엇때문인지 양복장을 열고 옛 군복저고리를 꺼내고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냐?》

머리가 명주실꾸리처럼 하얗고 세월의 년륜과도 같이 주름살이 짙은 할머니는 얼굴도 돌리지 않고 응대하였다.

《내 사진을 할머니사진결에 붙일수 있을까요?》

《좋을대로 하려무나.》

《아니요, 그 자격을 묻는거예요.》

《자격?... 앞으로 네 군사복무가 말해주겠지.》

서예는 할머니가 왜 반신반의하는지 알만 하였다. 할머니는 손녀라면 입안의것이라도 꺼내줄 심정으로 애지중지했지만 바야흐로 다가오는 공민적인 첫걸음을 두고는 자주 로파심을 가졌다.

외동손녀로서 온 집안의 떠받들림속에 온갖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자라온 그였던것이다.

아직은 사랑을 바칠줄도, 그 무엇에 헌신할줄도 모르는 웅석반이다. 게다가 천성적인 늦잠꾸러기는 차려주는 밥도 못 먹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뛰는 때가 종종 있었던것이다.

할머니는 서예의 엉치를 두들겨 깨우곤 하면서 《이것야, 너도 이젠 다 자란 처녀야. 이 늦잠꾸러길 무엇에나 쓰겠는지. 나는 네 나이에 벌써 며칠씩 밤을 새우며 불구름속을 뚫고 전선길을 달렸어.》

지청구가 어린 할머니의 말에 서예는 자던것 같지 않게 눈을 반짝 뜨고 일어나 할머니의 목을 그려안고 깨드득거리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말했다.

《그때 할머니의 체질이 얼마나 연약했던지 정갱이가 부러진 역대우같은 부상병이 할머니의 등을 떠밀며 〈차라리 개미등에 업히는게 낫겠다.〉고 했는지요?》

할머니 리옥희는 전선길에서 있었던 토막사연들을 교훈삼아 들려준적이 있었다. 리옥희는 그때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역대우같은 부상병을 업고 전방치료대까지 갔는가고 묻는 손녀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듯이 대답해주었었다.

《전쟁마당에서야 부상병후송같은것이 무슨 그리 큰것이겠니.》

그럴수록 서예에게는 할머니가 더 돋보이였다.

전쟁력사상 미군놈의 코대를 처음으로 꺾어놓은 위대한, 영웅적이란 말을 수십번 덧붙여도 다 표현할수 없는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할머니의 공로와 위훈에 더없는 경의를 표하게 되는 그였다.

그래서 지금 초병이 되는 자기의 그 자격을 묻는 것이었다.

물론 어렵도 없다. 하지만 자신심을 가지고 싶었다.

《어쨌든 할머니 사진 곁에 붙일래요. 그리고 꼭 일당백, 총폭탄, 육탄병사가 되겠어요.》

서예는 마치 군인선서나 하듯이 엄숙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래야지. 어서 붙여라. 그저 말만 앞서지 말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너그러이 응수하며 군복저고리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낸 것을 들고 서예 곁에 와앉았다.

《잇을번 했구나.》

할머니가 펼쳐보이는 것은 조그마한 공화국기였다.

학습장크기만 한 기발이었다.

《이걸 잘 간수하고 가져라.》

《?!...》

놀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였다. 퇴색할대로 퇴색한데다가 옛날 명주천에 물을 들여 세가지 색을 재봉으로 박아서 만든 쪽무이공화국기발이었다.

서예는 의혹과 의문이 가득찬 눈길로 할머니를 주시하기만 하였다.

《이 기발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나를 지켜준 은인이냐 같다고 해야 하겠는지.》

《?!...》

《아마 앞으로 너도 지켜줄게다.》

《예?! 기발이야 내가 지켜야 하는것이 지 기발이 나를 지킨다고요?》

《옳은 말이다. 물론 네가 지켜야지.》

《?!...》

점점 아리송한 말이였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할머니는 깊은 생각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무슨 큰 위훈자나 자랑할만 한 공로자도 아니다.

전쟁에 나선 병사로서 최대의 정신육체적인 마력, 특히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군센 의지와 불같은 사랑과 증오로 불타는 심장을 지니지 못하고 잠시나마 좌절과 동요로 주춤거린 때도 있었다.

이건 내 병사생활의 한토막 수치가기도 해서 별로 말한적이 없다.》

《?!...》

어느덧 서예를 떠나 먼곳을 더듬는듯 한 할머니의 눈길은 이끼덮인 추억의 갈피를 헤치고있었다.

...적후의 새벽, 전선동부의 험한 산릉선을 타고 은밀히 행군하는 10여명의 부상병대오가 있었다.

팔, 다리, 머리에 봉대를 감은 부상자들과 그들을 후송하는 위생병과 단발머리 중사 간호원이었다. 포위속을 뚫고나오는 마지막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산길을 타면서 앞선 부대의 뒤를 따르고있는중이었다.

밤새 전조등빛으로 어둠을 찢으며 부르릉거리는데 적들의 수송차동음이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있었다. 발밑에서 삭정이 부서지는 소리에도 신경을 도사리며 은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정황이었다. 얄친데 덮친 격으로 간호원 리옥희는 지독한 오한속에 머리를 싸쥐고 비틀걸음을 치다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곤 하였다.

대오의 지휘관격인 위생병은 부상병들을 잠깐 휴식시키고 옥희를 가장일우에 눕힌 다음 위생가방을 뒤지였다. 허나 뻔한노릇이었다. 해열제나 강심제 한대도 있을리 만무했다.

간호원과 위생병을 주시하던 부상병들의 어두운 눈길에 문득 초긴장감으로 굳어졌다.

별안간 가장일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먼발치 아름드리 참나무뒤에 숨어앉은 사람을 잠관목사이로 얼핏 발견하였던것이다.

《누구야?》

위생병은 반사적으로 기관단총을 쏘아들었다.

《놀라지들 마슈.》

나무뒤에서 희끄무레한 무명덧저고리를 입은 60대의 로인이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키낮은 떡갈나무를 와삭와삭 헤치며 다가왔다. 구부정한 등에 진 망태기아구리에는 산토끼대가리가 비죽하니 나와있었다.

《보아하니 인민군대어른들이구려. 난 저 아래마을 농사군령감이외다. 무척 어려운 걸음들을 하고있는게 틀림없는데 사정에 처한 처녀군대를 그대로 데리고가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알겠수?》

나무뒤에서 모든걸 다 지켜본듯 하였다.

로인은 망태기를 벗어놓고 무작정 등을 돌려대며 처녀를 업혀달라고 하였다.

《우리 집은 이 산밑에 외파로 떨어진 집이외다.》

로인은 외아들을 의용군에 내보내고 내외가 산다면서 아무것도 꺼릴것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집에 내려가서 솜에 말려두었던 노루피를 먹이고 더운 방에서 구완하면 알도리가 있을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선뜻 응하지 못하는 위생병에게 믿음을 주며 확신성있게 설복을 했다.

《넘려마슈. 한니 소작쟁이가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수천평의 제땅을 가지는 꿈같은 소원을 푼 남쪽방 백성인데 장군님군대를 어찌 소홀히 대하겠수.》

《고맙습니다.》

위생병은 더는 어쩔수 없는 형편에서 달리 할수

가 없었다.

그는 부상병들을 더 쉬게 하고 자신이 옥회를 업고 로인을 따라섰다. 로인의 집을 기억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생병은 부상병들을 맞다드는 야전군의소에 후송하는 즉시로 되돌아와 옥회를 데려가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산밑의 외따른 농가를 새겨두고 돌아섰다.

리옥회는 로인내외의 극진한 구완으로 해서 3일 만에는 고열에서 헤어났으며 더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허나 몸상태는 여전히 심상치 않았다. 머리가 쓰시고 수시로 열이 오르내리며 입안이 말라들었다. 불안감이 덮쳐들었다. 미제의 세균전만행으로 퍼지고있는 장티브스증상이 확인했다. 게다가 인차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위생병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삼일... 불안과 위구, 초조감이 옥회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혼자 떠나자고 해도 약속된 지점이라는것이 없었다. 이 지구 지형지물에는 캄캄하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큰길에서는 적들의 기계화부대가 매일같이 으르렁거렸다.

순간순간이 가슴을 지저대는 고문이었다. 아직 위생병과 부상자들이 그 어느 야전군의소와도 맞닿지 못했는가?... 혹시 적들과 조우하여 모두가 장렬하게... 아니, 아니, 그해서는 안돼... 어쨌든 하루 한시간이 열흘, 백날처럼 느껴지며 가슴엔 까맣게 재가 덧쌓였다.

혈관속의 맥박처럼 느끼던 귀중한 조국-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품, 그 품에서 떨어져 생의 줄기가 끊어진듯싶은 고뇌, 지휘관도 전우도 없는 고립무원한 적후에서 홀로, 이보다 더 무서운 고독과 공포는 없었다.

총포탄이 귀뿌리를 스치는 전방치료대도, 목에서 겨불내가 나는 부상병후송도, 캄캄칠야 폭우속에서 100여리 행군도 지금에 비하면 웃으며 넘을수 있는 꽃밭이었다.

재가 덧쌓이는 가슴을 안고 그냥 앉아만 있을수 없었다. 장티브스증상이 분명한 이상 주인내외에게 감염될수 있는 우려가 더욱 불안하게 했다.

떠나야 했다.

혁띠를 조여매고 배낭과 총을 메려는 옥회를 보고 로인내외가 펄쩍 뛰었다.

《그 몸에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건가. 사방에 적들이 옥실거리는데... 놀라있으면서 오겠다고 한 군대를 기다려보라구.》

《더는 기다릴수 없어요. 전 군인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실상 옥회는 난감하였다.

위생병과 옥회가 받은 명령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금화계선까지 뒤따라오라는것이였다. 이 지구 지형이나 로정도는 위생병이 알고있다. 옥회는 그에게

의존해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따라가던중이였다.

더구나 이 며칠사이에 아군부대가 있는 계선이 몇백리밖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였는지도 모른다. 모든것이 막연하였다.

하지만 한시가 새로왔다.

옥회는 결연히 일어섰다.

주인내외도 더는 말리지 못하였다.

《아버님, 여기서 김화까지 멀리나 될가요?》

《아마 산발을 타면 300리쯤 될거네.》

어쨌든 금화방면으로 가야 했다.

김화! 강원도 김화군은 리옥회의 고향이다. 해방전의 아픈 상처와 해방후의 환희롭던 추억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땅이다. 한시빨리 달려가 안기고 싶기도 한 고향이다.

담차고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범전문학교 학생이던 옥회가 총을 잡고 전선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엄숙한 눈길로 당부하였다.

《애야, 너자의 몸이라고 해서 총알이 무서워 그 어느 구석에 숨어있을 생각일랑 꿈에도 해서는 안된다.》

양복점책임자인 어머니, 높직한 함석지붕밑에 유리미닫이가 달린 마루방기둥에 《광명양복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마당가에서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옥회를 불렀다. 몸조심하라고, 전쟁이니 무슨 일인들 없겠냐만 믿고 기다리겠다고 뜨거운 애정과 믿음을 담아 바라보던 눈길... 지금도 어머니는 모든 힘을 전선원호에 바치고계실것이다.

문밖은 이미 어슬어슬 어둡기 시작하였다. 허지만 한시가 새로왔다. 어쩌면 밤길이 더 안전할수 있는 적후였다.

《길을 헛들지 말구 이 뒤산통선을 따라가라구. 이 산줄기가 철원지방과 편달았을거네. 철원다음이 김화땅이지.》

어스름속에 산중턱까지 따라나와 길을 대주는 로인이였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걸루 요기를 하계.》

로인이 내미는 절절한 배보자기에 썩 꾸레미를 옥회는 그 무슨 보물처럼 받아들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전선길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인정깊고 소박한 인민들을 잊지 못할것이다. 옥회는 산밑에 붙어있는 초가집을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다소곳이 숙인듯싶은 초가지붕, 울바자를 따라 둘러선 세그루의 대추나무, 뒤뜰에는 해묵은 미루나무가 높이 솟았다. 가지사이에 당실하게 올라앉은 까치둥지, 언제 걸렸는지 우듬지에서 찢어진 연의 꼬리가 너울거렸다.

산길은 첫걸음부터 무시무시한 불안과 고독이 앞

뒤로 둘러쌌다. 제 발자욱소리에 우뚝 귀를 도사리기도 하고 때아닌 밤길손에 놀라 와스락, 와스락 가랑잎속으로 숨어드는 조그마한 길짐승이나 날짐승의 푸드득소리에도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총가목을 더욱 틀어잡곤 하였다.

마침 보름께 달이 산발을 환하게 비쳐주며 친절하게 옥희를 따라섰다. 고마웠다. 달을 보고 노래도 불렀고 팔월 추석 달맞이놀이도 했었지만 오늘처럼 달이 귀중하고 친근한 벗으로, 길동무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보름달 둥근달 날 따라만 오네
시골길 십리길 외가에서 오는 길
내가 가면 달도 가고 내가 서면 달도 선다
...

소녀시절에 달을 보며 동심에 잠겨 부르던 노래다.

산릉선이란것이 병풍을 펼쳐놓은것처럼 외줄로만 뻗어있는것도아니고 그 무슨 그림을 보듯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것도 아니다. 어느 룡선이 원줄기이고 어느것이 지선인지 알수 없었다. 일떨어진 참나무, 오리나무가지들이 하늘을 가리우기도 하고 허리를 치는 개암나무, 떡갈나무가 길을 막기도 하였다. 점점 당황해지고 더럭 겁이 났다.

마가울의 쌀쌀한 밤공기는 살속으로 파고들며 오싹오싹 추위를 몰아왔다. 넘어지며 미끄러지며 얼마쯤 가다가는 미심쩍어 다시 되돌아서기를 그 몇번... 룡선을 넘고넘으며 에둘고돌면서 밤새도록 걷고걸었다. 아니, 헤맸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기력이 썩그리 소모되었는지, 무엇때문인지 몸이 점점 떨려났다. 결코 추위때문이 아니었다. 더는 걸음을 옮길수 없게 온몸이 천근무게로 녹아들었다. 푸름푸름 새벽에 그는 어쩔수없이 어느 한 룡선에 주저앉고말았다. 목이 타드는 갈증속에 눈앞이 흐리마리해졌다. 분명 장티브스가 재발하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피던 옥희는 문득 산밑 한곳에서 눈길이 굳어졌다. 안개속에 묻힌듯이 선명치는 않았지만 분명 초가지붕들을 보았던것이다. 어쩌면 철원군지경의 어느 마을일수 있으리라는 예감에 환성을 지를번 하였다.

마치 죽음의 나락에서 구원의 손길을 잡은듯 한 기쁨에 오히려 갈증도 한순간 느끼지 못하였다.

어서빨리 어스름이 걷히고 눈앞이 밝아지기를 조급히 기다렸다.

부대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위생병과 부상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위생병이 지금 나를 맞받아오고있지나 않을까. 이러다가 만일 길이 어

긋나면 어쩔가.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도 했다.

점차 마을의 룡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순간적으로 망각되었던 목타는 갈증,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고열... 심상치 않은 증상이 다시 덮쳐들었다.

옥희는 입을 앙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밝히며 마을을 굽어보았다.

순간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다.

《어마나?!》

가슴이 철렁 돌담이 무너져내리는듯 한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휩쓸었다.

초가지붕들이 웅기종기한 마을에서 너무도 표적이 뚜렷한 초가집이 눈을 찔렀다.

《아니야, 아닐거야.》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억지였다.

세그루 대추나무, 미루나무, 우듬지에 걸려있는 찢어진 연, 퇴색한 연의 긴 꼬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지 않는가.

옥희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빠져나간듯이 풀썩늘어지고말았다. 가슴에서는 불길기 타번지는듯한 갈증, 머리가 터질듯한 한 동통... 잠시후 그는 아픔도 갈증도 절망도 느끼지 못하였다....

옥희가 정신을 차리게 된것은 그날 아침 연꼬리가 매달린 미루나무집에서였다.

짐승웅노를 보러 뒤산에 올라갔던 로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업어왔던것이다.

로인내외는 또다시 노루피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것저것 좋다는 약초를 다 달여먹였다.

로인내외의 성의가 귀한 약으로 되어서인지 옥희는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앉게 되었다.

사과알갈던 그의 불은 창백하고 홀쭉 꺼졌으며 눈정기도 흐려졌다.

그의 걱정은 점점 천근무게로 더해갔다. 필경 위생병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더는 지체할수가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시 떠날수도 없지 않은가.

주인내외가 옥희를 달래었다.

《더는 판생각 말구 며칠 더 폭 폭으면서 몸을 추세우자구.》

《...》

그 뜨거운 인정에 무엇이랴 사례를 해야겠지만 옥희의 입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다.

지긋지긋한 장티브스의 발열, 산중에서 죽을수도 있다. 날을 따라 점점 더 알수 없는 부대의 행방, 파도사나운 난바다우에 쪽배신세가 된셈이 아닌가.

옥희의 막다른 사정에 함께 속을 쓰던 주인어머니가 옥희의 손을 그러잡으며 결심을 내리듯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구. 우린 딸이 없는 늙은이들이야.

아예 우리 집에서 딸처럼 함께 살자구.》

《예?!...》

옥희는 놀랐다. 동시에 얼굴을 붉혔다. 자기가 너무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어머니, 고맙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원, 참...》

안타까이 옥희를 마주보던 늙은이가 타협안을 내놓았다.

《정 그러면 무슨 수가 생길 때까지라도 놀러 있을 차비를 하라구. 죽을 수가 생기면 살 수도 나진다는 말이 있지 않나. 길이 열릴 때가 있지.》

《...》

그 무슨 담보가 있는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형편에서 더 달리할수도 없지 않는가. 이런 처지에 빠진 처녀를 두고 누가 탓하겠는가.

망설이는듯 한 옥희의 기색을 알아본 주인어머니는 움썹 일어나 농작문을 열고 허름한 무명적삼과 점정치마를 꺼내 옥희앞에 내놓았다.

《놀러있자면 잠시라도 군복을 벗어 배낭에 넣고 이걸 입게나. 놈들이 노상 큰길로만 지나간다고 볼수가 없지.》

《?!...》

옥희는 흠칫 한걸음 물러앉았다. 크게 놀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시에 동요가 일어났다.

(어떻게 할가?... 옷을 갈아입어?... 아니.)

그는 몸을 떨었다.

불현듯 고향의 어머니목소리가 뺨을 치는듯했다.

《너자의 몸이라고 해서 총알이 무서워 그 어느 구석에 숨어있을 생각일랑 꿈에도 해서는 안된다.》

(군복을 벗다니?!)

옥희는 몸을 움츠리며 두팔을 엇걸어 군복을 움켜잡았다. 순간 군복주머니에서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었다.

그는 주머니단추를 벗기고 그것을 꺼냈다.

네겹으로 접혀진 조그마한 공화국기였다. 옥희가 전선으로 떠나던 날 고향의 어머니가 넣어준 기발이다.

《품에 넣고 떠나거라.》

길지 않은 말이었으나 얼마나 많고 깊은 뜻이 담긴 부탁이던가.

그는 두손에 퍼든 기발을 가슴에 끌어다 꼭 붙이었다.

해방된 새 조국, 군인민위원회 지붕우에 공화국기가 휘날리던 날 옥희의 가슴은 얼마나 울렁이었던가.

읍마을어귀에 세운 술문우에서도 나뭇졌다. 온

마을이 떨쳐나 술문앞에서 춤을 추었다. 새남을 불고 북과 팽과리를 울리며 남녀로소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흰 수염발을 날리는 할아버지들과 허리 굽은 할머니들.

《고생 끝에 락이라더니 이런 희한한 세상을 보자고 죽지 않고 살았구나.》

《대대손손 머슴군이 문전옥답 내 땅이라.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심부름군, 아이보개, 문전걸식하던 아이들이 책보를 끼고 학교문으로 들어가는 세상...

옥희는 기발을 우러러 걱정을 터뜨렸다.

아!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기발인가. 새 조국의 숨엄한 상징이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이기도 한...

옥희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기발을 만들었다.

옥희는 명주천에 빨강고 파란 물감을 들였고 광명양복점 책임자인 어머니는 재봉기를 돌렸다.

중학교학생인 옥희는 그 공화국기발을 들고 《김일성장군의 노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며 가창대의 선두에서 마을사람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딸을 격려했다.

《너희들 노래가 우리 양복점 재봉공들의 일손에 날개를 달아주었구나. 오늘도 계획을 넘쳐 해제졌단다.》

인민군대원호물자를 마련하는 일이 한창 바쁜 때였다.

성인학교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들도 자진하여 선생님이 된 옥희를 기다리며 반겨맞으며 다투어 말했다.

《내 나이 40고개에 이런 날이 있을줄이야 누가 알았겠수. 극상해서 눈물속에 한숨소리나 흘러나오던 가슴에서 노래소리가 나오고 소경이 눈을 뜨듯이 〈가까져〉를 뜯어보게 되다니!》

반짝이는 옥희의 오목눈은 감격에 젖어들곤 하였다.

《이것이 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새 조국의 덕분이예요.》

《이것 봐요. 옥희는 우리 글과 노래만 잘 배워주는게 아니라 모르는게 없단니까.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 됐어요.》

옥희는 그 무슨 표창을 받은듯이 즐거웠고 무엇이건 더 큰것으로 새 조국에 보답하고싶었다.

어머니는 가창대를 하고 성인학교에서 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딸을 대견스레 맞이하며 저녁상을 마주하였다.

《힘들고 배고프겠구나. 어서 먹어라.》

《어머니, 이상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배고픈줄도 모르겠구요.》

환희에 넘쳐 생글거리는 딸을 마주보며 어머니는

의미깊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이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배고픈줄도 모르고 근심걱정없이 살았느냐.》

잠시 말을 끊은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다.

《너의 아버지가 오늘을 보지 못하는게 큰 한이구나.》

징용에 끌려간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가슴쓰리던 해방전 나날들을 상기하고있음을 옥희는 알았다.

옥희에게도 뼈에 사무친 잊을수 없는 세상이었다.

악질친일주구 순사놈은 막벌이군 아버지를 강제로 징용으로 끌어들었다.

그놈은 왜놈순사들과 한짝이 되어 울며 애걸하며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어머니와 옥희를 악을 쓰며 구두발로 짓밟았다.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옥희는 코피가 터져 퍼렇게 멍이 든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반주검이 되어 마당에 쓰러진 모녀를 남기고 끌려간 아버지는 일본땅의 어느 지하막장에서 고역을 치르다가 굴이 무너져 그채로 묻히고말았다.

그후 모녀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옥희는 월사금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날이 늘어갔다.

부러진 어머니의 갈비뼈는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던 샷팔래, 샷바느질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었다.

월사금은 고사하고 끼니거리가 바닥이 났다.

강냉이가루시래기범벅을 놓고도 어머니는 옥희에게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기는 체기를 받아 속이 말쑤다면서 먼저 수저를 놓곤 하였다. 눈치가 딸간 옥희는 옥희대로 어머니쪽으로 시래기범벅뚝배기를 밀어놓으며 서로 싱갱이질을 했다. …

그런 나날들끝에 맞이한 해방이었고 꿈같은 생활, 꿈같은 행복이었다. 옥희는 지난날에 다 이해할수 없었던 어머니의 말을 상기하며 물었다.

《어머닌 그때 무슨 힘으로 그토록 나를 키우셨나요?》

어머니는 유정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무슨 힘으로?… 그건 바로 네가 내 힘이였지.》

《?!…》

《너는 그 험한 세상에서 나를 버티여준 기둥이였고 지탱이였으며 어둠속을 비쳐주는 한가닥 빛이였거던.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주저앉고말았을거다. 그런걸 사랑의 힘이라고 하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힘은 무한히 크다더라.》

《?!…》

《네가 지금 배고픈줄도 모르고 힘든줄도 모르

며 밤늦게까지 자진해서 성인학교며 가창대에 앞장서는것도 바로 그런 힘이겠지, 우리가 지난날 상상도 못했던 이 복되고 희한한 세상을 안겨준 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고 더없는 고마움이 지.》

옥희는 감동에 젖은 눈길로 어머니를 새롭게 높이 쳐다보았다.

얼마나 웅심깊고 사려깊으며 뜨거운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인가.

해방전 그 모진 세상에서 어린 딸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깡그리 힘을 바쳐온 어머니, 오늘은 꿈같은 새 조국의 은덕에 고마와서 불같이 헌신분투하고있는 너당원이다.

모녀는 때늦은 저녁상에 마주앉았다. 소박하나 푸짐한 상이었다. 기름이 반질반질한 흰쌀밥에 풋배추국, 절인고등어찜, 콩나물무침, 오이김치, 고추장종지가 오בות이 놓였다.

며칠후였다. 그날도 옥희는 가창대와 성인학교에서 표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하늘엔 쪽배같은 달만이 흰구름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골목길엔 인적이 드문 이숙한 밤이었다.

밤이 깊은들 어떠랴. 옥희의 가슴속에선 환희의 메아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어 삼천만은 나눴다
…

그의 손에서 공화국기발이 가볍게 흔들렸다.

흘러가던 쪽배달도 미소를 보내는듯 하였다.

그러던 순간 문득 모든것이 정지되었다.

별안간 어스름속 굽인돌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오며 우악스러운 손아귀가 옥희의 목살을 틀어잡았던것이다.

《이 새끼빨갱이년아, 그냥 노래를 지절거리겠어? 그 기발을 내던져.》

단도직입적인 위협이었다.

《?!…》

옥희는 가슴이 쿵당거리고 숨이 꺾 막히여 비명도 나가지 않았다.

《뻔뻔스레 내 집을 타고앉아서 흥타령을 해?》

옥희는 어스름속에서 눈을 알아볼수 없었으나 《내 집》이란 말에 대뜸 짐작이 갔다.

아버지를 징용으로 끌어간 친일주구 순사놈의 아들이었다.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샷바느질로 연명해온 어머니에게 순사놈이 살던 널직한 집에 여러대의 채봉기를 놓아주고 양복점책임자로 내세워주었던것이다.

옥희는 창황중에도 옷섶을 들치고 기발을 겨드랑

이쪽 깊숙이 찢어넣었다.

《네년이 저승에 갈 차비를 하는구나.》

놈은 다른 한손으로 기발을 찾아 옷섶을 헤치려 했다.

《엄마!— 누구 없어요?...》

옥희의 비명소리가 조용한 밤공기를 아즈럽게 찢었다. 그 소리에 겁을 먹은 놈은 옥희의 입을 막으려 했다. 순간 옥희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몸을 비틀어채며 놈의 팔목을 깨물어뜯었다.

《이년이지?!》

놈의 돌같은 주먹이 옥희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이어 드센 발길이 옆구리를 들이쳤다.

옥희는 땅바닥에 허공 나가쓰러졌다. 한손은 기발을 짊 그리잡은채...

놈의 발길질이 계속되었다.

옥희는 뼈가 부서지는듯 한 아픔이 전신에 미치는 순간마다 박자나 맞추듯이 속다잡하였다.

이 기발은... 행복의 전부이고 내 삶의 넓이며... 새 조국의 상징이다... 빼앗길수도 없고... 버릴수는... 더욱 없다....

이때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손들었!》

물먹은 숨처럼 늘어졌던 옥희는 비스듬히 겨우고개를 들었다. 순간 놈의 뒤통수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이 언뜻 눈길에 비껴들었다.

순찰중에 있는 보안서원이 옥희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던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중학교에 다니던 놈은 해방후에 애비와 함께 월남도주했는데 북에 있는 동요분자를 남조선의 반동청년단체에 끌어들일 공공이를 하려고 제판에는 변장을 하고 은밀히 기여들었던것이다. 헌데 으스스한 밤골목에서 우연히 옥희와 맞다들었다. 그러자 순간적인 악심의 충동에 무모한 악행질을 했던것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시꺼멓게 멍이 든 옥희의 눈확에 답알을 굴려주면서 믿음과 애정을 담아 말했다.

《어쨌든 용타, 이 지경이 되면서도 자기를 지켜냈으니.》

옥희는 언젠가 어머니가 사랑의 힘에 대하여 하던 말을 빌어 응대하였다.

《제가 오늘의 모든것을 그만큼 사랑하기때문이겠지요.》...

옥희는 단정한 자세로 공화국기발을 두손에 퍼들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품에 넣고 떠나거라.》

어머니의 말은 한마디였으나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겼던가. 고향을 안고 가라고, 사랑하는 조국, 행복을 지키라는 당부가 아니었던가.

기발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리는것만 같았다.

《애야, 네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가는게 아니냐? 네 목을 조이던 원쑤가 다시 고향땅에 기여들고있잖느냐.》

그렇다, 조상대대로 꿈조차 꾸지 못했던 락원의 조국땅에 또다시 승냥이무리들이 기여들고있다.

옥희는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그리안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엄혹한 정황앞에 공포와 절망이 앞섰됐어요.》

옥희는 공화국기발을 다시 차곡차곡 접어서 군복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꼭꼭 채웠다. 그리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전 떠나겠습니다.》

옥희는 다음날 새벽길을 떠났다. 낮에 위험이 있을수 있지만 밤길엔 지형판단이 불리했던것이다.

주인할아버지가 해가 솟을 때까지 산길을 타면서 포수들이 다니던 옛길의 흔적들을 자상히 설명해주고 돌아갔다.

옥희와 헤어지면서 로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일성장군님군대가 참말로 다르구만. 담도 크구 절개도 굳거던. 녀자의 몸으로 황차 병자가 그것도 행방도 모르는 부대를 찾아 산길을 떠나니 말일세.》

《할아버님, 저는 이 길에서 열에 아홉번은 죽음과 맞다들수 있습니다. 허지만 살아서 적의 손에 들지는 않겠어요. 열백번 곤경을 치른다 해도 꼭 부대를 만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옳거니, 믿음을 잃어서야 안되지.》...

죽음을 각오한 의지와 애국에 불타는 신념에 운명을 걸고 나선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법이라고 해야 하겠는지... 낮에는 산에서 돌덩이같이 된 강냉이떡을 씹으며 쪽잠을 자기도 했고 밤에는 인가를 찾아 길을 묻기도 하면서 걷고걸던 옥희는 마침내 철원근방 산속에서 제2전선부대를 만났다.

옥희는 거기서 위생병의 최후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상병후송임무를 수행하고 옥희를 찾아 다시 전선을 넘다가 적의 포위속에서 격전을 벌리던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것이였다.

...

할머니는 퇴색한 공화국기를 다시 쓸어만지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내가 지키기도 했고 나를 구원해주기도 한 기발이여서 오래동안 간직해두었던것이다.》

서예를 마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무엇인가 긴요한 말을 하려는 기색이 어렸다.

사랑과 보람에 대한 생각

조 인 영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1211고지 관문인 속사에서 나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나는 물었다.

《아버진 무슨 훈장을 탔나요?》

《훈장? 훈장 말이냐?》

아버지는 좀 더듬는가싶더니 전사의 영예훈장을 보여주었다.

《이거뿐이냐요?》

《그래.》

《형-》

나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잘 싸우지 못했으며 그래서 전사의 영예훈장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부끄러웠고 이따금 울적해졌다.

우리 학급동무의 아버지를 본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 아버지는 왕별을 단테다가 백마를 타고 직동령을 넘어 학교에 와서 우리와 상봉모임을 했는데 앞가슴에 훈장들이 절렁거렸다.

그후 다른 애들의 아버지들이 가슴에 훈장들을 절렁거리며 명절날 거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슬그머니 외면하곤 했다. 나는 마음속의 불만을 말로 다 할수 없었다. 어릴적이었으니까.

그후에도 아버지는 늘쌍 이런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 아버진 훈장보다 사랑으로 모든걸 받은셈이다. 오래동안 야전병원에 누워있었거든. 그다음엔 화선휴양소라는데까지 가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게 되었다.

가위안쪽에 《포성이 울부짖는 전선동부 월평동자그마한 골짜기에서. 1952년 9월.》이라는 글이 아버지의 글씨로 써여있었다.

거기엔 무대소품 《아름다운 사람들》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한 전사가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야전병원에 입원한다. 혈압 50미만, 전신의 피 70프로 출혈. 의학은 이미 그에게 사망을 선고했다.

그러나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헌신적으로 치료전투를 벌린다. 저마다 피와 살을 바친다. 다리와 팔이 부러져 입원한 환자들까지 팔을 건어올린다. 전사는 드디어 소생했고 다시 전선으로 나간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줄거리는 감동적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나는 전사의 원형이 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대소품이 우연한 경로로 야전병원 정치부원장의 손에 들어갔다. 작품은 약간한 수정을 거쳐 야전병원에서 공연되었고 마침 군무자에술축전을 준비하던 때라 평양의 축전무대에까지 올랐었다.

아버지는 오랜 나날의 입원치료기간에 상처가 다 아물었지만 부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화선휴양소에 가라는것이였다.

부대로 가느라고 뺨소니치다가 경무초소에 단속되었다. 정치부원장한테 불리워가 눈물이 쏙 나오게 질책을 받았다.

《이건 사랑이요. 조국위해 피흘린 전사들에 대한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요. 싸움에서 이긴 뒤 전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혈육들앞에 내세워주시려는거요. 그런 사랑을 뿌리치다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 무대글까지 쓴 동무가 어찌면... 가요, 어서. 거기 가서 또 좋은 글 하나 써서 보내주요.》

아버지는 울었다고 한다, 눈물짓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소리내어.

그후 전승을 가까이한 어느날 아버지는 갯도에 깊숙이 자리잡은 런대피복수리소 소장으로 배치받았다.

파편과 총탄에 찢긴 군복들과 바위코숭이를 짓차서 떨어진 구두창들을 꿰매어 새것처럼 만드는 이를테면 피복군의소 비슷한데였다.

전선이 그리웠던 아버지는 뜨아해했다.

런대장이 아버지를 설복했다.

《오랜 나날 침상에 매여있었으니 왜 전호가 그림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건 사랑의 직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여기 최전연 1211고지의 병사들을 녀려하시여 선기가 나는데 전사들에게 더운 밥과 뜨끈한 국을 끓여주고 콩나물도 길러 먹이라고 하시었소. 후방일군들은 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제때에 전사들에게 가당게 하지 못한 자책감에 가슴들을 찢소. 그래 피복수리소도 내오고 적임자를 찾던중이었소. 동무가 해방전에 피복로동을 했더구만.》

아버지는 또다시 울먹이었다.

사랑의 직무를 외면하려 했던 자신이 민망했다.

전승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전사의 영예훈장이 수여되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내가 전사의 영예훈장을 받을만 한 위훈을 세운것이 뭐냐

하고 말이다. 훈장증서를 펼쳐보고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다.

그 리유란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군무자들을 분발시킨 무대글을 쓴 공로로.》

아,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에서는 이런것도 위훈에 해당되는것이다. 아버지는 분에 넘친 표창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때 그 수첩갈피에 바로 이런 글도 써여있었다.

《1950년 8월말 팔공산전투에 참가. 적 15명 소멸. 중대장이 국기훈장 3급을 내신하였다고 함.

1950년 9월 중순 서울방위전투에 중기관총수로 참가. 미군을 포함한 적 40여명 살상.

중대장, 문화부중대장이 국기훈장 2급을 내신하였다고 수표함. 지휘관들 모두 전사....

아버지는 그후 종내 훈장들을 탈수 없었다. 지휘관들은 전사했고 소속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자기 공로를 헤아려달라고 찾아다니단 말인가.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나는것과 함께 아버지는 제대되었다.

전쟁전처럼 또다시 아버지는 이동영사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새로 나온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들을 상영하고 영화선전판도 썼다.

제대된 후에도 아버지는 자기의 위훈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나라를 위해 수직수직 일만 하였다.

그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자 아버지는 선참으로 농촌으로의 진출을 탄원했다.

농촌에 나가는걸 달가와하지 않았던 나는 은근히 었드레를 했다. 왜 아버지는 굳이 농촌으로 나

가자고 하는가. 아버지는 영예군인이 아닌가. 전신의 피 70프로를 다 흘리고 한해도 넘게 야전병원에 누워있었다는 아버지가 왜 영예군인증서는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나의 의문을 간단히 풀어주었다.

《바친것보다 받은게 더 많으니까. 나는 오륙이 성성하지 않느냐.》

나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적지 않은 《훈장》들을 바치지 않았는가.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들을 타려고 그 누구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영예군인증서도 받지 않았다.

어쨌든 아버지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촌에 진출했고 그후 반생이 넘는 40년세월을 친척도 없고 산설고 낮은 농촌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감장할 때 많은 동지들은 모두 굳어져 걱정으로 몸들을 떨었다. 가슴을 뚫었던 험상한 파편자옥들이 눈에 띄인것이였다. 내 마음도 걱정에 떨었다.

그 상처자리는 마치도 아버지가 포기했던 훈장들처럼 보였던것이다.

운명직전에 아버지는 동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받은 사랑에 다 보답을 못하고 가오.》

아버지의 마음속엔 일평생 이것이 있었던것이다.

우리의 전쟁,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사랑으로 승리했다. 사랑에 고무된 유명무명의 수많은 전사들의 무비의 헌신과 보답으로 이겼다.

상 식

울타리가 없는 도시

나이제리아의 수도 아부자의 거리를 거니르면 정부의 고층건물이나 아담한 개인주택, 별장, 상점을 비롯하여 모든 건물들에 하나같이 울타리가 없는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도시에 들어서면 널찍하게 쭉 뻗은 도로와 형식이 각이한 아파트들, 크고작은 공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1976년에 나이제리아정부에서는 수도를 설계할 때 이 도시를 개방식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설계가들이 울타리가 도시의 면모를 흐리게 하므로 울타리를 없앨것을 주장하였던것이다.

설계가들은 울타리가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가리울뿐아니라 모퉁이에 쓰레기도 버리고 폐기물도 숨겨놓으며 더구나 사회질서도 바로잡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타

당하다고 여긴 나이제리아정부에서는 《아부자에는 울타리를 쌓을수 없다.》라는 규정을 내놓았다.

1985년에는 아부자의 시장이 제멋대로 높은 울타리를 쌓은 10여개의 단위에 당장 울타리를 허물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수도를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꽃과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으며 나무 한그루를 찍으면 다섯그루를 심게 하는 규정까지 내놓았다.

오늘 아부자는 녹음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며 꽃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도시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는 이 도시는 그 독특한 설계로 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조 발 외 1편

김 용 업

세월은 아득히 흘러왔어도
잊을수 없어라
내 고향 석천산 솔푸른 자락에
포연을 휘젓던 누런 조이삭들
그 조이삭 한아름 베어안고 기쁨에 젖어
이마의 땀 흠치던 어머니의 그 모습

락동강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소식에
가슴천정이 무너져내렸으련만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무엇때문인지 그때부터
석천산기슭의 막돌을 쳐내기 시작하였다

한삼치한삼치 날라 발머리에 쌓던 돌무진
미제에게 퍼부를 포탄더미였던가
한삼한삼 떠 짓던 그 이랑들은
가슴에 일던 분노의 파도였던가
기총탄이 귀전을 스쳐도
어머니는 물러설줄 몰랐다

폭탄이 파헤치면 메꾸고 다시 짓고
불타도 또다시 심고...
어머니는 이악스레 조를 심어가꾸었다
그 한포기한포기 승리의 총대인듯
그 한알한알이 멸적의 총탄인듯

말없이 말없이...
절구로 알알이 찢어 고른 좁쌀 모두
전선에 보낼 때에야 알았다
우리 자식들과 마을사람들도
연약한 몸 마음속깊이
백옥처럼 뿌리내린것 무엇인가를

아, 복수와 애국에 불타지 않고서는
일굴수도 가꿀수도 없는 조발
자신의 명줄처럼 여긴 그 조발은
남편을 대신하여 선 어머니의 전호였다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목숨보다 귀한 조국이였다

돌 보 기

우리 집엔 있다
나의 어머니
생전에 그리도 애용하시던
은백색 도수높은 돌보기

바느질이나 하던 돌보기라면
쌀이나 고르던 돌보기라면
이다지도 뜨거우랴
우리 자식들의 추억이

어머니는 보셨다
90나이에 이 돌보기로
하루라도 못 보면 숨결이 멎을듯
그 바쁜 원군길에서 매일 우리 당보를

어이 안 그랬으랴
당보를 펼치면 안겨오던
우리 장군님과 원수님 태양의 그 영상
고목에 꽃을 피워주는 삶의 해빛 되었으니

하기에 다 밝아보고있었다 이 돌보기로
그 눈물겨운 선군길 굽이굽이
얼음깎린 오성산 칼벼랑길도
바람세찬 서해의 최전선 무도와 장재도...

그래서 닭고 또 닭أت던가 이 돌보기
순간이라도 눈동자 흐려지면
제 삶을 지켜주고 만복을 안겨주는 그 자욱
따라서지 못할것 같아

그래서 자주 바꾸었던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도수로
글자가 조금만 희미해져도
원군의 그 박동 떠질것만 같아

아, 어머니의 두눈이었던 돌보기
지금도 어려있구나 이 돌보기엔
애국의 그 마음 비껴 열정에 불타던
나의 어머니의 밝은 두눈동자가

로화속에서 태어난 노래는 더욱 아름답다

—단편소설 《노래는 남는다》를 두고—

정 철 호

…세월의 흐름앞에는 영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퇴색되듯이 귀중한 간직된 추억도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

이것은 단편소설 《노래는 남는다》(류영기 작 《조선문학》 2013년 7호)의 한대목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물과 사건을 설정해놓은 다음에는 그 발전과정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따라 인내성있게 파고 들어가 스스로 결과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참다운 삶을 안겨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의 노래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아름답게 울린다는 것을 보여준 소설은 특색있는 사건과 인간관계설정과 형상으로 새로운 감흥을 자아내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평범한 중학교 음악교원인 주인공 김연이가 적들의 내부에 잠입하여 반탐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도중 동지들에게 무선전파로 마지막말을 남기고 원썬들과의 결전에서 장렬하게 희생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소설은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연이의 생활전반을 라렬하지 않고 내무성협주단의 지휘자 유철이 자기에게 보내온 악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는 계기속에 함축시켜 보여주었다.

정서적인 감흥을 자아내면서도 속도감이 있고 오해에 의한 특색있는 인물관계에서 두드러지는것은 역시 주인공 김연이의 성격이었다.

영웅에 대한 형상에서 그 어떤 비범한 기질이나 영웅적행동에 대한 형상에 못지 않게 소박하면서도 순결한 인간적미에 대한 진실한 형상이 불러일으키는 감동은 크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관계의 설정들을 보자. 주인공 연이는 전문교육을 받은 작곡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내무성협주단의 지휘자를 감동시키는 협주곡, 나서자란 정든 고향에 대한 추억속에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원썬격멸의 성전으로 부르는 명

곡을 창작한다.

그는 탐정가의 기질을 지닌 반탐일군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정찰일군도 침투하기 어려운 적들의 정보국에 발붙이고 내무성반탐국에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보낸다.

중학교 음악교원과 내무성협주단 지휘자와의 사랑은 서로 알게 된지 얼마 안되지만 행복한 태일을 함께 설계하는 절정으로 치달아오른다.

이렇게 작가는 인물관계속에서 선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의 무한한 헌신의 열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작품에 펼쳐진 인물관계설정이 생활의 본질적인것과 일치되면 작품이 진실하게 된다.

또한 작품에서 주인공 연이의 성격과 운명선에서 특색이 있는것은 주인공의 남다른 성장과정과 그 과정에 형성된 개성적성격을 통하여 그 진실성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이다.

세살적에 황해도일대를 휩쓴 열병에 일가식술을 다 잃은 소녀, 성도 없이 《연》이라는 이름 한글자만을 가지고 떠돌이하며 살다가 여섯살적에 지주첩년의 집 아이보개로 들어가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던 주인공이, 해방후 부모조차 모르던 연이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전환된다.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나날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원으로부터 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새 조국건설의 기둥감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이라고, 학교에 보내여 꼭 공부시키라고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여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벽성읍중학교 음악교원이 된 그였다.

《전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에 의해 다시 태어난 운명입니다. 전 영원히 장군님의 딸이에요.》

이것은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던 날 자기의 성을 김가로 해줄데 대하여 청원하면서 그가 한 말이다.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속에 다시 태어난 운명!

이것이 바로 주인공 김연이의 성격의 핵이며 그의 헌신과 투쟁의 기초인것이다.

조국은 자기의 목숨보다 귀중하다는것을 자기의 뼈저린 체험으로 간직한 처녀이기에 그 뜨거운 사

랑의 심장속에 간직된 선물은 그의 숨결이었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성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는것이다.

영웅에 대한 특색있는 형상창조의 방법론은 작가들이 고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영웅적투쟁과정의 라렬이 아니라 독자들의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영웅의 성격에 공감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형상하는것이다.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영웅적성격으로의 비약적인 성장과정이 진실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진 작품이야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할 수 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연이의 개성을 여러 생활단면들에서 집중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천성적인 재능을 가진것으로 하여 해방전 지주의 첩년을 배워주러 왔던 음악선생을 놀라게 한 연이었다.

꿈이 짓밟혔던 소녀, 그러나 해방후의 행복한 생활속에서 그 꿈은 아름답게 꽃피어 열매를 맺는다.

연이는 1949년 가을 내무성협주단의 소련대공연을 보고 지휘자를 만나고싶어 찾아갔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별장에서 한무리의 적특공대와외의 접전끝에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유철이 경찰조의 구원을 받고 퇴원하여 그를 찾던 도중 해주의 청풍려관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살구나무밑에 선 군관이 그토록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옳지 않을가 확인하고싶은듯한결음, 두결음 다가서던 연이는 한순간 전율하며 뒤걸음쳤다.

〈유철선생님?...〉》

공작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처녀인것이다. 예상치 않은 그 어떤 정황에도 준비되고 세련된 반탐일군이라기보다는 사랑과 그리움에 애를 태우는 자기의 심중을 어떻게 감추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순박한 처녀였기에 후날 협주단작곡가로 소환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환희에 차서 래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슴설레이기도 한다.

결국 그는 타고난 영웅이 아니었다.

남달리 음악을 사랑하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악가와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래일에 대한 꿈을 소중히 간직한 내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처녀였다.

강철같은 기질을 지닌 반탐일군과는 거리가 멀다 고밖에 볼수 없는 이러한 형상들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친근하면서도 주인공의 비약적인 성격발전과

정을 진실한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있다.

그것은 작곡가로 소환되는 소환장을 받게 되는 전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후로 떠나려는 연이가 유철에게 하는 대사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시고... 고아의 작은 재능도 몰힐세라 학교에 보내주고 음악교원으로 키워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집과 학교가 불타버릴 때 전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조국을 지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용서하세요. 전 생명을 버릴지언정 제가 지켜선 전호를 버릴수 없어요. 그건 조국앞에 죄되는 일이에요.》

우리 인민을 조국수호의 영웅적인민으로 키운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은 이처럼 소박하고도 비상한 영웅에 대한 형상속에서 전형화되고있다.

이렇듯 주인공 연이의 형상이 진실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심장에서 태어난 선물도 아름답게 흘러든다.

그 어떤 재능만으로는 창조할수 없는 선물, 오직 귀중한 체험속에 간직한 뜨거운 사랑의 심장에서만 태어날수 있는 선물이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인것이다.

결국 연이의 피아노협주곡 《사랑하는 내 고향》은 그 어떤 음악교원의 재능이 아니라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명곡으로 조국해방전쟁사에 새겨진것이다.

이 작품의 경험은 성격형상이 진실하고 계기의 설정과 개성적인 성격의 발전과정들이 하나로 조화되면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해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주요계기들의 설정은 생활의 논리에 따르는 진실한 형상으로 담보될 때에만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독자들의 심중에 친근하게 새겨진다. 대담한 설정일수록 진실한 형상을 따라세울 때 성공을 기대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이 연이의 성격발전을 좀더 생활적으로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유철의 시점에서 생활을 함축비약하면서 성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들을 선택하여 묘사한 작가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선언적인 형상이 아니라 좀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충격적인 성격발전과정을 그린 세부를 보여주었으면 좋았을것이다. 그리고 연이의 희생장면을 특색있게 그리려 했지만 여러 소설들에서 본 그러한 장면과 다른것이 없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 인민

수 리 개

홍 성 두

흰안개 걷히는 전선고지 하늘가에
수리개 한마리 높이 뿔다
거센 발톱을 깃속에 감추고
어딘가를 노려보며
유유히 허공을 도는 수리개

너 지금 무엇을 노리느냐
출전의 용맹 터질듯 넘치는
허공을 걷어안은 두날개
너의 그 모습에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이여

우리 중대 전투기록장에
오늘도 살아있는 용사들의 그 모습
전화의 나날 수리개
네 이름으로 불리우는 정찰조가 있었다

적진에 한번 내려퍼면
못 잡아오는 허가 없었고
적후에 또 한번 내려퍼면
어둠속에서도 번개같이
적의 엄통 도려오군 하였다

중대의 자랑이던 수리개
사단에 소문 자자했던 수리개
그 이름은 슬기와 용맹
불굴의 투지의 대명사였거니

비내리던 어느날 밤
수리개정찰조의 한 전사
적의 총탄에 그만 쓰러졌다
피젖은 군복 헤쳐 정찰자로 넘겨주고
전우들을 떠밀었다 어서 전선을 넘으라고
뒤이어 산발을 뒤흔든 폭음 폭음...

피눈물 삼키며
사선을 헤쳐넘은 전사들
보물진 군용지도를 꺼내놓고
거기에 지명 하나 새로이 적어넣었다
수리개의 이름을 담아 수리봉
용감한 전사의 피가 스민 그 봉우리

오, 몇이더냐 그 몇몇이더냐
조국위한 싸움에 한목숨 기꺼이 바친
전사들의 위훈짓는 곳
그런 봉우리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이 나라의 높고낮은 산발들
승리의 봉우리로 거연히 솟아올랐거니

지지 않은 수리개의 넓이여
세월을 넘고넘어
새 세대 병사들의 가슴에
백배천배로 세차게 퍼덕이며 내려치는 넓이여

이제 판가리 최후결전의 그날이 오면
우리 전화의 용사들처럼 싸우리라
한번 펼친 위훈의 나래 용맹의 나래
불속에 탈지언정 그 나래 꺾이지 않는
땅우의 용맹한 수리개
조국의 참된 아들 되려니

흰안개 걷히는 전선고지 하늘가에
거센 발톱을 날카로이 쳐들고
원췌를 노려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기회를 노려
불덩이로 날으는 오, 수리개
병사의 서리찬 기상 네 모습에 어렸구나!

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수호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진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전화의 그날에 간직된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김정일애국주의의 뜨거운 열풍으로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성스러운 조국통일성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

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길에 있는 오늘의 시대는 조국수호의 영웅들을 참신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단순히 계기설정과 조화로운 형상이라는 창작기교상문제로만 되지 않는다. 그것은 김정은시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적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사적사명을 지닌 우리 작가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겁고도 참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될것이다.



생활의 수업

김 성 운
그림 김 광 석

아버지는 자신을 죽지가 꺾인 새라고 했다.
간혹 한잔 마셨다든가, 그 무슨 울화가 치밀 때
면 드문히 할아버지를 곁들며 신세타령을 하곤 했
다. 뒤끝엔 이런 원망을 터치고...

《미물인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선 목숨까지 서
슴없이 내댄다고 하더라. 그런데 네 할아버진 너
무해!》

어찌하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곤 했던지? 철없
던 시절엔 잘 이해되지 않았다. 허나 아버지가 입
버릇처럼 외우던 그 죽지를 다름아닌 할아버지가
꺾어놓았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이란...

1

고민은 제대후 나의 배치문제를 론하는 그때부
로 시작되었다.

나의 배치를 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상
반되는 립장과 태도를 보였던것이다.

《뭐?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장대학을 다니겠다
구? 썩 그만뒀라!》

아버지는 대변에 머리를 도리질했다. 얼굴엔 어
처구니가 없어하는 기색이 력력했다.

《아버지, 이걸 제가 제대되어 새롭게 굳힌 결
심인데.》

나는 제대배낭을 성강에 풀어놓기로 작정했다.

용해공으로 일하면서 공장대학공부를 할 생가
이다.

용해장에서는 기능을 익히고 대학강의실에서는
학문의 세계를 파고들리라. 제대군인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조성》, 《조문》에 생활의 두 목표를 단
번에 재워넣은셈이다.

지식경제시대에 사는 청춘이라면 그가 누구든 이
런 생활관을 지녀야 다면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변
모되는 오늘의 현실에 대처할수 있다고 믿고있다.

하기에 나는 내판의 주장을 그대로 터놓았다. 어
처구니가 없어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말이다.

《한대의 화살로 쫓도 매도 다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흘겨봤다.

당당한 제대군인이 뭐가 모자라 중앙대학의 대학
생이 되기를 마다하는가?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일
등바보, 현실사고의 음치 등 아버지의 질책과 힐난
이 무수한 파편처럼 날아왔다.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했다. 사실
제대후 나의 장래를 두고 누구보다 많은 원심을 쓴
아버지였다. 여기저기 부락도 하고 몸살이 날 정도
로 전화성화를 먹이며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또
나한테 보내오는 편지마다 제대되면 대학공부가 급
선무라는 당부를 곱씹곤 했다.

제대증과 대학추천서를 동시에 받아친 나는 의기
가 양양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며칠새
에 내 마음이 지짐짝 뒤집히듯 휘뼉 돌변했으니 부
모로서 화를 낼만도 했다.

《대학생이든 용해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배포유한 나의 태도에 아버지는 도리머리를 저으

며 입을 다시기까지 했다.

《금방 제대된 네가 알턱이 없지, 사회생활의 진짜 밑천이 어떤 건지를.》

《밑천이요?》

《그건 바로 대학졸업증이야. 너 이제 중앙대학 경력까지 척 갖춰봐라. 네 전도는 물론 모든 생활이 얼음판에 박힐 듯 될 텐데... 요즘 제대군인들은 너처럼 사회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탈이야.》

《사회생활이요?》

나는 두눈을 치켰다. 그리고는 고개를 기웃했다.

《그래도 할아버진 내 결심을 대뜸 지지하더군요. 현장에서 일할바엔 이왕지사...》

《할아버지가?》

별안간 아버지는 나의 말허리를 툭 꺾었다. 잠시 미간을 찌프리며 야릇한 눈길로 나를 응시하던 아버지가 입귀를 실룩거렸다.

《그런즉... 할아버지가 너한테 침을 뱉구나.》

《이건 제스스로 내린 결심입니다.》

《그 성미를 몰라서? 이젠 손자까지 쇠물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 잡도리로구나.》

아버지의 어조엔 마뜩지 않아하는 기분이 다분했다.

《?》

나는 의혹이 짙어가는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말을 내비치기 바쁘게 괜히 심기가 불편해하는 아버지, 무엇보다 내 결심을 굳이 할아버지와 결부시키며 저렇듯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여전히 골살을 찌프린채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있던 아버지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너무하구나. 이젠 손자의 죽지까지 꺾어 놓셈인가?》

그 말에 나는 편똥 머리를 들었다. 그제서야 내가 인민군대에 나가기 전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던 것이다. 무슨 리유때문인지 알수가 없었지만...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 불만감이 해소되지 않았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답답해왔다. 나는 목깃단추를 더치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아버지처럼 한생을 용해장에서 산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온 성강이 할아버지를 존경하는데...》

《그래, 모두들 존경하는 건 사실이야.》 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도 마땅히...》 나는 다음 말을 채 이을수가 없었다. 나를 뚫어지도록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서슴어

졌던 것이다.

《?...》

《?...》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납덩이같은 공기만 무겁게 떠도는 듯싶었다.

한참만에야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상외로 차분한 어조였다.

《철준아, 너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이니 기쁨이 뭔지 아니?》

《...》

《그건 제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거란다. 자식의 행복이나 기쁨을 위해선 타산을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너도 알테지, 네 부탁이나 요구를 못 들어주면 밤잠을 못 자던 이 아버지의 성미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나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 이제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생활을 해볼 결심입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며 싱긋 웃기까지 했다. 좀처럼 미간을 찌지 못하는 아버지를 농쳐줄 마음에서 말이다.

《난 네가》 더 말하기 귀찮은 듯 손을 가로졌던 아버지는 몸을 돌리며 한마디를 툭 내던지는 것이었다.

《넌 제발 할아버지를 닮지 말아!》

《?...》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돌미륵처럼 굳어져버렸다. 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나의 귀전엔 아버지가 던진 말마디들만 뱅뱅 맴돌며 공명을 일으키고있었다.

생활이란 참, 세상에 이렇듯 묘한 생활의 일치도 있는가...

《할아버지를 닮지 말아!》 방금전 아버지가 한 말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던가.

《아버지를 닮지 말아!》라는 말을.

삼거웃처럼 엉켜도는 상념은 알망곳게도 나의 몸을 짝 부여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눈앞으로 그때 일이 새록새록 밝혀왔다...

제대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 이튿날, 나는 제강소를 돌아보았다. 이를테면 참관이라고 할가. 제대병사의 자격으로 말이다. 그 참관의 말기자는 할아버지였고 안내자 역시 할아버지였다.

중학교졸업후 처음으로 다시 밝아보는 공장구내 길이었다.

불보라를 사방으로 휘뿌리며 폭포마냥 쏟아지는 전기로의 주홍빛 쇠물이며 압연기에서 미끄러져나와 엿가락마냥 고분고분 휘감기는 강재통구리들, 쉬궁- 쉬궁- 허연 증기를 물씬물씬 내뿜으며 만능집계에 물린 잘 익은 강피를 연해연방 내리치는

공기함마들… 귀전에 들려오는 로동의 활기찬 음향들과 눈앞에 안겨오는 공장구내의 모든 정경이 애뜻한 감회를 불러왔다.

《그새 우리 성강이 몰라보게 변도됐구만요.》

나는 놀라움에 찬 탄성을 연방 내질렀다.

《그래… 많이도 달라졌지.》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였다. 제잡담 흥분과 격정으로 떠들어대는 나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주름잡힌 눈가에 기쁨의 미소가 잔줄거리고있었다. 아마도 이 손자와 함께 공장구내를 걷는다는 격세지감이 불러온 기쁨과 흥분의 여파인 듯싶었다.

《허허… 꿈만 같구나. 이렇게 만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손자와 함께 구내길을 걷게 되다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바짝 다가선 나는 다정히 팔을 껴다. 천천히 걸음을 내질던 나는 온몸을 휘감는 그 어떤 느낌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들먹한 걱정이 파도를 불러왔다. 할아버지의 방열복냄새가 나를 취하게 했던것이다.

시큼털털하면서도 쫄쫄한 땀내와 쇠물가스의 알싸함이, 쇠비린내가 서로 혼탁된 작업복냄새… 어린시절 용해장에 갈적마다 말곤 하여 뇌리에 깊이 새겨졌던 그 냄새 그대로였다.

아, 땀에 절고 쇠물의 뜨거운 열기가 땀 방열복냄새, 그것은 할아버지한테서만 풍겨오던 할아버지 고유의 체취였다. 아니, 한생을 쇠물과 운명을 함께 해오는 할아버지의 넋이 스며있는 로동의 향기, 인생의 향기가 아닐까.

어린애마냥 방열복자락에 슬며시 불을 갖다댄 나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나서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혼련으로 군복이 땀에 폭 젖을 때마다… 전 할아버지방열복의 이 땀내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습지요.》

《너석두…》 할아버지는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떠올렸다.

쫄쫄이장난으로 해저무는줄 모르던 그 시절, 나는 제강소담장에 생긴 개구멍을 다람쥐마냥 자주 넘나들었다. 구내안에 들어서면 나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용해장부터 찾아간다. 쇠가루먼지로 매닥질을 한 얼굴을 해가지고 용해장에 나타나 어슬렁거리는 나를 띄여보면 《이녀석, 숙젠 안하구 또 개구멍을 넘어왔구나.》하면서 내 엉덩짝을 철썩 갈기던 할아버지, 이어 나를 땀각수가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할아버지가 얼굴을 씻어줄 때면 나는 고개를 뒤틀거나 몸을 뒤로 체치곤 했다.

《이것 보지,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게 씻어주는 데 엄살을 피우는걸.》

《아파서 안 그래. 할아버지웃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 나는 코를 찡그리며 대꾸했다.

《철준아, 이 냄새 바로 용해공냄새란다.》

《용해공냄새?》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코를 벌름거리곤 했다.

《너 이담 용해공이 되겠다구 했지. 이 냄새 싫어하면 용해공이 못돼.》

《정말?》

《그렇잖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친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준다. 그다음 할아버지가 떠주던 얼음까지 동동 뜬 달고 시원한 탄산수, 너무 커서 바지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 짹짹거리며 땀손에 움켜쥐던 빨간 사과… 이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인 나에게 베풀던 사랑이었다. 추억이었다.

구내안으로 흐르는 송령천을 가로지른 은덕다리를 건너서자 할아버지는 회전로를 가리켰다.

《머지않아 여기가 성강의 중심이 될게다.》

우람찬 회전로가 천천히 도는 모양을 흥미있게 지켜보던 나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제강소에선 강철직장이 기본이 아니나요?》

철의 도시에서 나서자란지라 나도 공장물체는 대충 알고있는터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1호회전로쪽으로 이끌었다. 회전로꼬리를 뭉쳐 팔라내고 그밑에 들어앉힌 로형체가 안겨왔다. 산소용융로라고 했다. 그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구작작 붐비고있었다.

여기저기서 평갯거리는 용접섬광, 호각소리, 웨침소리, 전동기소리, 제판물 부딪치는 소리 등 그 모든 혼잡을 짓누르며 자동차기증기가 우르릉, 우르릉 용을 쏜다. 길게 내뿜친 노란 팔에 매달린 제판물이 허공중에서 핑그르 움직이고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소용융로를 가리키며 머지않아 여기서 세상을 깜짝 놀래울 사변이 터질거라고 했다. 새로운 주체철이 나온다는것이다. 정말 콧수레가 없어도 주체철이 쏟아진단 말인가! 듣기에도 회한했다.

나는 무작정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혼잡속에 뛰어들었다. 주체철을 만드는 일에 한방울의 땀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것 같았다. 함마를 세판게 휘두르기도 하고 축로공들에게 내화벽돌을 섬기기도 했다.

한켠에선 여러명의 사람들이 도면을 펼쳐들고 무슨 토론을 열심히 하고있었다. 보매 기술자들인듯싶었다. 한동안 그들을 눈여겨 바라보던 나는 할아버지한테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저 산소용융로를 자체로 만들었습니까?》

나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도 한몫 했겠구만요. 아버지 오래전부터 야금설계원으로 일해오는데…》

땀을 닦으라며 나한테 수건을 내밀던 할아버지의 손이 무뎠다. 웬일인지 얼굴색이 컴컴한 빛으로 변해갔다. 한참만에야 할아버지는 머리를 무겁게 가로저었다.

《이 산소용용로엔… 네 아버지뚱은 없다.》

《?…》

《네 아버지…》

할아버지는 말쑥한 머리를 떼다 말고 잠시 나를 지켜보만 했다. 이윽고 그 무슨 다짐을 주듯 또박또박 말마디마다 그루를 박는 것이었다.

《철준아, 너도 군사복무를 했으니 어린할테지. 허나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 이 할아버지말을 명심하거라.》

《…》

《대학엘 가든 무슨 일을 하든간에… 사람은 늘 빛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빛진 마음이에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건 이 가슴(할아버지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에 사회를 안고살라는 소리다. 제 집일보다 공장일,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는게 남자란다. 거기서 제 뚱을 찾아야 하고… 그런데 네 아버지…》

속상한듯 머리를 가로저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었다.

《넌 아버지를 닮지 말아!》

화제가 별나게도 번져갔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만충전으로 양양되었던 흥그러움이 일시에 식어지는 듯 했다.

문득 할아버지한테 꼭 묻자던 말이 떠올랐다.

제대배낭을 메고 집에 도착한 어제부터 줄창 속으로 버르던 물음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자주 노엽혔나요?》

《?…》

할아버지가 놀라운듯 눈길을 들었다.

사람은 늙게 되면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기 마련이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간 다음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집안의 맏이인지라 우리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제대되어 집에 와보니 할아버지는 막내딸인 작은고모네 집으로 옮겨가 산다고 했다. 그 사실앞에 상봉의 기쁨이 서운함으로 바뀌던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고모한테로 옮겨갔을까?

《할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정말 섭섭하더군요. 이렇게 묻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별치 않은 일을 놓고도 가끔 다투곤 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

할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굳어졌다. 놀라움이 응

집된 주름잡힌 눈가에서 파르르 경련이 일고있었다. 얼굴이 점점 괴로운 빛으로 변해갔다. 온몸의 기운이 풀썩 꺼져버린듯 별스레 어깨마저 처져보이던 할아버지. 부연 재빛을 띤 두눈가엔 고뇌의 빛이 떠돌고있었다.

《내가 용해장에서 쇠물내를 석삼년쯤 말아보느라… 그때쯤이면 너도 모든걸 알게 될게다.》

《…》

《내 잘못이 더 크구나, 무슨 호박도 냉쿨채로 그냥 놔두면 가을에 가선 저절로 굳을거라고 방임했으니. 그런데 네 아버지…》

머리를 무겁게 가로저던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같은 말을 곱씹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너도 사회생활을 시작할텐데… 아버지 닮지 말아.》

사실 공장참관의 그날에 나는 제대목표를 바꿀 생각을 굳혔다. 중앙대학입학시험을 포기하고 용해공으로 일하면서 공장대학에 다닐 결심을 했던 것이다. 또 우리 집안에 칭칭 얹혀도는 불신의 매듭, 생활의 매듭이 무슨 원인으로 생겨났으며 그 매듭이 풀리기는커녕 왜 여직껏 움매어져왔는지를 파헤쳐볼 생각과 함께…

2

《할아버지를 닮지 말라!》던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를 닮지 말라!》던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때없이 자신에게 던져보는 물음이다. 한켠으로 생각하면 좀 맹랑한감이 들기도 했다.

그래 내가 한피줄을 이어받은 부모들을 닮지 않고 누구를 닮는단 말인가.

유전학적으로 놓고봐도 그렇다. 나는 생김생김은 물론 걸음새마저도 아버지와 신통했다. 오죽하면 생면부지의 사람까지 우리 부자간을 얼핏 띄어보고서는 대뜸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정말 신통하구만!》하며 혀를 찼다고 한다.

성격은 또 어떠한가. 나한테는 무슨 일이든 남한테 지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소학교때 있던 일이다. 어느날 나는 학교로 가던 길에 딱지치기놀음에 끼여들었다. 현대 공교롭게도 호주머니에 불룩했던 딱지를 말짱 때우게 되었다. 패배의 수치감에 씨근덕거리던 나는 주저없이 책가방의 학습장을 꺼내 뜯어내기 시작했다. 한편, 두 권… 결국 책가방의 학습장들이 모두 딱지로 변하는 수난의 과정을 거쳐서야 나는 간신히 승리자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일때문에 나는 학교는 물론 집에서든 눈물을 똑똑 떨구며 되게 졸경을 치

려야만 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회초리에 얻어맞아 퍼렇게 멍이 들고 툇툇 부은 내 종아리를 쓸어만지며 《이녀석, 오늘 그 못된 버릇이 꼭 떨어졌을테지... 헌데 남한테 지지 않겠다는 배짱만은 꼭 나를 빼놓았거든!》하면서 굳잠이 든 나를 대견한 눈길로 지켜봐다고 한다.

《...답지 말라!》

이 찝막한 네글자를 씹어볼수록 나는 어쩐지 부모들의 편견적이며 보수적인것 같은 견해가 마음에 싸지 않았다.

사람마다 생활의 옳고그름을 재는 제판의 자막대기를 가지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어떠한가. 저마끔 자기식의 자막대기를 나한테 내밀며 그걸 기준으로 사회생활을 인식하고 평가하라고 요구하니 참, 세상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설사 있다 한들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할수 있으며 두벌자식인 이 손자가 더 굽다며 온갖 사랑을 다 기울이던 할아버지를 외면한단 말인가? 생각의 가지들이 두서없이 겹칠 때마다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가로 흔들곤 했다. 마음속 번거로움을 잊고저 말이다.

허나 생활은 이를 조롱이나 하듯 우리 집안에 잠재하고있던 뎡전을 종종 나를 가운데 가져다놓고 격화시키곤 했다.

공장대학에 입학하여 첫 수업을 받은 날이었다.

아버지가 뜻밖에도 번쩍거리는 휴대용컴퓨터를 내놓는것이였다.

《자...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주는거다.》

《이거 새거로구만요!》 나는 알뜰한 휴대용컴퓨터를 쏘아보며 뜻밖에 차례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생이 되여 중앙대학으로 떠날때 주자고 미리 사두었던 컴퓨터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뒤집는통에 홀 없애고픈 마음이 울퉁울퉁 치미는걸 겨우 눌렀다고 했다.

아직도 나의 처사를 두고 분을 삭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아들을 위하는 마음만은 어쩔수 없는 모양이였다.

《요즘 대학생들은 컴퓨터열병을 앓는게 류형인것 같더라. 아마 컴퓨터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것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듯 헉헉한 표정을 지으며 뒤말을 이었다.

《너를 남보란듯이 내세우고싶어 사둔거란다. 지내놓고보면 부모들은 사는 재미, 생활의 재미를 이런데서 찾는것 같애. 가만.》

말을 하다말고 아버지는 손전화기까지 나한테 덤석 안겨주었다.

《래일부터 이 손전화기도 가지고 다니거라.》

《손전화기두요?》

두눈이 대번에 휘둥그레졌다. 나는 휴대용컴퓨터와 손전화기를 번갈아보다가 머리를 들었다. 자식한테 쏟아붓는 부모의 사랑이란 이런걸가. 마음이 별스레 시큰해났다. 두눈을 습벅이던 나는 손전화기를 도로 아버지한테 내밀었다.

《아버지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이 손전화기 아직... 저야 갓 제대된 몸이 아니나요. 아는 사람도 별반 없고 전화할 일도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 아직은 별로...》

《받아두거라. 방금 말했지? 네가 남들속에 빠질가봐 돈을 썬에 넣지도 않고 산진데.》

아버지의 말에 나는 픽 웃었다.

《이런게 없다고 제가 뭐 속에 빠지겠나요.》

아버지는 년장자다운 아량이 내비치는 표정으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생활이란 그렇지 않아. 뭐가 모자라 남들이 다 누리는 생활의 권리를 마다하겠니.》

《생활의 권리요?》 내가 머리를 기웃하는데 《어힘!》하는 헛기침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이어 할아버지가 방안으로 들어서서는것이였다. 손에는 여라문권되는 학습장꾸레미를 들고서. 보배대학생이 된 나를 축하해주려고 온 자세였다.

《할아버지가 오셨군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밤중에...》

그러나 할아버지는 뭔가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우리 부자간의 인사도 받는등마는등 했다.

《난 저녁식한테 허영심부터 자랄가봐 걱정된다.》

아마 문밖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였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허영심이라니요? 아버지 안할 걱정을 다하십니까. 우리 철준이야 지금껏 군사복무밖에 몰랐을게 아닙니까. 지금 한창나이인데 보란듯이 내세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거지요.》

《그게 바로 문제야. 저 앤 금방 제대됐으니... 현장일도 그래, 대학공부도 모두 낫설기만 할게다. 그러니 착실하게 배울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지. 시작부터 걸멋이나 피우게 할셈이나?》

할아버지의 음성은 마디마디 노기가 섞여있었다.

《할아버지, 지금은 지식경제시대가 아니나요. 그리고 나도 이젠 대학생이니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식경제시대라는 말에 력점을 찍었다. 이젠 나이도 어지간히 많은 할아버지가 오늘의 현대생활을 다는 리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아버지도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아버지도 알고있을겁니다. 그전하고는 판판 다르지요. 나도 이제 한물 켜 정도로 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아버지, 젊은것들 일에 자꾸 참견하면 미움깨나 사기십상입니다.》

《미움깨?》

할아버지의 슬건 눈섭이 꿈틀했다. 잔주름이 덮인 눈시울이 푸들푸들 떨기까지 했다. 성이 날 때면 눈시울부터 떠는 할아버지였다.

《그럼 하나 묻자. 넌 젊은것들 미움깨를 받기 싫어 한사코 산소용융로설계를 외면했느냐?》

《아니, 그거야…》

할아버지는 증언부언하는 아버지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버리며 손전화기를 가리켰다.

《넌 자식을 위해 돈은 썬에 넣지도 않았는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철준이의 허영심에 부채질이나 하는거지.》

《아버진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을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아버지는 섭섭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씩씩한 웃음을 띄우며 말을 이었다.

《이젠 그만 진정하십시오. 누가 들으면 집안싸움이나 하는줄 알겁니다. 귀여짜면 아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마음밖에 남는게 없을텐데.》

그날 밤 나는 쉬이 잠들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온밤 뒤치락거리기만 했다.

저녁일을 놓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해일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던것이다. 어쩐지 할아버지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골방이를 했다.

어찌하여 자식한테 기울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도 못마땅해하는지? 산소용융로설계를 꼬집으며 아버지를 질책하던 할아버지. 지금도 아버지가 산소용융로설계연구조에 망라 못된 사실이 현실도피의 처사로 생각되어서일가?

나 역시 산소용융로용해공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그 의혹을 내비친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

《제강소사람치고 주체철이 하루빨리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은걸.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손과 발을 가리켰다.

《이 손과 발이 한몸에 붙어있다구 사명도 같은 건 아니야. 제각기 알맞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삼척동자도 알고있을거다. 사회생활도 같고같다. 네 말대로 주체철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고있던 대상설계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것 같니. 알다싶이 강철생산은 국가계획이야. 국가계획은 곧 나라의 법이고… 온 련합기업소가 생산을 체쳐놓고 주체철시험만 할수는 없어.》

일리가 있는 말인듯 했다. 그날 나는 산소용융로설계와 련결된 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소롯이 풀리

는것을 안도감을 가지고 감수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립장은 여전히 끈은목 한가지였다. 어째서 할아버지는 사업과 생활을 좁이 흐르고 감칠맛이 있게 융해시키려 하지 않는지? 확실히 할아버지한테선 생활을 아기자기하게 대하는 그런 멋을 찾아보기가 드물다.

불현듯 군대로 나가기 전에 있었던 나의 생일날이 떠올랐다.

《철준아, 멀지 않아 군대로 나가게 되지. 그래서 이번 네 생일엔 온 가족이 바다가에 가기로 했다. 해수욕도 하고 설죽이랑 쭈면서… 군대에 나가서도 두고두고 기억나게끔 조직하느라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말에 나는 탄성을 질렀다.

《히야! 해수욕두요?!… 그럼 정말 기억에 남을 거예요.》

설계원이라는 직업적타성이 가져다준 습관이라고 할가. 아버지만큼 가정생활을 기쁨이 찰찰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빈틈없이 설계하고 꼼꼼히 조직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우물렁거리기 좋아하는 시절이었어도 나는 아버지의 그 다심한 사랑에 코마루가 다 시큰해오던것을 어쩔수 없었다.

《기억이란 오랜 세월이 흐른대도 영원히 퇴색을 모르는 마음의 사진이거던!》

그때 아버지는 이런 멋들어진 말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별로 흥취가 나지 않는 기분으로 생일날을 보내야만 했다. 할아버지때문이였다. 무슨 영문인지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가끔 조직하는 화락한 가정적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도설을 피운다면서 말이다. 그 성미를 아는지라 나는 일부러 융해장걸음까지 했다.

《할아버지, 래일은 내 생일이예요.》

보호안경을 낀채 로안을 들여다보며 쇠장대를 휘젓던 할아버지가 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군대로 나가기 전에 쇠는 생일이란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대견한 빛이 어렸다.

《군대로 나간단 말이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고난 할아버지는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떠올렸다.

《래일 꼭 시간을 내마. 우리 말손자가 군대로 가기 전에 쇠는 생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축하해야지.》

허나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발전기타빈용 새 강종시험융해때문에 현장을 뜰수가 없었다는걸 후에는 알았지만.

나는 온종일 할아버지를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섭섭하기 이틀데 없었다. 바다가야유희도 썩 기분이 나지 않았다. 노란 조개살이 다문다문 뒤섞이고 고소한 냄새가 감미롭게 풍기던 설죽조릇에도 숟가락을 대는등마는등 했다.

저저마다 숟가락을 대신한 섭조개껍질을 후후 불어대며 맛나게 섭죽을 먹는 좌중을 만족스럽게 둘러보던 아버지가 나를 재촉했다.

《섭죽이 식기 전에 어서 들러무나.》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제강소쪽으로 난 길에 자꾸 눈길을 주기만 했다.

《철준아, 할아버진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겠지.》

고모가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며 내 손에 섭조개껍질을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섭죽그릇을 내앞에 바싹 당겨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너도 알지. 쇠물밖에 모르는 할아버지성미를 말이야. 오래전 일이다만… 그게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몇년 잘된 뒤였어.

하루는 네 아버지가 할아버질 장가보낸다는게 아니겠니? 제강소책임비서동지가 직접 나서서 할아버지한테 알맞춤한 대상을 골랐다면서. 벌써 네 아버진 그 대상자를 만나보고는 찬성까지 했다는데 참, 남자들이란 정말 엉큼하더구나. 글썄 할아버지와 살게 될 녀인을 집에까지 척 데려왔더구나. 어디 상업관리소 소장을 한다던지. 나인 오십대중반 쯤 됐을가, 생긴 용모도 펍 무뎌해보이더구나.

그러나 처음 이 고모는 네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지. 어쩌면 자식이 땅속에 누워있는 제 어머니를 모욕할수 있는가고 말이야. 눈물까지 흘리며 말이야. 그런데 네 아버진 이런 말로 나를 질책하지 않겠니. 〈나도 먼저 눈감은 어머니한테 죄되는 일인줄 안다. 그럼 아버질 누가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우리 자식들 몫이야. 아들로서 정말 생각이 많아진다. 어머니가 없으니 말도 더 없어지고 별스레 늙은것 같은 아버지를 보기가… 그뿐인줄 아니? 웬간한 일이 없으면 집에 통 붙어있으려 하지 않으니 참, 그게 무슨 생활이겠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가정을 이루어드릴 생각을 했다. 아버지한테 생활의 락을 안겨주고싶단 말이야. 이게 자식된 도리거던.〉 그러나 어디 할아버지가 통 마음을 움직여야 말이지. 우리 자식들은 물론 제강소일꾼들까지 나서서 해설도 해보고 설복도 했지만 할아버진 그냥 도리머리를 쪼터구나.

나중엔 우리가 막 성까지 냈드랬어. 자식들의 마음을 왜 알아줄념을 앓는가고 하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하던 말이 참 기가 막혀서… 〈고맙구나, 너희들의 그 성의가… 아마 기억날거다. 언젠가 너희엄만 내가 노상 용해장에만 붙어있으니 혹시나 해서 의심까지 했었다. … 후날 너희 엄만 우스개말로 내가 안해보다 쇠물에 더 반해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더랬지. 로친네가 옳게 보긴 봤어. 하루라도 용해장쇠물구경을 못하면 무엇인가 꼭 잃어버린것 같고 마음이 통 진정되지 않으니 참… 이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떼기 힘들구나. 그러니 너희

들이 이 아버질 이해해다구.〉 철준아, 그때나 지금이나 할아버지성민 정말 여전하구나.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이해할수밖에…》

《리해를 해야지.》

결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한잔 했는지라 별경계 상기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나를 건너다보던 아버지는 머리를 주억거렸다.

《오늘이야 철준이 생일인데. 이 좋은 분위기를 흐릴 필요는 없는거구… 헌데 안타깝거던. 쇠물도 뽑고 이렇게 자연에 취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사는 생활의 재미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참.》

그날 아버지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차기까지 했다. …

나는 그만에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가로 비쳐든 새벽달빛이 책상위의 컴퓨터와 손전화기에 푸릿한 음영을 던져주고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점도록 바라봤다. 온밤 뇌리에서 오락가락하던 희미한 룡판이 차츰 선명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다 음순간… 나는 저 혼자 머리를 가로저었다. 애써 잠기를 털어버리며 밤새껏 모대기던 의문점에 답을 낸다는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던것이다.

진정 사는 재미, 생활의 재미란 과연 어떤걸까? 또 그 재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맛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느껴질까?…

3

현장체험과정은 나로 하여금 다색단마냥 엇갈려 비쳐드는 생활속에서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기만인가를 깨우쳐주는 나날이기도 했다.

《어머니, 나 저녁밥을 빨리… 이제 산소용용로에 나가야 하거던요.》

대학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나는 어머니를 재촉했다.

서둘러 밥상을 차린 어머니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여주며 걱정스러운 낯빛을 지었다.

《밤도 깊어가는데… 오늘은 집에서 푹 자렴.》

《나가 봐야 해요. 며칠후에 주체철시험용해가 있거던요.》

나는 부지런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대꾸했다.

《넌 꼭 할아버지라니까. 용해장에 재미를 붙인걸 보니…》

《내가요?》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로동과에서 배치장을 받아쥘던 날.

나는 용해장결음부터 했다. 어쩐지 할아버지앞에서 좀 빠기고싶은 생각이 앞서서였다.

마침 할아버지는 3호전기로앞에 있었다. 보호안경너머로 로안을 들여다보며 용해공들에게 무엇인

가 열심히 이야기하는중이었다. 쇠물색갈만 보고서도 함금배합비율과 쇠물온도, 출강시간이 언제쯤 되는가를 척척 가려낼만큼 한생토록 터득한 경험을 넘겨주느라 여념이 없는듯싶었다.

할아버지는 성강에서 《강철아바이》로 불리우고있다. 언제부터 이름대신 그렇게 불리우는지 딱히 알수가 없다.

전쟁로병인 할아버지는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그때부터 오늘현재까지 용해공으로 일해온다. 그야말로 간단치 않는 용해공경력이다.

이젠 나이도 팔순이 되어온다. 그러나 아직 기운이 펄펄했다. 꼳꼳한 자세, 오동지선달에도 숨웃을 입지 않고 방열복차림으로 용해장을 메주밟듯 하는 그 모습... 목소리는 또 어떠한가. 젊은 용해공들의 서툰 일숨씨를 두고 질척할적엔 천정트라스가 다즈렁즈렁 울린다고들 했다. 아니, 트라스우에 쌓였던 쇠면지가 푸실푸실 떨어지는 정도라든지. 물론 파장된 소리겠지만...

할아버지의 일욕심을 두고는 이런 유명썩한 일화가 전해져오고있었다.

언제인가 용해장에서 5호전기로와 3호전기로의 출강시간이 갈아진적이 있었다고 한다.

3호로장인 할아버지가 용해공정을 단축했던것이다. 현대 이런 난사라구야. 쇠물납비가 하나뿐이였다. 쇠물납비를 또 하나 준비하자면 한시간쯤 걸린다고 했다. 그러니 전기로 하나는 부득불 세울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게 되었다. 천수백도로 끌어올린 쇠물이 로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로벽이 패이고 로바닥까지 울러뜰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쇠물이 못쓰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로상태도 엉망진창으로 된다. 계도 구력도 다 놓치는 격이 된다고 할가...

현장지휘실에서는 앞선 공정이던 5호로의 쇠물을 먼저 받기로 하고 3호를 잠시 세우라는 지령을 내렸다.

현대 용해장에 경악할 일이 터졌다.

할아버지가 글썽 쇠물납비안에 뛰어들었던것이다.

납비를 걸고있는 천정기중기에 대고 무조건 자기네 3호로에 갇다대라는 요구였다. 처음 기중기운전공은 할아버지의 행동을 룡담으로 여긴 나머지 쇠물납비를 그냥 5호전기로 출강구에 가져다댔다.

허나 웬걸... 할아버지는 납비안에 떡 버티고앉아 나울념을 안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큰일났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야단법석했으나 할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여차직하면 당장 쇠물이 쏟아져내릴 납비안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그 모습을 상해보시라. 그날 할아버지는 끝내 쇠물납비쟁탈전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그러나 로동안전규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처사에 대한 호된

비판이 뒤따른건 물론이고...

할아버지는 일생토록 술, 담배를 입에 대는 법을 모른다. 할아버지를 알고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리머리를 젖곤 했다. 남자의 애호품인 술과 담배맛을 모르다니? 그것도 용해공이라는게. 그 맛을 모르고서야 무슨 남자이고 생활의 재미를 톤한단 말인가.

이런 성화를 받을적마다 할아버지가 현현히 웃으며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뭘 술맛, 담배맛을 알아야 남자라구? 천만에... 그보다두 쇠물맛이 얼마나 달고 구수한지 자네들은 모를거야.》

자나깨나 할아버지의 마음속엔 쇠물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에게는 기쁜 일도 쇠물때문이었고 걱정이나 고민거리도 쇠물때문이라고들 했다.

배치장을 전채 할아버지를 점토록 바라보던 나는 3호전기로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곁에 다가선 나는 손바닥을 오무리며 입가에 가져갔다.

《할아버지!》

용해공으로 배치되었다는 나의 말에 할아버지는 안전모를 벗어들고 희수한 머리를 쓸어올렸다. 대견함이 실린 눈길에 애무라도 하듯 나의 온몸을 천천히 더듬는다. 기분이 들떠있던 나는 제잡담 할아버지앞에서 녀살을 떨었다.

《글썽 로동과장동지한테야 제가 초면인데... 그런데 제가 강철아바이의 손자라는걸 어떻게 알았을가요? 첫마디에 가고픈 직장을 대라더군요. 거기로 배치하겠다고 얼마나 살갑게 대하던지 막 혼났습니다.》

그런걸 난 뱉다 우겼지요. 무조건 용해공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참, 할아버지, 전 여기 3호에서 일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일하던 로에서 일하고싶은데.》

말없이 웃음만 짓고있던 할아버지가 나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우리 시원한 곳으로 좀 나가자.》

할아버지와 나는 강철직장앞에 키높이 자란 뽀뿌라나무들이 던져주는 서늘한 그늘밑에 놓여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뗐다. 석씩하면서 다정한 어조였다.

《철준아, 할아버진 네가 여기 3호로가 아니라 저 물건너에 갇으면 한다. 산소용융로 용해공으로 말이다. 지금 거기서 일할 용해공들을 모집하는데 마침이다.》

나를 놓고 이미 속궁리를 해온게 분명했다.

《주체철을 뽑게 될 산소용융로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방금전까지 품고있던 생각이 일순간에 뒤바뀌는 아쉬움으로 나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거기 가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겠군요. 또 공장대학에 다니기도 불편할거구.》

《하나 묻자. 넌 왜 대학을 그만두고 용해공이 되었느냐?》

할아버지의 장미가 찌뿔하게 휘어들고 그밀의 두 눈은 까딱않고 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그거야…》

나는 얼퍼름한 낯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너 혹시 이 용해장에서 누구의 덕이나 볼 생각을 한건 아닐테지?》

《덕이라니요? 할아버지도 참!》

그제서야 나는 픽- 웃음을 띠었다. 방금 할아버지의 권고에 무뎠던 건 사실이다. 허나 그거야 솔직한 마음을 얼굴에 내비쳤을뿐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아니, 시작이 좋다고 마감도 화려한건 아니야.》

할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기로의 동음소리가 들려오는 로상입구쪽을 점도록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나한테 머리를 돌렸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말이다, 우리 부모는 어떤 공로가 있소, 우리 집안은 이렇게 프르르한 집안이야 하면서 으시대길 좋아하지. 그것뿐인줄 아니?... 부모이름이나 집안경력을 우러먹을 구멍수만 찾아다니는데,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서 말이다.》

《할아버지, 지금껏 전 〈알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상급의 명령을 절대적인것으로 생각해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심각했다.

《방열복을 입었다고 다 용해공구실을 하는건 아니야.》

《...》

《물론 이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3호에서 일하겠다는 그 마음은 알만 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끊고 강철직장지붕쪽으로 시선을 주는 것이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전기로의 담황색연기가 하늘가로 퍼져가는 모양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정색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네가 3호에서 일하면 강철아바이의 손자로 불리울수는 있단만... 난 네가 거기서 인생의 뭇을 찾기 말았으면 한다.》

《인생의 뭇이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착잡한 눈길로 나를 마주한 할아버지의 얼굴은 근엄했다.

《하긴 저 3호에서 네 인생의 뭇을 찾을수도 있지. 나도 거기서 자기 뭇을 찾았으니까. 그 뭇이란 뭘겠니? 그건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쇠물, 우

리 당이 바라던 쇠물이었어. 지금껏 난... 그 쇠물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구나. 헌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머리를 들었다. 그 어떤 기대와 격려, 믿음이 어우러진 눈빛이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두툼한 입술을 감빨고나서 확신에 찬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성장쇠물은 주체철이야! 용해공이라면 마땅히 오늘은 주체철에서 자기 인생의 뭇을 찾아야 해. 그래서 난 네가 산소용융로에 가기를 바라는거다.》

《알았습니다.》

나는 짙막하게 대꾸했다. 무슨 긴말이 더 필요하랴. 다만 뜨겁게 달아오른 주먹을 짹 그러쥐었을뿐...

나의 추억깊은 상념을 깨뜨리며 어머니가 문득 호기심어린 낯빛으로 물었다.

《혹시 현장에 눈맞춘 처녀라도 생긴게지?》

《처녀라니요?》

행한 눈을 뜨부럭거리던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럼 왜 밤낮 현장에만 정신이 가있니. 콩밭에 마음을 둔 비둘기처럼...》

어머니말은 옳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다.

산소용융로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나는 인종현장생활에 재미를 붙였다. 생소한 용해공일을 배우고픈 욕망과 함께 하루빨리 주체철을 쏟아보고싶은 풀무질에 늘 마음이 달아있던 나였다.

어찌 나 혼자뿐이라. 용해공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하나같이 주체철성공을 위해 분분초초를 쪼개가고있었다. 밤샘을 하면서 말이다.

텔레비존을 보고있던 아버지도 말참네를 했다.

《요즘 너희들을 보고 뭐라는지 아니? 〈몽골해군〉이라더라.》

《〈몽골해군〉이요?》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던 나는 아버지의 말에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여태 주체철생산에서는 이렇다할 큰 전진이 없었다. 그러니 여직껏 산소용융로에서 쏟아지는 쇠물구경을 못해본 상태다. 어느 희떠운 작자가 쇠물을 뽑지 못하는 우리를 가리켜 《몽골해군》이라고 시까스르며 놀려댔다. 그 한마디가 온 공장구내에 이젠 하나의 대명사처럼 떠돌고있는터였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우리가 주체철을 성공하면...》

나는 말을 끊었다.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쳐들었던 것이다.

《주체철을 성공시킬 사람들은 따로 있어. 아직 꼬리번수인 네가 무슨 일을 친다고 그러니. 괜히 집안이나 들볶으면서 푼수없이 놀지 마라.》

《내가 푼수없다구요?》

저도 모르게 어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거동엔 아랑곳없이 년장자다운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은 앉을자리, 설자리를 가려볼줄도 알아야 해. 그제 현명한 처사거던.》

《?...》

갑자기 멀미라도 내려는지 머리가 어질어질해왔다. 나는 울컥 치미는 기분을 애써 누르려고 모지름을 썼다. 이런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요즘 네 생활이 어떤가 하면... 현장, 공장대학도 현장... 이렇게 시간에 쫓기구 피곤에 쫓기며 전동기처럼 뱅뱅 돌아가는데, 마치 큰일이나 치는 것처럼. 노동자란 그저 제앞에 차려진 일만 곰상곰상 하면 돼! 현대 년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거던. 남들이 다 누리는 생활의 재미를 외면하면서 말이야. 젊은게 극장에도 다니구 처녀와 사귀면서 산보도 좀 하려무나. 그런데 생활의 재미가 있어.》

《그런 시간을 뻗길가봐 산소용융로설계를 외면했나요?》

불현듯 튀어나간 말이었다. 어찌하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꺼냈던지? 주체철을 위해 애면굴면 뛰여다니는 우리 용해공을 보고 《몽골해군》이라던 그 말때문예? 아니면 정서생활에 무관심한 요즘의 나를 두고 하는 그 책망과 핀잔이 귀에 거슬렸기때문일까? 어쨌든 자식으로서의 불손한 처사였다.

《허허... 네가 이제 아버지들?》

아버지는 놀라운듯 두눈을 치떴다.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다말고 이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절레절레 가로흔들기까지 했다. 잠시후 아버지는 배포유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넌 지금 사회물을 좀 먹더니 자기가 컸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시그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생활의 전부가 아니야. 이제 사회생활에 켜들어보지. 이 아버지를 이해할 때가 있을거다.》

《난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수 없군요.》

《너도 알텐데. 지금 산소용융로를 놓고 얼마나 말이 많은가를 말이다. 된다, 안된다는 소리가 현장에서만 튀어나오는줄 아니? 계속되는 실패로 이제 법적책임까지 거론되는 판이야. 주체철이 성공한다면야 모든게 모래우에 쏟아부은 물처럼 찾아들겠지... 그러나 지금처럼 시비가 분분한 일에 푼수없이 끼우는게 아니야. 사서 마음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게구. 하기에 이 아버지 애당초 그런 일에 빠치지 않는단다. 그런데 난... 점점 할아버지를 닮는 것 같은데? 너무 오지랖이 넓어도 미움개를 사기 쉽단다.》

《...》

어쩐지 말하기가 싫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마치 처음이라도 보듯 찬찬히 바라보기만 했다. 어찌하여 그토록 친근한 아버지가 이처럼 낯설게 안겨올까? 심장이 뒤틀리듯 가슴이 아파났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하던 말이 새삼스러운 의미를 담고 새록새록 되새겨졌다. 남자란 언제나 사회를 안을줄 알아야 하며 그속에서 제 몫을 찾아야 한다던 그 말이.

그런즉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것이 없었다. 오직 자기만이 있을뿐이었다.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다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한혈육이면서도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그날 아버지한테서 풍기는 현실도피의 그 거동에 불신감을 느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4

생활이란 방정식에는 공식이 따로 없다는 말이 사실인듯싶다. 때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그것을 보고 대하는 태도나 느낌에 따라 생활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안겨오니 말이다.

실패, 실패 또 실패... 주체철시험생산은 여전히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있다. 오늘도 또 실패다. 이번엔 실패정도가 아니었다.

산소용융로주변에 술한 사람들이 몰려서서 초조하면서도 긴장한 낯빛을 해가지고 출선구만 지켜봤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가. 기다리던 쇠물대신 쿵!— 하는 요란한 굉음이 터졌다. 뒤미처 산소용융로주변을 통채로 뒤덮으며 쏟아져내리던 불소나기, 불소나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현장은 말이 아니었다. 산소취입관들이 엇가락마냥 휘여들고 로천정의 뿔갑판들은 산지사방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실패한 날이면 용해장을 배회하는 침울한 공기가 쉽사리 가셔지지 않는다. 모두가 지친 기색으로 일손을 놀리기만 했다. 사고복구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나도 입을 꼭 다문채 주변에 얼어붙은 슬라크떡지를 뜯어내기만 했다.

《흥, 꼴들은 좋다. 이쯤한 일에 잔뜩 주눅이 들다니? 그러니까 〈몽골해군〉이라는 병거지를 벗지 못한다니까.》

문득 할아버지의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패 소식을 알고 달려온 자세런듯 옆구리에 두손을 갖다붙인채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현장을 일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겨왔다.

하루도 번짐이 없이 우리 산소용융로에 찾아오는 할아버지였다. 낮이나 밤이나 때없이 현장에 와서는 기술자, 일꾼들이나 우리 용해공들과 이마를 맞

대고 주체철에 대한 논의를 하군 했다.

《이건 기분나빠 죽을 지경인데, 췌… 그췌한 일이라구요? 아바이도 이놈의 산소용용로속내가 감감이라며 머리를 기웃거리지 않았나요. 그러니 우리 처지와 같지 않을까요? 아마 도토리 키재보는 격일겁니다.》

누군가 따뜑지 않은지 통명스레 대꾸했다.

《그 말은 맞아.》 머리를 끄덕이던 할아버지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우리 용해공들을 훑어봤다.

《헌데 어께죽지들은 왜 잔뜩 처져있는가 말이야, 용해공들 답지 않게… 꼭 비맞은 수탉꼴을 하고서.》

《그럼 어떡합니까? 로까지 이 지경이 됐는데. 설마 춤을 추라는 소리야 안하겠지요?》

젊은 용해공이 별꺅게 충혈진 두눈을 희번뜩거렸다.

《어랍쇼. 제법 대꾸질까지 다… 그래도 속은 살아있구나.》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집짓 우스운 표정을 지으며 용해공의 머리를 쿡 쥐어박았다.

《아이쿠!… 뉴튼을 찢뜑먹을 내 머리가 아바이한테 맞아 주체철성공에 기여할수 없게 됐구나.》

젊은 용해공이 머리를 싸쥐고 일부러 엄살을 피우며 돌아갔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웃어야지. 처음 만드는 주체철인데 첫술에 배가 부를텐가. 자… 다들 한대씩 불어물라구.》

할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상표가 덧진 고급 담배갑을 꺼내들었다. 저마끔 할아버지한테 다가갔다. 담배가치를 코밑에 대고 향기를 맡아보는가 하면 어느새 두불이 미여지도록 걸탐스레 빨아대는 축들도 있었다.

나는 생각에 잠긴 눈길을 할아버지쪽에 주었다. 일생 담배를 입에 대본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용해공으로 일하며 보니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선 종종 저렇게 담배갑이 나오군 했다. 현장에서 흠뻑 땀끼나 흘린 뒤끝이면 할아버지는 용해공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골고루 나눠준다. 아마도 그들이 맛갈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모양을 호뭇하게 지켜보는 재미가 하나의 락처럼 생각되는걸가?!

그런 좌석엔 항상 유쾌한 통담과 웃음이 뒤따르고… 지금도 폭발사고로 썰렁하기 그지없던 용해장에 향긋한 담배냄새가 구수하게 떠돌고있었다.

잠시후 할아버지한테서 튕을 맞고 엄살을 부리던 그 용해공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산소용용로를 가리켰다.

《아바이, 저 로에서 언제쯤이면 주체철이 쏟아질가요? 계속 실패뿐이니 이거야 속이 뒤번지는데

젠장…》

생각깊은 눈길로 용해공들을 일별하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녘의 민들레를 봤을테지. 땅은 돌덩이같은데 다 오는 먼지, 가는 먼지를 다 뒤집어쓴채 납작하게 눌리워 간신히 자라는 민들레를 말일세. 가엾기 그지없거던. 그런데 말이야, 그 민들레도 때가 되면 제법 노란꽃을 피우고 나중엔 씨까지 날려보낸단 말일세. 그 비꺅이 뭐겠냐? 아무리 거칠고 불성사나운 땅이라 해도 뿌리만 든든히 박으면 억척스럽게 자란다는 바로 그게 아닐가!…

주체철도 그렇다고 봐야지. 우리 성장의 주체철은 꼭 성공한다는 확신만 든든하면 말이야, 무서울게 없거던. 오늘날은 실패는 있어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그래서 고생을 락으로 여기라는 말이 있지. 지금은 좀 힘들고 고달프긴 해도 주체철이란 확신이 있는데야 아름다운 래일이 오기마련이지. 이런 생활속에 진짜 재미, 사는 재미가 있거던.》

《!…》

모두들 후더운 심정을 안고 할아버지를 이윽도록 쳐다봤다.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저녁해는 언제 멀리 마천령너머로 사라졌는지 공장구내를 덮고있던 저녁잔광이 슬몃슬몃 깃을 퍼는 어둠에 밀려 점점 색조가 바래져간다. 씁없이 모래불을 때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염기를 머금은 바다바람이 눅눅한 저녁공기를 몰아왔다.

천천히 걸음을 내짚으면서도 할아버지는 눈길을 산소용용로쪽에 던지군 했다.

《이젠 늙었어. 저놈의 속내를 콧 헤쳐보면 좋은편만…》 안타까움이 짙은 어조였다.

그 심리에 감염된듯 묵묵히 산소용용로쪽에 시선을 박고있던 나는 언제부터 품고있던 생각을 슬쩍 할아버지한테 내비쳤다.

《다음번 시험용해뎐… 로밑에 직접 들어가면 폭발원인을 알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무춤 걸음을 멈췄다. 나한테로 향한 눈가엔 놀라와하는 빛이 번뜩거렸다.

《어떻게 그런 궁리를 다 했느냐?》

나는 씩 웃으며 할아버지를 마주봤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지.》하고 할아버지가 내 말을 나꺅쳤다. 그리고는 꺅꺅 웃는것이였다. 그 모양이 우스워 나도 따라웃었다.

사실 언제부터 속으로 움해오던 생각이였다. 물론 로조작이나 산소취입판들의 각도와 산소량분배의 조절수치, 회전로와 산소용용로의 생산공정의 통일정보장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연구사들과 기술자들, 일꾼들이며 오랜 기능공들이 컴퓨터모의시험

과 토론을 거듭하며 고심을 기울이고있다.

그런데 시험용해과정에 빈번히 폭발사고가 일어나는통에 그 모든것들이 허사로 되곤 했다. 주체철 성공의 압이나 같은 폭발사고를 극복하자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했다.

할아버지는 두눈을 쪼프린채 머리를 기웃거렸다.

《사달은 분명 수채통쪽에서 생기는것 같애.》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했다. 믿음, 기대, 격려, 불안감, 의혹, 반신반의 등 여러가지 의미가 뒤섞인 착잡한 빛이 어린 눈길이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럴 용기가 있느냐?》

《할아버지, 저도 이제 용해장생활을 일년 넘게 하고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럴 땐 제 위치가 어딘가를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는 혼연한 태도로 산소용용로를 가리켰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지요. 주체철에서 인생의 몫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건 군사복무하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할가. 훈련이나 생활과정에 무슨 정황이나 일이 생기면 사관인 내가 먼저 몸을 내대군 했습니다. 그래야 맘이 편해지더군요. 이젠 그 습관을 쉽게 뗄것 같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성급히 다가와 나의 두어깨를 으스러지게 그러잡았다. 이어 나를 반쯤 밀어제끼고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하듯 찬찬히 더듬기를 그 몇번... 할아버지는 입귀를 실룩거리며 내 어깨를 쓸어만 지기만 했다.

《한생을 다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생활의 거울앞에 설 때가 있다더니... 역시 군사복무라는 혁명대학을 나온 네가 다르긴 다르구나!》

달아오른 기쁨과 희열을 억제하기 힘든지 주름잡힌 얼굴을 연방 문지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땅막에 뚜렷이 새겨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적인 주체철시험용해를 앞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사이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그게 사실입니까? 철준이가 로밑에 들어간다는게...》

아버지는 덴겁한 표정으로 나를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입을 꼭 다문채 머리만 끄떡였다.

아버지가 아연한듯 반쯤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얼굴색마저 점차 컴컴하게 질려가는데 했다. 이어 황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안됩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철준이가...》

《아버지, 일없어요. 괜히 심각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아마 일이 잘될겁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허나 아

버지나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한채 나의 웃음을 따르지 않았다.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각기 가치를 뻗어가는 상념이 방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듯 했다. 거뿔게 질린 입술을 애꿎게 짓씹고있던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사고원인도 밝히고 주체철도 성공해야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아버지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갑자기 그만 했다. 한참동안 무엇인가 바재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안타까움이 폭 뻗 어조였다.

《그 위험한 곳에... 철준이가 꼭 들어가야만 합니까?》

《들어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짙막한 말이였다. 당장 눈섭우에서 벼락이 내리치고 천동소리가 터진대도 꿈쩍하지 않을 그런 자세를 하고있는 할아버지를 애원에 찬 눈길로 바라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것도 한참나, 나를 향해 돌아선 아버지의 입에서 호령에 가까운 말들이 튀어나왔다.

《너무 객기를 부리지 말아! 이 아버지가 몇번이나 말했니? 사회생활에선 헛내기나 같은데 착실히 배우거나 하라고... 지금도 쇠물을 강물로 혼돈할만큼 제대군인냄새를 풍기는데... 네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런 일에 나선단 말이나?》

《천만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말을 가로챘다. 그리고는 나를 가리키며 뒤말을 이었다.

《너나 나나 부모라는걸 턱대고 자식한테는 웅당 절대적이라고 여겨왔지. 헌데 요즘 난 손자인 철준이한테서 많은걸 배우고있다. 그러니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아!》

《내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구요?》

아버지의 입가에 씩씩해하는 웃음이 스쳤다.

《이 말만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자기 아들인 내 앞길을 뺏정하게 가로막을 때도 전...》

《그래, 내가 널 막았었다.》

할아버지의 추연한 눈길이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물목이라도 터진듯 아버지의 입에서 원망에 가까운 말마디들이 쏟아져나왔다.

《지금껏 우리 성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보증으로 발전했습니까. 손으로 꼽아도 아마 수백명은 훨씬 넘을겁니다. 중앙과 도에 소환된 성강출신 간부들은 물론이고 지금 제강소의 중진을 이룬 일군들도 대개 아버지추천으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손탁에서 일하던 용해공정력을 말할 때마다 전... 아버지 남들은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이 아들만은 끝내 외면했지요. 제 자식의 죽지를 꺾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

지 설계원으로 살아오는데... 이것이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항변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얼굴을 들었다.

《넌 지금껏》 예상외로 차분한 어조였다. 할아버지는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뒤말을 이었다. 《이 애비의 덕이나 볼 생각을 했지. 이 성강에선 아버지가 이름을 간판처럼 내흔들면 뭐나 다 된다고 여기면서... 무슨 일이나 투신하기 싫어하고 먹을알이 있음직하면 얼굴을 들이밀고. 그렇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속에 바로 네가 있었다. 그래 네가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누구를 위해 할것 같으냐? 또 일군이 되어 한개 단위를 책임진다면 어떻게 될것 같애? 바로 너 같은 사람들때문에 집단이 녹아나!》하고 머리를 가로챘던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말마디에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난... 생각을 굴리던 끝에 련합당위원회를 찾아갔댔다. 너를 대학에 보내는걸 보류해달라고 말이다.》

《?!...》

곰작않고 듣기만 하던 나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가벼운 비명이 터져나가는것도 의식하지 못하였다. 여직껏 아버지를 괴롭혀오던 그 죽지가 아니, 우리 집안에 생긴 그 불신의 매듭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앞에서 내 심정이 어떠했던지...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준절했다.

《내 이미 말했지, 부모의 공적이나 명예가 그 자식들이 사는데 필요한 밀천이나 지참품이 아니라고... 그런데 넌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있다.》

한참만에야 아버지는 괴롭게 이그러진 얼굴을 들었다.

《날 아무렇게 타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진솔직히 우리 집안끼리 하는 말인데...》 잠시 말을 끊고 입술을 감빔던 아버지가 나를 가리켰다. 《우리 철준이를 그 위험한 로밀에 꼭 들여보내야만 됩니까?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인데... 아버진 모질어도 너무 모진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흠칫 떨었다. 갑자기 딛고선 땅이 흔들리거라도 하듯 비칠거리기까지 했다. 나는 황급히 다가가 할아버지를 부둥켜안았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격한 어조로 웅쳤다.

《아버지, 난 할아버지가 옳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그런분인줄 정말...》

아버지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생기가 바래진 눈빛을 한 그 모습... 괴로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모습이었단 말인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에야 전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

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게 옳은걸가요? 거기에 아버지가 말하던 사는 재미, 생활의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속엔 아버지 혼자만 외롭게 있을뿐입니다. 진짜 사는 재미, 생활의 재미란 집단과 사회의 요구가 비낀 그런 생활을 안고 호흡할 때 생기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바로 그런 감정속에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늘 시대가 변했다고 했지요. 물론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게 있다고 봅니다. 그건 자기 시대는 그 시대에 사는 동시대인들이 안고살아야 한다는...

우리 할아버진 오늘까지도 그 사명감을 안고 여전히 쇠물과 함께 살아오지만... 아버지한테 그제 없는것 같습니다, 그제.》

그날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던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놀람기도 했고 괴롭기도 했다.

방금전까지 그렇게도 할아버지한테 엇드레가 많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아들의 항변을 묵묵히 감수하고있었던지... 어깨를 푹 떨구고 있던 아버지를 그때 나는 눈썹리가 아프도록 지켜보기만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체철시험용해가 있었다. 나는 산소용융로밀에 들어가 끝내 폭발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야말았다. 주체철의 앞길을 심술궂게 가로막고있던 암이 드디어 우리앞에서 파렬구를 내고 무너져내릴 때가 되었던것이다.

그날 로밀으로 맨먼저 뛰어든것은 뜻밖에도 아버지였다. 방열복에 달린 불도 끝냄을 잊은채 쓰러져있던 나를 무작정 들쳐업자고 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나를 업고 건던 아버지의 그 몇걸음이 짧았던가, 길었던가... 저만치에서 우리 부자를 띄여본 사람들이 큰일이라도 난듯 발을 구르며 뛰어오고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걸음 또 한걸음... 천천히 발걸음을 내짚을따름이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쌌을 때 아버지의 옷에도 불이 달린 상태였다. 저저마다 야단법석을 치며 나와 아버지옷에서 불을 끄느라 돌아갔다.

이때 우리앞에 다가온 할아버지가 늙식기에 술한병을 통채로 쏟아붓는것이였다.

《화독을 뽑는데 이거이상 없어.》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했다.

《역시 강철아바이가 할줄 알거던.》

이윽고 할아버지가 술이 찰랑거리는 늙식기를 내밀었다.

《네가 먼저 쪽- 마시거라.》

《...》

탄부의 길

류 정 실

천고밀림에도 길이 있다
자옥은 날마다 찍혀지지 않아도
바람 가고 빛이 가고
못새들의 지저귐도 있는...

외진 산촌의 발머리에도 길이 있다
푸른 하늘에도 하늘길
망망대해에도 바다길
제나름으로 정해진 길이 있다

하나 천길땅속 탄부의 길은
빛도 바람도 세월도 가보지 못한
한치한치 개척해야만 하는
초행길

이 길이다
오늘도 우리의 출근길 끝나는 막장
도전하듯 막아서는 탄벽 또 탄벽
여기서 탄부의 길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심장에 물으며 심장으로 열어간다

이 길이다
한알의 모지랑정알에도
한줄의 폭약에도 아낌없이 쏟던
막장사나이들의 투박해도 가식을 모르는 정이
한메터... 한메터 뻗어간 길

이 길이다
발파소리를 탄부 심장의 박동만이 아닌
비약하는 조국의 박동소리로 울리며
한메터... 한메터

애국의 땀으로 열여가는 길

묻지 않은들 모르라
오늘도 마주선 탄벽앞에
내려누르는 지압은 얼마인가를
오늘도 터지는 석수
무엇으로 어떻게 막았는가를

그렇다 탄부는
그 누가 열어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사태져 내리는 봉락앞에서도
스스로 정한 인생주로우에
후회없는 웃음 웃을줄 알았거니

누가 불러 이 길에 섰다면
이 걸음 이리도 기꺼우랴
그 어떤 황금덩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황금덩이를 버럭처럼 차던지며
검은금과 땀은 애국의 길 끝까지 가려니

오, 탄부의 길
땅우가 아닌 땅속으로 뻗어간 이 길을 따라
땅우에 아름다운 빛이 오고 향기가 오고
내 조국의 문명세월이 천만리로 따라서기에
오늘도 기꺼이 가는 애국의 길

오늘도 우리는 로동화관 조여신었다
오늘도 우리는 마주선 탄벽에 동발을 세우고
신념을 재우듯 폭약을 장약한다
우리는 이렇게 탄부의 길 웃으며 걸어간다
이 땅의 모든 길을 앞서 열며 뒤따라 세우며!...

=====

말없는 자책의 눈길로 할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던
아버지가 찬물이라도 마시듯 꿀떡꿀떡 눅식기를 기
울였다. 이어 술이 절반가량 차있는 눅식기를 내
입가에 갖다대는것이였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쳐다봤다. 격려의 눈
빛, 자책의 눈빛이 동시에 비쳐들었다. 이윽고 눅
식기를 반반히 비운 나는 입술을 훑치고나서 한마
디했다.

《사고원인을 찾았어요.》

《그래?!》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서 동시에 터져나온 말이

였다.

사고원인을 찾았다는 나의 이 한마디에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시라도 읊조리듯 환희에 찬 탄성을
터쳤다.

《아! 눈앞에 닥쳐온 주체철성공이여!》

그렇다.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 주체철성공의 불노율이 펴
쳐지고있었다. 어제까지는 비록 기쁨과 피로움도
있었고 때로 오해나 다툼도 안고 흘러왔건만 우리
생활의 오늘과 래일을 더 아름답게, 더 황홀하게
채색해줄 주체철의 불노율이!

추억의 첫 시절

리 명 근

아, 나의 병사시절아

멀어졌어도 제일 가까이
지나갔어도 언제나 내 곁에
뜨겁게 자리잡고있어라
나의 병사시절

잊지 못할 추억의 첫자리에
값높이 놓여있는 시절
헤어졌어도 헤어짐 없는
나의 병사시절

흘러갈 때는 다 몰랐어도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와
값높은 청춘의 삶을 자랑하는
나의 병사시절

하많은 추억의 갈피를 번저도

제일먼저 나를 찾아와
그리도 생생히 안겨드는
나의 병사시절

그것은 결코 추억만이 아닌
그 시절에로 부르는 손저음
그날의 심장을 오늘도 안겨주는
나의 병사시절

총대와 함께 애국의 첫걸음을 땀
국민의 무한한 영예가 짝 차있는
나를 조국앞에 땀땀이 세워
한생의 드팀없는 이정표를 안겨준

아, 나의 병사시절아!

입 대

산골도 깊은 산골
허천강이 다급히 흐르는
광산마을에서 나는
입대하였다

그해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던 해
마시는 공기에도 분노가 섞여있고
보이는 초목마저 총창으로 솟던 땅
우리 학급동무들은 헤어졌다
리수복영웅과 동갑나이가들이
불뽕는 화점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기적소리 울리던 역두
모르는 사람들도 눈빛 뜨거이 손저었고
어머니와 동네아주머니들의
그 정어린 바래움
출장떠난 아버지도 계셨더라면

—잘 싸우세요
동창생 너동무들의 목소리
나는 그때 분명

싸우는 전선으로 떠나는 마음이였다
50년대의 거센 포연이
벌써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렬차가 굽인돌이를 돌 때까지
역홈에 서계시던 어머니
멀어져가던 모교며 낮익은 고향산천
다 두고 떠나면서도
왜 그리 섭섭함을 몰랐던지

아마도 인민군대라는 자각이
이 심장에 무겁게 들어앉아서이리
조국과 인민앞에 병사로 나선
그 값높은 영예가 났을때문이리
두고가는것보다 다가오는 위훈이
소리치며 나를 이끌던 그 길

아직은 너무도 랑만에 넘쳐
잘있으라 소리치며 떠날 때
정녕 이 가슴에 자리잡은것 무엇이던가
오, 입대는 있어도 나의 한생에
제대는 없으리! 제대는

반복구령

결코
교실에서 그러보던
렬차에서 자신을 세워보던
그런 환희속에만 있지 않았다
나의 병사시절은

쉽지 않은 반복구령이
나를 기다렸다
힘겨워도 이겨내야 할
그런 날과 날이
나를 키우며 흘러갔다

지금도 들려오는
사관장의 기상구령
—다시!
엄한 반복구령은
구령이기 전에 지휘관의 명령
힘겨워도 집행해야 할 의무

팔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반복속에 다져진 대렬동작
반복속에 번개갈던 기상동작

반복속에 익숙해진 사격동작...
반복구령속에 나는 자랐다

짧아도 전투승리에로 이어진 구령
쉽지 않아도 그 집행속에서
나는 병사가 참된 병사로 되는
지름길을 찾았더라
조국앞에 선 병사의 모습을 가꾸어

아, 지금도 때없이 들려오는
잊지 못할 반복구령
그 가치를 체득한 삶만이
언제나 조국앞에 떳떳하려니

내 걸음이 떠질세라
내 안일에 젖을세라
항시 이 가슴에 와닿아
종소리처럼 울려다오

병사시절의 반복구령
조국의 엄숙한 부름이여!

당원들의 손

나의 입당을 보증해
나의 입당을 찬성하여
엄숙히 들리던 그 손들
중대당세포 당원들의 손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추켜들었다
그래서 얼굴도 목소리도 희미하건만
지금도 눈앞에 선명한 그 손

그 손을 꼭 잡고
나의 당생활이 흘렀다
때로 삶의 걸음 헛짚을세라
제때에 이 가슴을 두드려준 손

나는 어제처럼 오늘도 그 손에서
당원들의 뉘뛰는 맥박을 느낀다
위대한 우리 당의 숨결을
내 한생 그날처럼 안고살고저

잊지 못할 중대생활

지금도 저 멀리 뒤돌아보면
산기슭의 중대병실이
아담하게 눈앞에 비껴온다
정든 나의 집
병사생활이 깃들어있는 나의 중대

이제는 나처럼 할아버지가 되었을
중대장이며 사관장
그들의 이름도 조용히 불러본다
아마도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을
나의 자동보총번호도 외워본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김이 나는 철갑모를 벗어내고
자작시를 읊던 훈련의 설참
병실이 들썩하던 오락회시간엔
노래대신 시를 요청하던 목소리

근무교대를 나가던 깊은 밤
총창에 매달려 울부짖던 칼바람
언젠가는 얼음장이 떠내리는 강을
온 중대가 함께 걷는적도 있었지

야간행군길에 발을 헛디더
벼랑에 굴러떨어진 그런 때도 있었더라

화선의 목표판에 통구멍내고
이 가슴에 받아안던 꽃송이
훈련장에서 나에게 감사를 주던
호랑이중대장의 뜨거운 목소리
내 사진첩 앞자리엔 군기앞에서 찍은 영예사진
오늘도 자랑하고싶은 첫 군공메달이어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내고
기쁨은 어떻게 안아와야 하는가를
나에게 똑똑히 가르쳐준
잊지 못할 중대생활-나의 병사생활

제대배낭을 메고 떠나왔다고
결코 중대생활이 끝난것은 아니었다
로동의 나날엔 일터에서
배움의 나날엔 교정에서
그리고 창작의 붓을 달리는 순간에도
나의 병사생활은 계속되었거니

그렇게 있어다오
값높은 나의 중대생활이어
그날처럼 애국의 삶을 빛내주며
수령결사옹위의 그 넋을
그때처럼 이 심장에 불태워주며

전 우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그런 부름이 아니더라
그대는 나의 전우
나는 그대의 전우

최전연 참호에서
원쑤의 총구앞에 심장을 마주대고 함께 산
원쑤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함께 산
우리는 다르게 부를수 없는 전우

훈련길을 달릴 때도 함께
사격좌자에 나설 때도 함께
전호속의 그밤에도 전우가 곁에 있어
우리 마음 언제나 든든하였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수령님과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서도 저 별들이 보일거라고
우리 함께 심장으로 나누던 그 말

행군길에 내 발이 부르튼것도
전우여 그대가 먼저 알았고

고향편지를 받은 기쁨도
우리 서로 함께 나누었지

이제라도 소리쳐부르면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올듯
그리고 우리 서로 부둥켜안고
밤새껏 전호속이야기 나눈다면...

피끓는 청춘의 그 나이에
목숨과 총과 조국을
하나로 이어놓고 함께 산
우리는 전우 피로 맺은 동지

진정 전우라는 그 말은
전호속에서 총대로 다진 넋이었고
조국앞에 티없이 깨끗한 삶이었고
수령을 위한 다함없는 충정이었거니

전우여 나의 전우여
멀리 있어도 우리 함께 전호속에 살자
달리 부를수 없고 달리 살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총대전우!

남강이 나를 부른다

때없이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귀전에 마주쳐오는
못 잊을 물소리 남강의 물소리
빨간 령장 달고 처음으로 너를 건널 때
수중교에 매달리며 나를 반기던 물소리

조용히 너를 그려보면
내 눈앞에 굽이치며 안겨드는

물줄기 남강의 푸른 물줄기
이제 건너서면 최전연이라고 알리듯
무겁게 전선산발들을 비껴신고 흐르던
굽이굽이 남강의 물줄기

너를 건너서며 나는 조국앞에
총멘 병사임을 다시 자각했다
너를 건너서면 조국의 첫 방어선

갈라진 조국의 아픔을 안고
 잠 못드는 강이 있다고 웨쳐주며
 나의 병사시절을 비껴시고
 그날의 삶으로 나를 불러주며
 언제나 이 가슴에 찾아오는 강이여

너를 건너서던 그날의 내 모습을
네 물결위에 다시 비쳐보며
아, 남강아 지금 이 시각도
나는 너의 물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의 물줄기를 바라본다
나는 오늘도 너를 찾는다!



무지개

서 청 송

방직공장 노동자합숙 108호실은 이름이 많다.
모두가 잘생겼다고 《미인호실》, 교향이 서로 다르다고 《8도강산호실》, 일을 잘한다고 《혁신자호실》로 불리웠다.

그러나 합숙생들스스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무지개호실》이었다.

교향도 생김도 성격도 여러가지 색깔처럼 각이한 그들이기에 사람들은 호실이라는 말도 빼고 그저 《무지개》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호실성원은 일곱명이었다.

한직장이었지만 다루는 기대는 저마끔 달랐다.

직기, 연사기, 권사기, 정경기...

기능도 달랐고 급수도 달랐다.

오직 하나만이 같았다. 그것은 혁신자, 그 혁신자라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도 한명만은 그 이름속에 없었다. 락오자도 아니고 혁신자도 아니었다. 조용한 처녀,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았고 칭찬도 바라지 않는 암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행동은 느렸고 나서기도 좋아 안했다. 남들이 숙보판에 이름이 실리기를 은근히 바랄 때도 그는 비판무대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만이었다.

호실성원들은 좋아 안했다. 싫었다. 쌀에 벼알처럼 평범한것이 수치로 되는 호실이었다. 그 한명때문에, 단 한명때문에 영예로운 혁신자호실이 먹칠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비판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는 역시 뒤떨어지지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처녀였던것이다. 다른 곳이라면, 그 108호실이 아니라면, 모두가 혁신자가 아니라면 칭찬도 받을만 한 처녀였다.

그러나 108호실에서만은 수치였던 그 처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그때부터 한소영은 달라졌다.

×

처음으로 선동원 김진향이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한 날부터였다.

그렇게 느리고 그렇게 암전한 소영이가 이불속에서 빠른 말씨로 소곤소곤 그 총각에 대하여 말했던 그밤부터였다.

5.1절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총각, 어느 체육단 선수라고 했다. 키가 하늘에 닿을듯 기분이 늘씬한 청년.

어깨가 짙 버그러지고 온몸의 근육이 쇠덩이같았다. 눈, 코, 입이 큼직큼직했다. 눈이, 그 억실억실한 눈이 인상적이었는데 누구를 태우기라도 할듯 솟불같이 이글이글 타번졌다.

그 총각 말고 여러명의 청년들이 함께 있었다.

총각부대였다. 그들이 처녀부대를 보는 순간 눈뎀인 겨울에 꽃을 본듯이 눈들이 생기로 반짝거렸다.

멋쟁이처녀들...

일상시의 아름다운 그 미에 야유회를 위한 치장은 더욱 현란하고 화려했던것이다.

그 미끈한 총각이 별로 더 고와보이는 소영이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서 일합니까?》

남을 끌려주기 잘하는 덜렁이 원심이가 한발 나서며 빠른 말씨로 총을 쏘듯 따르듯 같겼다.

《데트론회사에서 일해요.》

《데트론회사?!》

처음 듣는 말이라 어리둥절해했다.

총각들의 눈이 멍그래졌을 때 처녀들은 참지 못

하고 키득거렸다.

《어디에 있습니까?》

총각은 또 물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기본은 아니었던것이었다. 처녀들과 하루라도 사귀고싶은 마음이 기본이었다.

《이름이 뭐니까?》

소영이에게 물었지만 원심이가 대답했다.

《권사공이에요.》

《권사공?! 나와 성이 같구만, 내 이름은 권총길입니다. 그런데 이 동무이름은 참 별나구만, 무슨 배사공같은게...》

으하하...

총각들이 웃고

깔깔깔...

처녀들도 웃고...

《그럼 동무이름은 뭐요?》

《옥양공이에요.》

《옥양공?! 성이 옥이고 이름은 양공이요?》

《예-》

또 웃음이 터졌다. 이름보다 직공부름을 좋아하는 처녀들이었다. 그러나 모르는 총각들은 제식대로 말했다.

《그 회사에는 무슨 손오공 후손들만 입직하는가? 마지막 이름글자가 다 〈공〉으로 끝나니 말이요.》

순서대로 대주었다. 직포공, 기대공이며 양성공까지 사랑하는 그 이름들모두를.

그제야 총각들이 알았다. 그 이름의 의미를, 그들의 직업을...

이번에도 원심이가 질문했다. 무엇보다도 그 큰 키가 부러워 물었다.

《키가 몇입니까?》

그 총각은 뽀내듯 말했다.

《1.8입니다, 1미터 80센치.》

《엄마!》

처녀들의 선망에 찬 눈빛들이 그 총각을 보았다. 원심이가 빠른 말씨로 꼭 짚어 감탄했다.

《우리 호실번호와 수자가 비슷하네. 〈1.8〉, 〈108〉!》

《?...》

총각들이 처녀들에게 함께 휴식을 보내자고 청원했다. 처녀들도 싫지는 않았지만 휴식계획이 달라서 약간한 마찰이 있었다.

총각들은 문수물놀이장으로 가자고 했고 처녀들은 곱등어관과 유희장에 가자고 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처녀들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옥남이가 한가지 좋은 의견을 제기했다.

내기를 하자자는것이다.

《내기?! 무슨 내기든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길 수 있겠소?》

《길고짧고야 대보아야 알지요.》

《좋소.》

그들은 한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특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다.

종목은 노래도 좋고 춤도 좋다고 했다. 체육인은 체육인에 맞는 특기, 방직공은 방직공에 맞는 특기를 보여주면 된다.

사나이들측에서는 권총길이 나섰다. 처녀들은 총길의 눈빛이 제일 많이 쏘리는 소영을 내세웠다.

어떤 내기를 할것인가?

사방 둘러보던 총길이가 야외공기총사격장으로 모두를 이끌었다.

《체육인이야 체육인다운걸 해야지요.》

그는 공기총을 집어들고 제정된 사격거리에서 한 미터쯤 물러섰다.

《내 여기서 다섯발을 쏘아 다섯발을 다 맞히겠습니다. 한발이라도 실수한다면 진것으로 하지요.》

총길은 별로 조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평-》

탄알이 목표를 명중하는것과 동시에 점수가 현시판에 새겨지면서 경쾌한 음악이 울려나왔다.

잠간사이에 다섯발을 다 명중시켰다. 정말 귀신같은 솜씨였다.

총각들은 가슴들을 꼭 펴고 시뻘해서 서있고 처녀들은 그 솜씨가 놀라와 눈들이 울렁해졌다.

공기총관리원이 총길에게 상품을 내어주며 너스레를 떨었다.

《명사수구만. 체네가 있나? 내 사위로 삼게...》

하하하...

깔깔깔...

모여있던 사람들도 좋아라고 웃었다.

모두들 공기총사격장에서 물러났다. 한풀 죽은 처녀들은 소영이만을 바라보았다.

소영은 처녀들이 손가방에 늘 가지고다니는 바늘과 실을 꺼냈다.

《나도 방직공다운 특기를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실을 다섯번 바늘에 끼우겠습니다. 한번만 실수해도 진것으로 하자요.》

《야-》

처녀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소영은 경통공출신이였다. 바디에 실을 끼우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경통공은 바늘에 실을 끼우는것쯤은 눈감고도 할수 있었다.

소영은 왼손에 쥔 바늘을 몸에서 한 50센치 벌리고 오른손에 쥔 실을 그만 한 간격을 보장한채 빠른 동작으로 단번에 첫실을 끼웠다.

획- 획-

그야말로 눈깜박할 사이에 다섯번중 다섯번을 다 끼웠다.

총각들은 너무 희한해서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고속도촬영으로나 볼수 있을만큼 빠른 동작의 실

끼우기였다.

총각들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다.

특기경기는 동 대 동이지만 체육인과 노동자였다는 것,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 오늘이 근로자들도 모두의 명절이지만 로동계급이 기본이라는 것 등으로 총각들이 점잖게 양보했다.

처녀들이 가자는 곳으로 그들은 따라갔다.

총각들과 처녀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즐겼다. 주인은 처녀들이라며 총각들의 성의는 대단했다.

서로서로 짝을 무어 유희기재도 함께 탔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소영은 그 총각, 권총길이와 한조가 되었다.

그들은 다른 말을 묻지 않았다.

총각들은 처녀들이 방직공장의 방직공이라는 것만을 알았고 처녀들은 총각들이 체육인이라는 것만을 알았다.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살며 어떤 자랑이 있다는 그런 식의 화려한 자기 소개는 하나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으로 하여 총각들은 노동자 처녀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처녀들은 총각들에게 짝지고 싶지 않아 오직 즐겁고 유희한 것만을 실토리처럼 저저마끔 풀어내었다.

마지막으로 오락회가 있었다.

저마다 노래를 잘하였지만 소영은 짧은 이야기로 총각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실은 노래를 잘못 불러서 할수없이 한 것이었지만 그만해야 그들을 감동시켰다.

《전 노래보다 키 큰 체육인동지들을 보니 나의 일터에 대한 긍지가 생겨서 한마디 하렵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의 직업에 애착이 없었습니다. 방직공! 하면 어떤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체육인동지들을 만나고보니 내가 동지들의 옷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내 키가 작아서 옷만 드는데 천이 적게 드는 것이 그만큼 키 큰 체육인동지들의 옷감에 더 보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작은 키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동지들!

금메달로 우리 방직공처녀들의 이 마음도 꼭 빛내어주시시오.》

박수소리, 박수소리...

홍분한 총길이가 튀어일어났다.

《소영동무, 우리 체육인들은 큰 키가 하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만약 구실을 못한다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지 못한다면 이 큰 키가 얼마나 동무들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조국의 영예, 동무들의 영예를 빛내이는 훌륭한 체육선수가 되겠다는 것을...》

또다시 박수소리, 박수소리...

그다음 다같이 불렀다.

노래, 체육인의 노래, 방직공의 노래를...

헤어질 때 처녀들이 물었다.

《우리 소개는 했는데 동지들도 대주세요, 어느 체육단 무슨 선수인지?...》

총길이가 대표해서 말했다.

《대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이름없는 이 나라의 평범한 체육인들입니다. 우리가 국제경기에 나가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면 그땐 온 나라가 다 알고 동무들도 알게 될겁니다. 나는 우리의 주소를 그렇게 대주고 싶습니다.》

더 묻지 않았다.

그 뜨거운 말, 불타는 목소리가 소영의 가슴을 세차게 휘저었다.

헤어졌다.

총길은 마지막에 소영을 따로 만나 금메달을 받는 날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소식도 자주 보내겠다고 사나이다운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그후 소식이 없었다. 소영이가 기다리던 소식은 종내 오지 않았다.

(하긴 나같은 방직공을...)

소영은 점차 잊어버렸고 평범한 생활의 흐름에 그대로 말려들었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 생각이 끊지 못한 실매듭처럼 지긋게 머리속을 쫓아다니는 것이었다. 한순간 단호히 끊었다가도 끊기우면 안타까이 다시 이어지는 직포기의 실오리처럼 스스로 다시 잇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아니아니 하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고 끝내는 진향이에게 그 이름을 부르곤야말았다.

《저, 진향동지, 5.1절날 만났던 권총길동무가 어느 체육단에 있을까요?》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안했지만 얼굴이 익은 파리처럼 빨개졌다.

진향의 쌍까풀진 눈이 성냥을 그을 때처럼 반짝하니 빛났다.

《너 혹시 그 남자를 마음에 두고있지 않니?》

《아니요.》

소영은 힘겹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이 있은 후 교복천생산전투를 선포하던 날 소영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손전화통보문으로 날아왔다. 그것은 운명적인 소식이었다.

《소영동무, 기다렸지요. 훈련하느라 소식을 못보내 미안합니다. 혁신자가 되어주시시오. 상봉을 그리며. 체육선수 권총길.》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놀랐다. 이 동무가 어떻게 내 손전화번호를 알았을까. 당장 그 번호로 전화를 하고싶었다. 하지만 꼭 참았다.

아니야, 내가 몇몇해졌을 때 전화를 하자. 그때까지만...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을 그만 원심이 깨버렸다.

뒤에서 《소영동지!》하며 잔등을 쿵- 치는 것이

였다. 소스라치듯 놀라는데 원심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썩썩물물 웃고있었다.

《다 봤지?》

원심은 깔깔거리며 뛰어갔다.

《못 봤어요—》

노래와 같은 그 말이 기대의 동음소리와 함께 귀에 앵앵거렸다.

그날 소영은 무섭게 일했다. 마치 이 직장에 저 혼자 있는것처럼 울리뛰고 내리뛰었다. 그날따라 자기 키가 하늘에 닿을듯 으쓱하니 커보였다. 그리고 저녁총화시간에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딱딱하고 패로운 직장장의 후더분한 칭찬을 받았다.

108호실의 일곱명이 다같이 일을 잘했지만 그에게는 별도의 칭찬이었다.

그런데 더 큰 칭찬이 기다리고있었다.

통보문이 또 날아왔던것이다.

《동무가 오늘 혁신자가 된걸 축하합니다. 계속 힘을 내서 혁신해주십시오. 체육선수!》

기뻐야 했지만 이번에는 기쁘지 않았다. 이상했다.

어떻게 알까? 예감일까? 아니면 누구와 내통하는걸까?

원심이 그 애 얼굴이 떠올랐다. 썩썩물물 웃던 그 애...

《리원심!》

×

로동자합숙 108호실은 하나같이 개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덤배북청 철심이, 덜렁이 원심이, 웃음हे폰 강금이, 폭쟁이 현순이, 인정많은 옥남이 등 수채화색처럼 성격도 각이했다.

진향이는 또 어쩐가.

진중하고 말이 없고 참한 처녀였다. 평시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가 직장의 선동원이 된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깊은 사연이 있었다.

진향이 그는 왜서인지 늘 긴 우산을 지팡이처럼 들고다녔다.

아버지가 어느 지방의 우산공장 지배인이어서 그런지 별로 우산을 애용하는듯싶었다.

흐린 날은 물론이고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개일것이라는 분명한 통보를 받은 날에조차 병사가 총을 메고다니듯 그는 우산을 꼭 쥐고 출퇴근했다.

직장장이 늘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진향아, 밖에 비가 오느냐? 아니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웃음हे폰 처녀들이 까르르 입들을 터뜨렸다. 그때마다 진향은 그 쌍가풀진 눈과 오뚝한 코, 가뭇한 얼굴이 이지러지는듯 한번 씩— 웃는것으로 가볍게 넘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하루 그 우산안에 온 직장이 들어간 날이 있었다.

아침에도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밝은 모습으로 공장에 나왔던 고운 처녀들의 얼굴을 온통 물칠해주었다. 용감한 몇명이 비를 맞받아 뛰어갔지만 구내도 벗어나지 못하고 물침봉이 되었다.

합숙생들이 직장문앞에서 부르르 떨 때 진향이가 평범한 날의 놀림거리던 그 우산을 펼쳐들었다.

《자, 두명씩 나와 함께 가자.》

양성공 어린 처녀들이 진향을 가운데 두고 꼭 뭉쳐서 어미닭품에 안긴 병아리처럼 합숙으로 걸어갔다.

쏟아지는 비발, 흠뻑하게 젖어오는 아래도리, 한번 갔다올 때마다 불어나는 우산, 우산...

마지막에는 직장장도 그 우산신세를 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우산을 쓰누나.》

자기는 쓰면 안될 사람처럼 심드렁해서 말했지만 그날 진향을 리해했다. 그리고 진향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일생 처음으로 아버지승용차를 탔던 날.

아버지 몰래 운전사아저씨에게 졸라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갔던 날 그렇게 노했다던 아버지...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힘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진향아, 네가 아버지 우산밑에서 호강하러 했구나. 명심해라, 남을 위해서 우산이 되지 못하고 남의 우산안에만 찾아들어가려는 사람은 꼭 진창에 빠진다는걸.》

그 말을 증명이나 하듯 대학입학시험에서 불합격이 되었다.

진향은 결심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아버지처럼 우산이 되자고, 천이 되고 새옷이 되어 사람들을 감싸주자고...

아버지는 딸의 장한 결심을 지지했고 떠나는 그에게 다른것도 아니고 우산을 주었다. 바로 그 우산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진향은 직장장의 추천으로 선동원이 되고 초급단체위원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하려고 애썼고 호실을 혁신자호실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단 한명의 평범한 처녀, 소영이가 문제였다.

소영은 무엇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지나친 관심, 지나친 참견을 싫어했다.

비판이나 요구성도 그릇에 담은 물체와 같다. 한 고뿌에 한바께즈의 물을 붓지 못하듯이 받아들일 마음이 작은데 자꾸 쏟아부으면 넘치는건 반발심뿐이다. 그러기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리해의 그릇을 넓혀주어야 한다. 마음을, 도량을 크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다. 바치는것, 위해주는것, 지켜주는것에 자기 희생까지 합쳐서 쏟아부

을 때 그릇은 커진다.

소영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진향은 피로움을 당했다. 생각했고 연구했다.

그러나 소영은 누구에게도 속을 주려 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한 생활, 자기 위치만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던 소영이가 단 한명, 그렇게 안타까이 애쓰는 진향이와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직포기에서 낱실과 씨실이 합쳐지는 것처럼 진향을 따라갔고 그의 마음에 합쳐졌다.

왜? 무엇때문에?...

노래, 그 노래 한곡때문이었던가.

소영은 천성적인 음치였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휴식침 작업반오락회때 딱 그가 지명되었다. 그 많은 처녀들, 남자수리공총각들, 직장일군들앞에서 불러야 했다. 그것도 오락회때 대신하는 시나 독연은 통하지 않았다. 그것을 한다 해도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계속 재청이었다.

노래 잘하는 어떤 처녀들은 바라도 차레지지 않는 행운이건만 망신을 싫어하는 소영이에게는 천만 뜻밖의 불행이었다.

빠질 쥐구멍도 없었다. 누군가가 권사보빙알을 마이크처럼 쥐여주기까지 했다. 얼굴이 활짝 붉어지고 창피로 온몸이 죄어들었다. 두소절도 못 불러서 터쳐질 웃음사태가 귀가 멍멍하도록 벌써부터 들려왔다.

이때 진향이 달려나왔다.

그는 소영이가 음치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왜냐면 음치들일수록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소영이가 혼자서 흥얼거릴 때마다 예민한 진향은 느꼈었다.

진향은 날래게 소영에게서 권사보빙알을 빼앗아 쥐고 말했다.

《소영인 지금 편도염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아픈걸 참고 일어나왔어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대신 부르는것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직장장이 끄덕였고 《무지개호실》의 다섯쌍의 눈동자들이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온 직장이 수압직기의 동음처럼 짹짹 손들을 요란히 두드렸다.

그날 밤 진향이의 이불속으로 들어온 소영이가 뜨겁게 손목을 잡았다.

진향이 속삭거렸다.

《한곡이라도 배워봐. 시집가는 날 어쩔려니?》

그 요구에 처음으로 응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뜨겁게 속삭였다.

《배우겠어요!》

×

소영은 그 정열적인 체육인총각에게 자기를 통째로 드러내놓은듯 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청년은 마치도 도사처럼 소영이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보는듯싶었다.

어떻게 일했으며 언제 퇴근했다는것까지 옆에서 함께 있는듯이 알아서는 통보문에 전투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을 달콤한 어휘들과 섞어서 보내주었다.

받을 때는 기뻐지만 한편 의심도 깊어갔다.

그는 오늘 받은 통보문을 상기해보았다.

《오늘 손을 상하지 않았습니까? 왜서인지 내 손이 아프더군요. 주의하십시오. 체육인.》

놀라왔다. 손을 상했던것이다.

그 덜렁이 원심이가 들까불면서 2중연사기 상단 보빙알장입을 잘못하여 굴러떨어진것이 하단에서 권사알을 끼우던 그의 손을 내리쳤다.

그가 신음소리를 내기도 전에 원심이가 먼저 던지고 서있던 보빙알에서 뛰어나리며 《엄마—》하고 새된 비명소리를 쳤다. 그다음 소영이 손가락을 제 입에 가져다대고 호호 불며 너스레를 떨었다.

전갈으면 머리라도 툭 쥐여박으련만 밟지 않았다. 그만큼 소영의 기분이 요즘은 몹시 좋았던것이다.

《일없어, 아프지 않아.》

그리고는 밝게 웃었다. 그러자 지나가다 멈춰섰던 진향이기도 미소를 짓고 갔었다.

그 일은 두명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 총각은 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했다. 분명 그 먼곳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있다. 나의 옆에, 이 주변에 그의 활영기라도 설치된건 아닐까?...

소영은 진향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진중하고 말이 없는 처녀가 남의 애인에게 미주알고주알 알랑거릴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슷했다. 그 덜렁이, 어디에다 보내는지 하루에 편지 한장을 꼭꼭 쓰고야 차근 차근 하는 무서운 정열가. 머리도 비상한 애였다. 호실에서는 제일 막내이지만 어른처럼 놀았다. 평시에도 그 애때문에 몇번 꼴을 먹었다.

그 덜렁이락천가가 소영이 심드렁해있을 때마다 웃음을 준다고 벌려놓는 일이 그렇게 되곤 했다.

깜빡 졸아서 직장장에게 꾸중을 들었던 날.

찌뿌둥한 그에게 원심이가 썩물썩물 웃으며 또 일을 벌려놓았다.

《소영동지, 나하고 말꼬리잇기 하자요.》

그날은 기대점점날이여서 직장안에 소음도 없었다.

그래도 자기를 생각하는 기특한 원심이를 위해서 뿌리칠수가 없었다.

둘은 원료밀차를 밀고 창고로 가면서 시작했다.

《오늘 말꼬리잇기는요, 딱 직장에만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자요. 지면 저녁에 사랑내기. 내가 먼저 떼요.》

그리고는 사뭇 고개를 갸웃하고 사색하는가싶더

니 웅골차게 불렀다.

《권사기!》

《기대공!》

《공구통!》

《통!...》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없었다. 갑자기라도 아무렇게나 이었다.

《통원료!》

원심이가 깔깔거렸다.

《통원료는 또 뭐예요? 1 대 0이예요. 져어요..》

《통자가 어디 있니?》

《왜 없어요? 통계원 있지 않아요. 통계원도 직장안에 있거든요.》

(아차!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이번에는 소영이가 말을 뗐다.

《정경기.》

《기능공.》

《공급수.》

《수직기.》

《기록공.》

《공장안.》

《안?...》

떠오르지 않았다. 이겨야 해, 이겨야 해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을 저도 모르게 불렀다.

《안호일!》

그 순간 《예-》하며 뜻밖에도 직장장이 원료창고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땀 굳어져버렸다.

호일직장장의 그 놀라운 눈빛과 파뒀한 인상에도 처녀도 얼어붙은듯 굳어져버렸다.

멀리 지나간 병사시절 점검명부를 부를 때나 듣고 대답했을 직장장이었다. 아마 공장의 지배인이거나 기사장도 그렇게 이름만을 힘차게 부른적은 없었을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조건반사였다.

잠시후 두 처녀는 쫓기듯 달아났다. 뒤에서 굵다란 목소리가 따라오며 때렸다.

《야, 직장장이 원료이름이야?》

그 말을 뒤에 달고 달리던 원심이가 끝내 못 참아 깔깔깔 웃음까지 뿌려놓았다.

소영은 밤새 고민했다.

왜 그랬을까? 직장장동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양갈음이라고 할거야. 직포공에서 권사공으로 돌려놓은 양갈음, 오늘 육먹은 양갈음이라고 할거야. 원심이 다 그 애때문이야, 난 왜 그때 그 이름만 생각났을까? 그 털렁이가 비밀이라도 지켜주었으면 좋았으련만 합숙에서 또 험하게 풀어놓아 사람들을 웃기였다.

웃음혜픈 강금이 배가 끓어지도록 덩굴다가 한나는 말이 더 가관이였다.

《하기야 소영아, 직장장동지 이름이 직장에 있는 이름이야 직장에 있는 이름이지 뭐.》

호호호...

깔깔깔...

소영은 피가 나도록 고민하는데 그들은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댔다.

그후 며칠간은 직장장을 피해다니느라 땀을 뻘뻘.

그런 원심이니 얼마든지...

×

소영은 직장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호일직장장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랬다. 호일직장장은 늘 자기는 한생을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으며 그 덕분에 어제날 이름없는 산골마을의 실농군의 아들이 오늘은 수도의 큰 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들려준 군사복무시절이야기.

그때 그는 중대의 명예를 걸고 경기란 경기는 다 참가했다고 한다.

우승할 때마다 그것은 곧 중대의 명예이자 자기 자신의 명예였다.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 대대와련대의 지휘관들 속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불리워졌다.

그런데 그 영예로운 시절에 단 한번의 오점을 남긴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분대장이 된지 얼마 안되어 모범분대판정때였다.

갓 입대한 신입병사 한명이 제일 골치거리였다.

다른 분대 신입병사들은 훈련을 꾸준히 하여 제법 구대원처럼 되어갔지만 자기 분대의 그 한명만은 뜻하지 않은 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되었던것이다.

《이 안호일이야 지냈는가?》

호일은 그 신입병사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는 작전을 꾸렸다. 그런데 부분대장이 그것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부분대장, 분대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락오자를 두고 무슨 명예입니까?》

끝내는 호일이 지고말았다. 그래서 군사복무시절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그때 부분대장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인생이란 묘한것이다. 그 부분대장이 한생 자기의 경쟁대상으로 될줄 어떻게 알았으랴.

방직공장에 함께 탄원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산총화에 함께 참가하는 동급직장장이었다. 그러다가 영웅직포공을 키웠었고 지금은 그가 부지배인으로 승급되었다.

내색은 안했지만 호일의 가슴은 불이 달린것처럼 빠질빠질 타버렸다.

나도 영웅을 키올테다.

그 적임자가 진향이였다. 진향이의 우산에 들어

가던 날 그는 벌써 영웅의 싹을 보았다.

호일은 권사공이던 진향을 수압직포기작업반으로 옮기고 자기 정량보다 몇대의 직기를 더 조절해주었다. 지금껏 영웅은 직포기에서 나왔다.

방직공이라면 천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호일도 그것을 알기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일련의 피해가 있었다. 몇명의 처녀들이 기대를 진향에게 넘겨주었던것이다. 그속에 소영이도 있었다. 소영은 그때부터 자기가 혁신자가 되기를 생각조차 머리속에서 말끔히 씻어버렸다. 소영이가 보건대 직장장의 머리속에는 혁신자가 따로 있었던것이다. 만드는데 있다, 내세워주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맡겨진 일이나 욕먹지 않게끔 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 총각을 마음에 둔 다음부터 혁신자가 되고싶고 영웅이 되고싶었다. 만약 그 총각이 금메달을 타오는 날 그때도 평범한 처녀로 있다면, 그 무엇도 자랑할것이 없다면 어떻게 당당히 그앞에 나설수 있단 말인가.

그 총각은 나에게 보내는 통보문마다 혁신자가 되라고 하지 않는가. 서로가 떳떳한 날 당당히 만나자고 하지 않는가. 되여야 한다. 소문도 나고 혁신자, 공로자도 되여야 한다. 물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그 사람만큼이야 되랴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소영은 드디어 직장장을 찾아갔다.

《저에게 직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 오늘부터 연장작업을 하겠습니다.》

호일직장장의 두눈이 멍그래졌다.

《서쪽에서 해가 떴는가?》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창문쪽으로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다.

《왜 혁신자가 되고싶니?》

《나도 영웅이 되고싶어요.》

입을 하나 벌렸다. 한동안 그 모양대로 서있었다. 하얀 머리칼이 다문다문 나온 머리를 손으로 벽에 긁더니 말했다.

《너희 108호실 처녀들 말이다. 그 키가 너보다 더 작고 나이가 작은 원심이나 현순이도 연사기와 권사기에서 일을 잘해 혁신자가 되었는데 넌 꼭 직기를 돌려야 혁신자가 되겠니?》

《그들은 그 기대에 정통했기때문에 기능공들이예요. 난 오래동안 직포기를 돌리지 않았나요.》

《그래, 그렇지.》

직장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헌데 누가 직기를 내놓겠다 하겠니. 지금은 경쟁이다. 누가 먼저 월계획, 년간계획을 수행하는가, 이런 판에 직기 한대라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럼 소원대로 해주마. 그리고 연장작업문젠데 로동시간은 법이야.》

소영은 본전도 못 찾고 돌아섰다. 손땀이 탁 풀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러다가 돌아섰다. 꼭

한마디 하고싶어서였다.

《그럼 진향동지예겐 어떻게 그 많은 직기를 맡겼습니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데 눈앞에 진향이 있었다. 직장장에게 다가오고있었다.

《직장장동지, 소영동무에게 제 기대를 줍시다.》

《네 기대를?!》

《?!》

직장장이 아연해서 물었다. 그 물음에는 넌 혁신자고 선동원이야, 계속 앞서야 해 하는 말없는 말이 담겨있었다.

《너에게 직장명예가 달려있다. 네 기대만은 안돼!》

직장장은 두부를 자르듯 썩둑 잘라버리고 가버렸다.

소영은 찬물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새파래졌다. 진향이기도 어두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 다음날이었다.

언제부터 온다던 신문기자가 혁신자취재를 왔으며 진향을 찾았다.

공교롭게도 진향이 교대하고 들어간 뒤라 직장장은 다급해서 처녀들을 합숙에 달려보냈다.

그러나 처녀들은 맹랑한 대답을 안고왔다. 진향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다는것이였다.

이번에는 직장장이 숨을 헐떡이며 합숙으로 달려갔다.

마침 교대를 끝내고 들어오던 소영은 108호실 문앞에서 어성이 높은 직장장의 목소리에 그만 멈춰섰다.

《진향이, 다 너를 위해서다. 넌 말했지? 꼭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여 아버지부락대로 인민의 우산이 되겠다고. 그래서 난 널 믿고 직기를 더 맡겼다. 그런데 넌?...》

《...》

《진향아, 무언때문이나? 말 좀 해라.》

《직장장동지.》

진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웅도 혁신자도 되고싶어요. 그러나 나 혼자 되여선 될해요. 난 되고 소영인... 소영이가 뒤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직장의 명예이고 선동원으로서, 초급단체위원장으로서 나의 본분을 다했다고 하겠나요. 그 애는 직기를 나보다 더 잘 다루어요. 난 그 애보다 권사기를 더 잘 다루구요. 난 그 애를, 소영이를 혁신자로 내세워주고싶어요.》

《...》

《직장장동지! 전 어제 밤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여주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옳게 살았는가,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고 돌이켜보았어요. 직장장동지, 소영이 소원을 풀어주자요.》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호일직장장은 군사복무시절 부분대장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그에게 한생 지는 원인이 명예라는 우산안에 들어가려는 그릇된 자기 인생철학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진항이라는 영웅의 우산을 만들어놓고 그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누구에게 기대를 맡기든 돌아가는 시간은 같다. 기능급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산량도 거의 일치하다. 사람은 내세워주면 된다. 그러나 한 사람때문에 열사람이 희생당할 때가 있다. 그것은 책임진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항상 대중의 우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 대중속에서 편안한 사람도 있다. 대중이 얻은 명예, 로동계급의 피와 땀으로 쌓은 직장이나 공장의 공로가 그 일개인의 이름을 보석처럼 빛내일 때도 있다. 그러면 명예욕이 생기고 판료주의가 자라나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대중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며 순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

내가 한명을 내세워 얻자는것이 무엇이었던가.

몇명을 희생시켜 얻자는것이 직장의 명예였던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였던가, 우에 잘 보이자는 아첨이었던가.

직장장은 말없이 돌아섰다.

벌커덕!—

문을 여는 동시에 소영을 보았다.

직장장의 눈빛이 한순간 굳어진듯싶더니 소영을 한번 의미있게 바라보고 복도를 걸어갔다.

소영은 호실로 들어가며 진항을 불렀다.

《진항동지! 나때문에...》

목이 짝 메여 소리가 잘 나가지 않았다.

진항은 듣는동안은 어느 잠에 췌는지 모를 구호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호실벽에다 붙이고있다.

그 구호가 다 말해주고있었다.

한쪽이 잘 붙지 않아 애를 썼다. 풀을 잘못 먹인 모양이었다.

《내가 붙여요.》

소영은 얼른 풀문은 붓을 손에 꼭 쥐었다. 둘이서 함께 붙인 그 구호밑에서 뜨거운 눈빛이 오고갔다.

다음날 직장장은 소영이에게 진항이의 직기를 통채로 맡겨주었다.

《잘해보아라. 너의 명예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 혁신해라.》

진항은 소영이에게 직기를 내주고 대신 권사공이 되었다. 이제 그가 공로자로 되자면 많은 날이 흘러야 할것이다. 혁신자가 되기는 쉬워도 공로자가 되기는 험치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자기 기대를 양보했다.

소영은 미안했다. 그래서 다시 제기도 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진항동지가 계속 직기를 돌리도록 해달라고...

호일직장장이 머리를 저었다.

《진항일 모르니? 네가 혁신자가 되는것이 그를 도와주는거다.》

소영은 뜨거운 눈길로 진항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권사기앞으로 달려갔다.

《진항동지, 고마워요.》

진항은 빙그레 웃을뿐이었다.

그밤 교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영은 진항에게 물었다.

《진항동지 사랑을 해봤나요?》

진항은 달빛에 비낀 소영의 하얀 얼굴과 동그란 두눈, 그의 작으나 날씬한 몸매를 흘린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했지. 지금도 하고있다.》

소영은 호기심에 눈을 깜박거렸다.

《멋쟁이겠지요? 미남? 지식인?》

진항은 머리만 끄덕였다.

《진항동지, 사랑이란 뭐나요? 나도 사랑할수 있을까요?》

《그래, 할수있구말구.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건줄 아니? 난 늘 그것을 느끼면서 일도 하고 공장대 학공부도 한단다. 그러면 힘도 배로 생기구 삶의 의욕도 넘쳐나는거야.》

《그 남자도 진항동지 사랑해요? 보고싶어하고 그리워해요?》

진항은 품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동지가 내게 보내준 자작시 한편이 있는데 들어보겠니?》

《예.》

소영은 두눈을 환희로 반짝이며 진항이와 가로등 밑으로 뛰어갔다.

읽었다, 답답하나 뜨겁게....

《그날부터

한 처녀를 사랑한 날부터

나에겐 심장이 없었다

빼앗겼는지

바쳤는지

다른이에게 줄 심장이 없었다

그날부터

한 처녀를 사랑한 날부터

나에겐 거울이 생겼다

평범한 날엔 보이지 않던

바지의 구김살도

얼마나 잘 보이던지

마음속까지 비추어보는

거울이었다

그날부터
한 처녀를 사랑한 날부터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싶어
혁신자로
공로자로
위훈을 펼치었으니

그것은
오, 그것은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
그 거울이 있었기때문이다!》

《야! 시인이구나.》

소영은 손벽까지 치며 콩콩 뛰었다.

《진향동지, 나 이 시 베껴도 되나요?》

《그래.》

소영은 밤을 새워가며 제 식대로 고쳐서 그 총각에게 첫 통보문을 보냈다.

회답이 왔다.

《고맙습니다. 꼭 내 마음입니다. 체육인》

사용자등록부에 건사하고 또 일터로 나갔다. 가슴에 싸안고 속으로 읽어보며 기대를 돌렸다.

(내가 짠 천, 내가 만든 공화국기발을 저 하늘에 휘날리게 할테야.)

사랑은 이렇게 벌써 설레었고 펄럭였으며 눈부시게 휘날렸다!

×

원심이가 《간첩》이 아니었다.

의심했기에 오해할번 한 그 원심의의 심장엔 또 얼마나 큰 사랑이 간직되어있는것인가.

나이는 어리지만 혁신자 《무지개호실》의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락천가 우리 원심에게 얼마나 뜨거운 피가 흐르고있는것인가.

바로 그날 알게 되었다.

매일같이 써서 봉투에 건사한 그의 편지가 공개된 날, 그날은 바로 원심의의 생일 3월 12일이였다.

직기에서 나온 파사를 버리려고 원료창고쪽으로 가던 소영은 구석진 곳에서 통보문을 쓰는 원심을 보았다.

(시작했구나.)

소영은 통보문을 거의다 썼다고 생각했을 때 원심의 앞을 막아섰다.

《손전화 이리 내.》

《소영동지, 왜 그래요?》

원심이는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손전화기를 뒤로 가져갔다.

《너 정보값을 얼마나 받니? 떼떼하면 쥐.》

소영의 그 불태울듯 한 무서운 눈빛, 파릿한 인

상에 기가 눌려 원심은 손전화기를 내놓았다.

소영은 통보문을 보았다.

《소영동지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주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소영동지가 상반년계획을 앞당겨끝냈습니다. 원심 올림》

《너 그럼 우리 집에?》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사용자등록부를 뒤지였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보낸 통보문들, 눈물나는 사연이 다 있었다.

소영이 아버지는 하반신마비가 온 영예군인이였다.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 소영이가 보고싶어도 전화 한번 안했다. 그가 전화하는것도 바라지 않았다. 왜? 걱정할것 같아서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전화하면 집생각나고 집생각하면 일을 못한다. 절대 전화를 하지 말아.》

언젠가 소영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난 그래서 전화를 못해.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내 소식을 기다릴거야.》

그러면서도 전화를 못했다. 아버지가 신경쓰지 않게 하자고, 그래서 더 병이 도지지 않게 하자고 이겨냈다.

그런데 원심이가 그를 대신해서 전화편계를 가지고있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라고, 그가 호실에서 평범한 처녀로 있을 때조차 혁신자라고, 일잘한다고 소식을 보내주었다.

아버지는 그 힘에 병이 펴 나아졌다고 한다. 몸이 회복되어가고 힘이 난다고 한다. 소식을 받을 때마다 식사를 잘하고 삶을 위해, 이 딸을 위해 병과 자기자신과 투쟁한다고 한다.

원심아!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이 원심이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나살이나 먹은 나는 오늘 그의 생일도 깜박 잊고있었다. 자기 행복에 겨워 《간첩》으로 밀게 보았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도글도글 매달렸다. 앞에서 웃으려고 애쓰는 원심이를 보니 더욱 주르륵 흘렸다.

그날 밤 《무지개호실》 처녀들이 원심의 생일을 축하하여 특식을 마련했다.

누구도 그의 생일을 잊어버린 처녀는 없었다.

8도강산 음식이 다 올랐다.

진향이의 고향인 신원의 백설기, 철심이의 고향인 북청의 사과, 옥남이 고향인 연백의 칼떡, 소영이의 고향인 동해의 명태, 금이의 고향인 칠보산의 송이버섯, 현순이 고향인 안변의 꽃감...

언제 가져왔으며 어떻게 건사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사왔는지 누구도 몰랐다.

오직 《무지개호실》 그 이름처럼 그런 마음들만이 차릴수 있는 특이한 생일상이였다.

진향이 축사점 한마디 했다.

《원심동무는 우리 호실의 제일 막내입니다. 하지만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배워주는 선생이였습니다. 나는 원심이가 방직공장에 온 날부터 7백여일동안 매일 쓴 7백여통의 편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이가 왜 방직공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어 혁신자가 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무들, 원심동무는 보낼수도 보여줄수도 없는 편지를 매일 썼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이 세상에 없는 할머니에게 잘한것도 못한것도 이야기하며 7백통을 쓰는 기간 혁신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 공장 연혁소개실에 있는 60년대 방직영웅이였습니다.》

《방직영웅?!》

한동안 숨소리도 없었다. 옥남이가 먼저 박수를 쳐서야 모두 화답했다. 다음 사이다고뿌들을 하나씩 들고 축배의 잔을 쥘었다.

《원심아, 오늘은 너도 한마디 하렴.》

그들의 청으로 원심이가 일어섰다.

《전 전연에서 팍배인 아버지의 군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는 그 군복을 지으려고 방직공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방직영웅이 되어 천을 짜고싶어서 방직공장에 올 결심을 했어요. 난 온 날부터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영웅할머니에게 보여주는 심정으로 기쁨도 안타까움도 다 고백했어요. 전 꼭 영웅이 되고싶어 영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지들, 고마워요. 내 꼭 영웅이 될래요!》

박수소리, 박수소리…

노래를 불렀다. 음치인 소영이도 진향에게서 남몰래 배운 방직공에 대한 노래를 정확히 잘 불렀다.

시도 읊고 이야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원심이의 편지 7백통중에서 몇편을 읽는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중의 한대목…

《…할머니, 난 오늘 직장장동지에게서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키 큰 언니들도 힘들어하는 2중연사기 옥양을 혼자서 석대나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감는 실, 내가 짜는 이 천이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나의 모교에 새옷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난 말하고싶어요. 내 비록 두메러도 안되는 천으로 만든 작업복 한벌을 입고 일하지만 온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새옷을 짓는다고! 그리고 60년대의 할머니처럼 2010년대의 방직영웅이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꼭 만나뵙겠다고…》

그밤 별들이 유난히도 반짝이었다.

108호실에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무지개가 되어 비졌다. 그것이 천이 되어, 천에 물들어 필필이 쏟아져나왔다.

×

바로 그날은 《간첩》을 잡은 날이었다.

소영이가 년간계획을 수행하고 공로메달까지 가슴에서 번쩍이던 그날 드디어 총각과 상봉하기로 약속했다.

5.1절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총각, 말해주리라. 고맙다고, 사랑이 있어 오늘의 내 모습이 있다고…

소영은 메달과 함께 받은 꽃다발을 가지고 대동강유보도로 달려갔다. 마치 조금이라도 늦으면 잃을것만 같아 마음은 걸음보다 멀리 앞서갔다.

그 운명적인 시각, 만나자고 약속한 그 장소에 체육복을 입은 여러명의 남자들이 쭉 둘러서있었다. 바드민톤채를 들고 이쪽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저속에 있다, 저속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을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찾는담, 찾은들 또 어떻게 만난담…

이러며 달려가는데 키가 늘씬한 사람이 마주 달려왔다.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

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상상해보았다.

키, 큰 키. 비슷했다. 눈, 억실억실한 눈. 비슷했다. 아니, 꼭같았다. 분명한듯싶었다.

얼마간 간격을 두고 마주섰다.

《동지!》

막 이렇게 부르는데 눈이 땡그래진 그 남자가 아 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내미는 손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두손을 쭉 내밀었다.

땡해서 마주보았다.

그 남자가 아주 미안한 안색을 짓고 말했다.

《치너동무, 그걸 좀…》

총각이 가리키는 발밑을 보니 하얀 바드민톤알이 떨어져있었다. 지금 그 총각은 그것을 가지러 왔다가 차마 치너의 발밑에 있는것을 주을수 없어 정중히 두손을 내밀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이 남자가 아니었다. 어딘가 좀 비슷했지만 그때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다.

소영은 불에 덴것처럼 화끈 달아올라 빨개진 얼굴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정중히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패기있게 인사하고 달려간다. 그다음 그에게 달려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선동원 진향이 철도제복을 입은 멋쟁이남자와 마주오는것이 아닌가.

《아니?! 진향동지가 어떻게?…》

진향이 힘겹게, 아주 힘겹게 말했다.

《오늘은 용서를 빌자고 왔어. 너에게 내가 죄를 졌구나. 찾아주자구, 그 청년을 찾아주자구 오늘 이 순간까지 뛰어다녔는데 난 끝내 못 찾았다.》

전화번호도 집주소도 몰라서 체육단이라는 체육단은 다 찾아다녔지만 이름 세글자를 가지고는 정말 못 찾겠더구나.》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화기를 내밀었다.

《그럼 이 통보문은?...》

《그건... 그건... 내가 전화해서 이 동지가 보낸다. 너에게 힘을 주자구 내가 그만 거짓놀음을 했구나. 이렇게 아플줄 알았으면 안 그러는건데. 못 찾을줄 알았으면 말아야.》

《됐어요. 진향동지, 그만해요..》

울것 같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주저앉지는 않았다. 어떤 다른 믿음, 다른 사랑이 지금 그를 굳건히 세워놓고있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진향은 얼굴을 빨갱게 태우며 대답했다.

《기관사인데 한고향에서 살았단다.》

《한고향?! 그럼 언니가 말하던 애인?...》

진향은 머리를 끄덕였다. 총각도 병글서 웃음을 지었다.

소영은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 격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진향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벌겍게 타기 시작하는 두눈, 그 얼굴을 확 하니 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었는가. 얼굴도 모르고 통보문을 쓰고 또 썼을 기관사동지! 이들을 위해서 혁신자가 되고 공로자가 되는건 얼마나 웅대한 일인가. 이들속에서 떨어진다면 그 인간의 생은 얼마나 비참해질것인가.

아, 좋은 사람들속에서 보람찬 삶!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정이 아니라! 이런 사랑, 이런 정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지 않는가.

무지개처럼, 무지개처럼...

그는 오래도록 진향을 꼭 껴안았으며 두눈에선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

두달후, 만나뵙는것이 그렇게 소원이던 우리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처녀들이 일하는 방직공장을 찾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풀어주는데 바치시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도록 해주자, 합숙을 지어주어도 호텔보다 더 멋지게 지어주자, 그래서 세상에 대고 우리 당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자.

군인전설자들이 달려오고 단숨에 호텔보다 더 훌륭한 노동자합숙이 일떠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깊은 새해 설날 그날에 우리 처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머리수건을

선물받았다.

빨갱고 파랗고 노랗고...

여러가지 색의 수건들이 방직공처녀들의 머리에 씌워졌다.

108호실 그 일곱명의 처녀들도 자기 취미에 맞는 서로 다른 색깔의 수건들을 썼다.

호일직장장이 입을 하나 벌리고 감탄했다.

《오늘은 너희들이 진짜 무지개가 되었구나!》

그로부터 몇달후 봄빛이 짙은 5월초의 어느날 처녀들은 새 합숙으로 이사를 갔다.

그날, 집들이를 하던 날 모두가 황홀경에 잠겨 버렸다.

마치도 처녀들이 짜놓은 칠색비단이 하늘에서 드리워진것 같은 청춘들의 집, 하늘의 무지개가 총총이 쌓여진 처녀들의 집, 그것은 무지개집이었다.

하늘에도 고운 무지개가 비꼈다. 마치 이 땅에 비낀 무지개가 저 하늘에 물든듯이 밝고 아름답게 빛났다.

이날에도 직장장은 처녀들을 둘러보며 뜨겁게 말했다.

《오늘은 108호실뿐아니라 온 합숙이 〈무지개호실〉이 되었구나!》

무지개!

무지개는 태양의 빛이다.

그 빛을 받아 서로 다른 아름다운 색들이 꼭 하나로 합쳐지듯이 이 땅, 이 나라엔 수천만사람들이 일심단결된 하나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비껴있지 않는가.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진향이 드디어 그 총각을 찾았던것이다. 《체육신문》의 지면에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사격선수 권충길.

국제경기에 나갔다가 금메달을 번쩍이며 돌아온단다.

오면, 오면 약속대로 방직공 그대부터 찾아오리라. 금메달을 번쩍이며 공로메달을 달고있는 소영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리라.

그러면 방직공처녀들은 자기들이 손수 만든 공화국기발을 안겨주리라. 그 순간 금메달을 목에 건 총각은 세계의 하늘에 람홍색기발을 휘날릴 때 드리던 인사처럼 엄숙히 거수경례를 하리라.

처녀들아, 우리도 그때는 거수경례로 화답하자.

우리가 병사들처럼 못할건 또 뭐냐.

《거수경례로!》

《거수경례로!》

소영은 진향이 가져다준 《체육신문》을 보고 또 보며 그날을 상상했다. 그 상봉의 날, 공화국기를 펼쳐든 그날을.

우리 청춘은 이렇다! 우리 무지개는 이렇게 아름답다!

오, 삶은, 미래는 창창하다!

태양, 이 땅에 태양이 있기에!...

무엇을 더 바라랴

최 정 용

언제나 구내에 나서면
이 가슴 치며 올려온다
쌀은 사회주의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

드넓은 구내 그 어느 기대앞에 서보아도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비료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해
눈비 가림없이 오고 또 오시여
온갖 심려 다 기울이신
우리 장군님의 천만라고

세월이 흘러간다 잊으랴
홍남로동계급 우리가 받아안은
대원수님들의 사랑
그래서 하루일을 마쳐도
선뜻 기대앞을 못 떠나는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 펼쳐주신
희망찬 새해진군길에 서면
가슴에 넘치는 불같은 열망

나라에 쌀이 넘쳐나자면
이 구내에 비료가 넘쳐나야 하거니
쌀으리라 원수님 바라시는 그 높이에
쌀으리라 비료의 산악을

오늘에 바친 우리의 노력
그 누가 몰라준들 어떠랴
풍요한 가을날들이
기쁨넘친 인민이
번영하는 조국이
우리 오늘을 말할수 있다면
우리 그 무엇을 더 바라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할
홍남로동계급 우리들을 두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기쁘시여 밝게 웃으신다면
그이의 령도에 충직한
그이를 결사옹위한 공지로 영광으로
홍남의 로동계급 우리는 행복하리라

포전의 쉼 참에

리 영 일

우리네 새 품종 포전을 돌아본 작업반장
분조원들 향해 꺾꺾 웃으며 하는 말
—아지가 무섭게 찼소
이제 막 쏟아질거요

그 말 참으로 흐뭇하구나
넓디넓은 고향벌을 통채로 기울여
나라의 쌀독에 쌀을 쏟아붓는 소리
벌써부터 우리 귀전에 들려오는듯

이런 땀 정말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싶구나
분조의 오락회책임자 철이야
어서 너의 병사시절 풀피리숨씨를 보여라
절로 솟는 어깨춤 어찌 달랠소나

이 시각 푸른 벌우엔
10년을 한해로 앞당겨 건설한
마식령의 희한한 스키장과 함께
솟구치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자태도

눈앞에 선하게 보여온다

창조와 비약으로 내달리는 나날
듣는것 보는것 모두 새롭기만 하더니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이상
인민의 만복이 활짝 꽃필 그날이
가깝게 가깝게만 다가서나니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체대에 선 우리가
온 나라 투쟁의 친구마다에
나무리벌의 옥백미를 짹짹 보내주어야지
땅이 꺼지도록 안아올린 풍작의 통장훈으로
원썬들의 숨통을 꼭 눌러놓아야지

흥에 뜬 우리네 작업반장
오늘중으로 세벌김매기 마감해치우잔다
저마다 성수난 분조원들
웃고 떠들며 논판에 들어서는데
어허 오늘따라 포전의 붉은 기발은
더욱 세차게 나뭇기는구나

여기서 노동자 내가 산다

리 정 너

대동강도 흐름을 멈추고
맑고 푸른 물에 담아보는
우리 공장 노동자합숙
강반의 실버들도 휘휘 가지를 저어
창문을 닦아주는 방직공 우리들의 삶의 요람

정녕 꿈만 같아라
공장구내 숲속에
우뚝 솟아난 노동자 우리 합숙
바라보면 궁전인듯 희한하기만 하고
들어서면 호텔인듯 놀랍기만 하구나

여기서 노동자 내가 산다
여기서 방직공 우리들이 산다
누리는 삶이 너무도 값높고
보는것마다 너무도 감격하여
우리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생각하나니

지난해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김정원원수님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합숙을
세상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지어주시려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시고

군인건설자들을 보내주시고
자재도 설비들도 최우선 최고의것으로
원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어 일떠선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요람
노동자들의 궁전 노동자들의 호텔!

그 어데를 둘러보아도 만져보아도
원수님사랑의 손길 어렸이어

합숙홀 천정에 빛나는 천정등은
사랑의 하늘에 빛나는 별무리인듯
노동자 우리 행복 축복해주고

식당에 가도 도서관에 가도
원수님사랑 넘치고
식사실에 들어서면 호텔의 손님인듯
도서열람실에 들어서면 인민대학습당의 독자인듯

보면 볼수록 안아보면 볼수록
목메이는 아버이의 사랑이여
방직공 내 무엇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랴
밤낮으로 한생을 다 바쳐 천을 짚대도
천만분의 하나도 갚지 못할 이 은혜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지 몰라
눈물만을 앞세우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라고
끝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까지 안겨주신 원수님

우리 방직공들을 한품에 안아
행복의 절정 사랑의 상상봉에 세워주신
원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마음
원수님 가시는 천만리길에
비단으로 펼쳐 보답하려니

원수님품에서 펼쳐지는
인민사랑의 비단필에
수를 놓아가리라 원수님의 사랑
꽃피워가리라 원수님의 은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년을 만년을!



길손을 부르는 소리

리 경 명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고향은 먼 지경에서부터 천지개벽의 새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구름처럼 산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염소떼, 파아란 지붕을 날듯이 펼쳐들고 언덕우에 줄지어 들어앉은 젓가공공장들, 폭포수굴안에 들어앉은 소형발전소...

더더욱 놀라운것은 그 옛날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돌박산이 온통 과일꽃으로 뒤덮인 그것이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카시아꽃...

훈훈한 봄바람이 진한 꽃향기를 안아다 내 몸에 더듬게 끼얹어주었다. 더불어 울긋,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나라없던 그 세월엔 왜놈들의 로략질에 몇포기 안되던 약초뿌리조차 녹아났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미국놈들의 소이탄에 속새풀마저 불타버렸던 땅.

이 산, 이 비탈면에 꽃천지가 펼쳐지다니...

내 어린시절 이 비탈면에 돌틈을 비집고 용케도 자라났던 한그루의 아카시아나무가 선히 떠오른다.

그 나무의 몇송이 꽃을 따자고 아슬한 우듬지까지 기어올랐다가 떨어져내려 피터진 머리를 움켜잡고 꺾꺾 튕으며 울던 더벅머리총각애의 모습도 눈물겹게 떠올랐다.

내가 다가가자 그 애는 애써 웃어보이며 꽃송이 하나를 내게로 내밀었었지. 《자, 먹어.》

나는 《형아—》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초면이지만 눈물겨운 인정을 퍼주는 그의 품을 파고들었구...

내 정녕 그때 꽃송이를 받았던가, 흐느낌을 받았던가? 하이얀 꽃에 빨간 피방울이 튕겼던 그 아카시아꽃 한송이...

오늘에 펼쳐진 이 꽃천지...

대체 뉘들이 이 땅을 이렇게 가꾸어놓았는가. 천지개벽의 창조자들은, 이 땅의 주인들은 도대체 누구들인가.

가슴이 뻘근해났다.

《여보시오 길손어른, 예 좀 들렀다가시우—》

어디선가 노래처럼 들려오는 부름소리...

바라보니 저쯤 남향반이산자드락에 수십개도 넘을 꿀벌통들이 주런이 앉았는데 그곁에 있는 천막앞에서 한 로인이 손을 씻는다.

날 보고 들렀다가라는 소리다. 이끌리듯 다가가니 어느새 로인은 넘치게 퍼든 꿀물그릇을 들고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

《어서 쭉— 내시우. 어디서 오는 길손인지는 모르겠소만 로독을 푸는텐 이것이상 없수다. 어떤 측

들은 날 보고 수다쟁이라느니, 백화산 해설강사라느니 하지만(이곳을 두세번 다녀간 축들이 퍼뜨린 소문이겠지요.) 지나는 손님마다 다 불러들여 자랑을 하구싶은걸 어찌겠수... 어이구, 이것 보지. 또 수다... 허허허...》

꽃풍년에 꿀풍년에 인심풍년까지 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사양없이 그릇을 쭉— 비웠다.

로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꽃으로 뒤덮인 산밭을 대견스럽게 더듬고나서 계속했다.

《옛날옛적에는 여기가 온통...》

나도 흥이 나서 장단을 먹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꿀물에도 취하는지 로인의 수다가 내게로 전염된 듯 《놀랍습니다》란 말이 번발되었다.

로인은 그쯤한 번발사격에는 끄떡도 않고 계속했다.

《암, 보이느니 돌뿐인 돌박산이었수다. 산도 그 산이요, 물도 그 물이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펼쳐진 꽃천지겠소.

우리 대원수님들께서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구 지켜주시구 뉘니뉘니해두 사람들을 잘 가꿔주신 덕이우다.》

사람들을 가꿔주신 덕!

인민들은 이 나라, 이 땅을 가꾸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그 인민을 가꾸고 키워주시고... 로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철학이 있는듯싶어 가슴이 뻘근해올랐다.

그래서 숨을 깊숙이 토크쉬는데 내 모습을 목마른 사람의 그것으로 느꼈는지 로인은 《이 정신 바라.》하고 필쩍 놀라더니 또다시 꿀물그릇을 들고 다가섰다.

《옛날에는 지나가다 배고파 우는 애들한테 아카시아꽃 한송이밖에 따줄수 없는 척박한 고장이였소만 지금에야... 자, 어서...》

피곳 로인의 정수리에 또렷이 남아있는 상처자욱이 눈에 띄었다. 그에 이어 꽃송이를 나에게 내들던 더벅머리총각애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하나의 뜻이지만 서로 다른 색깔의 한목소리...

울먹임에 섞여 들려오던 어제날의 《자, 먹어.》, 자랑스럽게 들려오는 오늘의 저 《어서 드시우!》. 그 두 말마디사이에 력사가 흐르는듯싶다.

돌박산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어 척박한 땅에 틈을 내고 거기에 거름을 내 걸구어 한치한치 살찌우며 오늘의 파수원, 백화산으로 변모되기까지의 력사가...

《로인님은 그 옛날 피에 젖은 꽃 한송이를 들려

얼마나 좋아

우 광 복

노루골포전 지나 함지골...
포전마다 네벌김 말끔히 끝맺고
너럭바위 샘터에서 마시는 물맛
너무 달고 시원해 무엇이랴 말할가

강냉이대들은 하나같이
팔뚝만큼 자래워야 한다고
잔소리했던 우리 분조장
샘물을 통채로 마시려나

언제봐도 두이랑잡아 김을 매며
웃음많은 분이 엄마
어찌자고 저도 마시나
하건만 너도나도 마시며
함박꽃웃음 피우네

누가 불세라 돌아앉아
가랑잎 오무려 물마시는 옥이모습

첫날색시처럼 곱기도 하고
도라지꽃까지 머리에 뿔소

삼복철에 단고기가 보약이라 하지만
너럭바위샘물에 어이 비길가
땀흘리며 땅을 가꾼 우리들에게
고향땅은 구기자며 산삼차를 떠올려
시원한 샘물로 언제나 안겨주네

흙줄처럼 길어지는 여름해에도
소뿔도 녹인다는 무더위에도
농칠세라 살피가며 김잡아온 기쁨을
샘물도 알아 흰모래 떠올리오

원수님신년사 풍작으로 꽃피우자고
크고작은 포전들 참초처럼 안고산 마음
세벌김 잡았다 신들메를 늦추랴
열두벌김이라도 우리 잡아가리라

=====

주던 손으로 오늘은 이렇게 넘쳐나는 꿀물그릇을
들려주십니다그려.》

나는 뜨겁게 말을 툴었다.

순간 로인의 주름잡힌 볼편에서는 경련이 일었다.
입귀를 일그러뜨리며 찌엄찌엄 울먹진 말을 내
뱉는다.

《이제, 이제 누구요?》

용케도 나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와락 내 손을
부여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나서 힘껏 그
러안았다.

나는 늙은이답지 않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도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어제날의 눈물이 아니었다.

연분홍꽃, 하얀 꽃, 빨간 꽃, 노란 꽃...

꽃으로 뒤덮인 백화산너머로 만경대고향집의 사
립문이 안겨오는가 하면 그뒤로 모란봉기슭의 개
선문, 더불어 굽이굽이 철령이며 오성산의 길들이
밝혀왔다.

만경대에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른 그날부터 장
장 한세기가 흘러지났다.

우리 수령님 내 나라, 내 조국을 찾아주시고 가
꿔주시며 걸으신 한생로고가 헤아려지고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으로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험한 길들
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 아니었다
면, 위대한 장군님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
치 아니었다면 제국주의령장들이 그 꽃 한송이, 그

한점 풀씨마저 다 태워버렸을 이 강산...

진정 위대한 대원수님들 아니시였다면 이 하늘
아래 이 땅의 자그마한 쪼각에 이르기까지 불모의
땅, 돌박산으로 되어버렸을 운명 아니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로움에 가슴벅차오르고 보
답의 일념으로 가슴 뚫어오르는 순간이었다.

내 고향의 자그마한 돌박산까지 꽃으로 뒤덮인
이 현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
의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뚫으며 돌과 바람만이 깃
을 들였다던 세포동판마저 천지개벽의 푸른 들로
펼쳐가고계신다.

이제 그 등판에 푸르른 풀판이 일매지게 펼쳐지고
소, 양떼, 염소떼들이 구름처럼 흐르게 되리라.

그때면 그 땅에서는 무슨 향기가 진동할것인가.

이 강산 하도 좋아의 노래선물 타고 사회주의대
화원의 향기가 진동하고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
려퍼지리니.

아, 백두산위인들을 잘 만나 날마다 젊어지는 내
나라 산천이여!

나는 가슴그득 향기를 삼키며 파수원등판을 오래
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꽃향기에 젖어... 사회주의향기에 취해...

《자, 지나가는 길손아! 여기 들렀다가시우.》

만발한 꽃속에서 길손을 부르는 소리는 노래처럼
또다시 들린다.

《단풍》호는 바다로 간다 외 1편

주 경

대화기에서 올려오는
선장의 출항명령
갑판에 올린다
바다에 올린다
—출항!

갈매기도 너울너울
먼바다길에 따라서고
잠을 깬 아침 바다우옌
금물결이 파도친다

포구를 떠날 땐
빈배로 떠나지만
우리의 《단풍》호는
빈배가 아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
갑판에도 어창에도 가득넘치거니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떼를 따라
배고동소리 높이 올려가는

사나운 날바다는
우리 어로공들의 전투장

한기땅 올리고
또다시 새 어장을 찾아가는 《단풍》호
원수님 이름 지어주신
풍요한 가을의 상징
나의 《단풍》호여

사나운 파도가 무엇이랴
파도높은 밤바다가 무엇이랴
파도를 눌러딘고 살처럼 달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올려
원수님께 풍어의 기쁨 아뢰이고싶은 마음

그 마음 안고
우리의 《단풍》호는
선미에 감아올린 닻을
내릴줄 모르거니

떠날 때 손저어 바래워주던
정다운 포구에
만선의 기쁨을 신고올 그날을 위해
우리의 《단풍》호는
바다로 나간다 풍어의 기쁨을 안아올린다

아들의 편지

내 때없이
고기비늘이 번들거리는
어로복주머니에서 꺼내보는
아들의 편지가 있다

이제는
너무도 보고 또 보아
바다물에 절고
고기비린내 풍기는
아들의 편지

바다먼 최전연초소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물고기들을 매일 먹고있다는
아들의 편지

읽을수록 가슴뜨거운
아들아 너의 편지를
이 아버지는 가슴에 품고
어로전투에 나간다

친부모도 줄수 없었던 사랑
병사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불타는 마음안고 어로전에 나간다

아들아 우리 얼마나
바다에도 비기지 못할
사랑의 넓은 품에 안겨사느냐
나는 바다에서
너는 초소에서
그 고마운 품을 지켜 충정을 다하자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자

백현숙

한 평론가가 어느 아동소설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였다.

…아동소설에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온 나라가 《마식령속도》로 들끓고있는 이때 년 그렇게 건달을 부려서 되겠느냐 하고 타이르는 세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심형상에 부합되는 진실한 형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두말할것없이 나도 그 평론가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이다. 뿐만아니라 저렇게 표어를 람발하는 경향성은 소설가들이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창작실천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따금 시대의 숨결이 후덥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의 시대상이 생경하게 안겨오는 경우를 목격할수 있다.

생산문제만 오늘의 시점일뿐 인간문제나 인물들의 성격에는 시대의 특징이 비끼지 못하고 작중인물들이 말끝마다 시대어를 외우는 식으로 강조하는 소설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기를 분간할수 없는 고루한 이야기속에 시대어를 요긴한 대목마다 박아넣어 시대맛을 양념식으로 살려놓는 소설들도 간혹 있다.

물론 소설작품안에 시대를 담으면 그 시대가 낳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어들이 묘사속에, 대사속에, 설명속에 등장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또 필요한것이기도 하다.

소설문학에서 시대상은 시대정신이 비낀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할 때에만 정확히 드러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작가들이 소설작품에 오늘의 시대정신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시대를 특징지을수 있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들고나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는 시대의 기본정신을 밝혀낸 여러편의 소설작품들이 실리였다.

단편소설 《내 고향의 풍경》(송혜경 작, 주체

102년 9호)은 《피로 지킨 초소》의 무명전사들을 상상화로 담으려던 화가 정소연이 오늘의 평범한 인간들속에서 무명영웅들의 모습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정소연이 성공한 녀류화가가 되어 수십년만에 고향을 찾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소연의 고향방문목적은 한마디로 《피로 지킨 초소》의 무명전사들의 모상을 내 고향의 상징으로 될수 있게 화폭에 훌륭히 담는것이다.

소연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되었다. 동무들과 함께 《피로 지킨 초소》의 번두리에 철쭉이며 금강초롱꽃이며 도라지꽃을 심어가꾸던 나날에, 자진하여 《피로 지킨 초소》를 관리하는 차옥별의 아버지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연은 무명전사들의 모습을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그려낼 꿈을 자태운다.

교원이 되리라던 어릴적 동무 차옥별은 조선인민군 군인이 되었고 인민군협주단 배우가 되겠다던 시판이는 기관사가 되었지만 소연이만은 소원대로 화가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재능있는 화가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건만 소연은 붓을 들지 못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고향땅을 지켜낸 영웅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들인가. 모른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아는것은 다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던 그들이 스스로 여기에 초소를 정하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켜냈다는것뿐이다.

어린시절에는 크레용으로 단번에 척척 그릴수 있었던 용사들을 화가가 된 오늘날 그릴수 없는것이다.

희생된 선렬들에 대한 성스러운 의무감, 차옥별의 부모님들이며 교장선생님, 마을사람들의 극진한 정성과 기대… 그래도 소연의 창작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초조한 나날이 흐르는 속에 소연은 자기 모교의 미술소조작품전람회에 초청받게 된다.

서툴고 미흡한 그러나 열정이 비낀 그림들. 그속에서 소연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많은 아이들이 바로 한대상을, 다름아닌 자기의 어릴적 동무였던 차옥별에 대한 각이한 형상을 그

렸던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차옥별영웅을〈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있지요.…”》

옥별이가 공화국영웅이다!

소연은 이미 방송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내고 희생된 차옥별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을 들었었다. 그러나 차마 그 영웅이 자기의 동무 차옥별이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특정한 사람들일것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영웅— 그들은 결코 아득한 상상속에 존재한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우리곁에, 우리의 생활속에 있었다.

《…우리 나라에 그런 영웅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옥별이 오빠의 이 말은 많은것을 깨우쳐준다.

그토록 모지름을 쓰며 상상하려 했던 무명렬사들의 모습을 소연은 화염속에서 구호나무를 수호한 차옥별이며 한생을 한모습으로 사는 차옥별의 아버지, 기적소리로 고향을 노래하는 시판이 등의 모습속에서 찾아낸다.

결혼식을 하는 한쌍의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소연은 마침내 이 땅에 영원히 펼쳐져질 내 고향의 풍경을 포착한다.

보는바와 같이 이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영웅한 영웅렬사들의 모습을 평범한 신랑신부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이야기이다.

이 극적인 이야기속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시대정신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혁명의 정신적핵,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물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구현문제는 많은 소설 작품들에서 기본형상과제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키였다.

이 소설에서 극의 출발점은 무명렬사묘에 대한 고향마을사람들의 남다른 애착속에 있다.

《피로 지킨 초소》의 렬사들은 이 고장사람도 아니고 마을사람을 구원한 은인들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굳이 무명렬사들을 고향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정신이 마땅히 자기 고향의 전통으로 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무엇때문에? 바로 그들이 다름아닌 평양을,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여 한목숨 바친 렬사들이기 때문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이 공통된 지향으로 하여 현대 인간들과 무명렬사들의 뉴대는 굳건히,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으며 이것은 시대의 본질적인 화폭을 이룬다.

렬사묘와 고향사람들사이의 극적인 설정은 정소

연이 그 어떤 영웅이 아니라 신랑신부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극적인 관계속에서 조성된다.

여기서 신랑신부의 설정은 작가의 단수가 엿보이는 의미심장하고 발견적인 세부라고 볼수 있다.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많은 경우 정소연이 영웅 옥별이를 그릴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작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계한, 영웅과는 거리가 먼 신랑신부를 내 고향 풍경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였다.

이 설정은 주제의 방향을 결정지은 판건적인 매듭이라고 할수 있다.

만일 소연이가 옥별이를 그렸더라면 영웅은 역시 어릴 때부터 남다른 특정한 사람으로 결론지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특정한 몇몇 영웅들이 지니고사는 정신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가 체질화하고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발양시켜나아가야 할 정신이며 일단 비상한 정황속에서는 영웅성으로 폭발시켜야 할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세워주신 착주군단 선전일군들의 희생적인 장거는 이를 잘 실증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제의 요구에 따르는 형상생리에 맞게 영웅 옥별이에게만 형상을 집중시킨것이 아니라 옥별이 부모들이며 기관사 시판이, 교장, 어린 복동이, 학교학생들, 신랑신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보통인간들의 공통된 지향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영웅의 비범성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의 영웅성을 강조하였다.

평범한 인간들이 발휘하는 무비의 영웅성의 기초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낸 이것이 이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며 발견이라고 할수 있다.

시대정신을 형상속에서 밝혀내려는 노력은 단편소설 《고향의 백양나무》(리순호 작, 주체102년 8호)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소설은 한 분조장에 의하여 《부러진 나무》가 이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이야기이다.

대학입학시험에서 미끄러진 광진은 자기를 부러진 나무라고 생각한다.

농장에서 일하게 된것이 부끄러워 분조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광진에게 분조장은 잘라낸 백양나무가지를 심으라고 한다.

자존심이 차돌같은 광진은 자기를 직관교육시키는것 같아 일종의 모욕을 느끼며 그것은 분조장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남긴다.

비풍치는 어느날 밤 광진은 자기가 되는데로 꼭 박아놓은 백양나무가지를 걱정한다. 그러나 다음날

나가보니 백양나무는 든든한 버팀목에 떠받들려 귀인성스러운 파아란 이파리까지 돌아나있었다.

한일없이 농장결산을 겪고난 광진은 분조장과 분조원들에게 땀땀해지고싶어 물관리공을 자진해나선다.

뜻박에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에게 정말로 물관리공일이 차레진다.

그러나 욕망뿐이었다.

분조장은 광진이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책임성과 애착심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일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그 나날에 광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심어놓은 백양나무에 대한 애모뿐 감정과 함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기 시작한다.

분조장의 방조와 믿음속에 청년분조장으로까지 성장한 광진은 고향의 백양나무앞에서 이렇게 마음속 진정을 더놓는다.

《고향의 백양나무여, 나도 너처럼 살련다. 거목으로 자랄수 있도록 깊이 뿌리내리게 해준 고마운 토양에 다함없는 인사를 드리며 충정과 보답으로 이 땅을 살찌우고 새 거목을 위해 자기를 바치며 어린 나무의 복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훌륭한 인간들처럼 나도 살련다.…»

이 소설의 소재는 자칫하면 분조장이 농사를 잘 짓도록 분조원들을 이끌어주는 이야기로 전개될수 있었다.

그러나 농사란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때문에 작품은 풍년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이야기로 이끌어갔다.

농민들을 고향의 나무 한그루도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는 대지의 참된 아들로,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가진 진짜배기 농촌의 주인들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사회적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곧 김정일애국주의의 구현문제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자기가 나서자란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를 위해 바치는 열렬한 헌신으로 표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그것을 한갓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나가라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며 리론으로, 구호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속에 살아숨쉬고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숨배여있다.

이 소설에는 김정일애국주의라는 표현이 따로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가 소중히 자리잡는 과정을 평범한 농촌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소박하게 펼쳐놓고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한다는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것 같지만 사실상 인간에게 진정으로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든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자기가 사는 이 땅의 모든것을 통채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그 모든것에 속하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사랑할수 있는것이다.

이 소설에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자리잡게 되는 특이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계기가 없다. 그저 평범한 농촌생활속에서 점차 고향과 농사일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가는 과정만이 그려져있을뿐이다.

그러나 소설에 펼쳐진 생활이 오히려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의 생활을 밀착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특히 백양나무는 광진의 성격변화과정, 김정일애국주의가 자리잡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세부이다.

물론 이 소설은 주인공 광진의 성격발전단계가 주관적으로 꾸며진감이 있는 부족점을 안고있다. 그리하여 광진의 형상이 어설프게 안겨온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생활적인 화폭속에서 도출해 내려는 작가의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

우의 두 소설들을 놓고보면 일련의 공통점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정신의 높이는 소설형상의 전과정에 의하여 담보되지만 특히는 소설의 주제와 인간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다.

시대의 주도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웅당한 높이에서 형상화할 때 시대정신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곧바로, 뜨겁게 흘러들것이며 작품의 시대상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부각되게 될것이다.

작가들은 시대를 명철하게 투시할수 있는 안목, 시대의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탐구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미, 정신미를 찾아낼줄 아는 높은 작가적자질과 능력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제작과정을 다루고 현대화과정을 그려서 오늘의 시대가 보이는것이 아니다. 또한 시대어가 시대상을 대표할수도 없다.

우리 작가들은 그 위대한 시대적변혁을 안아온 인간들이 안고있는 인간문제, 시대의 숨결로 맥박치는 인간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그려야 한다. 하여 우리의 소설 한편한편이 자랑스럽고 영광넘친 오늘의 시대를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화폭으로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내 탁상등 끄지 않으리!

한 동 선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 모대기는 한밤
내 탁상등우에 몸을 일으키니
창밖은 그대로 별의 바다런가
대낮같은 건설장엔 밤이 따로 없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온 건설장을 흔들던 방송선전차의 확성기는
어느새 노래를 멈추었구나
과학자 나의 집 창가에 고요가 깃들라고
조립공도 타입공도 병사들모두가
숨소리 죽여가며 일손을 놀리는듯
병사들 마음짓든 포근한 이 정적
송구히 송구스러이 내 안아보노라

아, 이런 밤
그 누가 편한 잠에 들수 있으랴
다 자란 이 어깨에 책가방밖에 메어본적 없는 몸
조국의 무거운 짐 나누어뎌적 없어
언제나 죄스러운 이 몸을
금방석같은 새 보금자리에 얹혀주시려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병사들이여
이 한밤도 꺾박 새우며 그대들 정녕
내 집 식구들의 안식마저 지켜주고있단 말인가

부락하노라 군인동무들이여
방송선전차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다오
건설장의 우렁찬 혁명군가 들으며 사는 나에게
쉬임없이 더 높이 들려다오
내 람구의 절벽에 부딪쳐 쓰러졌다가도
백천번 다시 일어나 튼아오르게 해다오

울려다오 그대들의 혁명군가소리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나의 가슴에도
지혜와 슬기와 용맹을 주나니
산뜻한 내 옷깃에 령장은 없어도
과학전선을 지켜선 조국수호의 병사
나는 제대를 모르는 원수님의 한 전사!

믿어달라
그대들 지새는 그 모든 밤들에
과학자 나는 탁상등 끄지 않으리라
행복의 이 거리 세워놓고 그대들 떠나가도
결사관철—군인정신의 그 열정 그 기백은
심장속에 길이 남아 일생을 함께 살리

상 식

현대올림픽의 어제와 오늘의 달라진 모습

직업화된 올림픽

현대올림픽의 창시자인 구벨뎡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육은 엄금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 정신을 고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다섯번째 위원장이었던 브란테지 역시 이러한 립장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스터 아마츄어》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사람이다. 그는 립종을 앞둔 시기에 앞으로 올림픽이 완전히 직업선수화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의 예언이 지금 현실로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올림픽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따낸 직업선수에게 수여되었던 금메달을 박탈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972년에 마침내 모든 직업선수들이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메달을 회수당하였던 선수에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수여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생겨났다.

오늘의 올림픽은 대중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뛰어난 기술을 소유한 직업선수들의 활무대로 되었으며 아마츄어정신은 직업화바람에 밀려 영원히 사라지고말았다.

이것이 올림픽력사에서 일어난 첫번째 변화이다.

해괴한 《출산》소식

강 규 우

60이 넘어 이제는 할망구가 된
차디찬 랭혈의 늙은 마님이
색안경을 낀 아들을 낳았다는 괴이한 소식
평생 결혼도 못해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
박근혜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
모두가 희한해하고 놀라와하는구나
결혼은 언제 한적 있는데
아이부터 낳았다니 리명박이 박근혜와
《대선후보경선》놀음 치렬하게 벌리며
흠잡아들주기 가릴처절하던 때
근혜가 사생아를 낳았다고
명박이놈이 증거까지 내대면서
어지러운 뒤생활 파헤쳐놓으니
근혜년도 뒤가 켜져서
—그러면 그 애를 데려다
인체검사하면 될게 아니냐?...
발끈해서 양탈을 부리며
행악질했다는 성추행이야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전해오는데
오늘의 근혜년의 새로운 《출산》소식 무슨
말이나
썩고병든 남조선에는 미국식으로
《체외수정》, 《대리모 임신》한다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판무하고있다는 말
들어는 봤어도
늙은 년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
어찌 놀라움을 금할수 있으랴
사람들 떠들어대며 폐를 지어 밀려간다

×

서울바닥 평화박물관전시장을 찾는 사람들
그림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구나
남조선의 민중화가 홍아무개 그린 그림
박근혜년의 《출산》장면 너무도 생동하고
희한해서 관중들 눈길을 못 떼고있구나
—근혜년 자빠져 《아들》을 낳는다!
아이의 생김새 《유신》독재자 박정희와
신통히도 똑같으니
해산을 방조하던 산과의사 너무도 놀라누나
그림을 본 남조선인민들이 화가에게 묻는다
—아이를 못 낳아본 근혜가
측은하고 동정심이 생겨서
그림으로라도 《출산》하는 모양 보여주려 하였나—
—아닙니다 거만과 불통의 너왕이며
독선과 독단의 왕초이고
교만과 오만의 전형으로 불리우는
랑혈의 악녀가
어찌 제 몸에서 《아들》을 낳을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혜가 불법으로 정권을 가로채니
제 애비보다 더 악독한 파쑈독재정치
명박이보다 더 비굴한 아부굴종
식민지하수인정치
반통일 반민족 반민생정치한다는 뜻에서
그린것이지요...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7호 (루게 제801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7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7월 5일

ㄱ-46789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